

영국

정보수정일자: 2011. 04. 12

작성처: 런던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3
-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5
- 주요 산업 동향 /9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5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16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8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19
 - 대한수입규제동향 /21
 - 관세제도 /22
 - 주요인증제도 /24
 - 지적재산권 /27
 - 통관운송 /30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34
- 외국기업 투자동향 /39
- 우리기업 투자동향 /41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42
- 진출형태별 절차 /50
- 투자입지여건 /6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66
- 조세제도 /71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74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76
- 물가정보 /81
- 바이어발굴 /82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82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87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88
- 이주정착 가이드 /90
- 출장가이드 /92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14
- 유관기관 웹사이트 /115

KOTRA 99개 KBC에서 전하는 Global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KOTRA InfoPass 안내

'InfoPass'란? 정보(Information)와 자유이용(Pass)을 결합한 KOTRA 정보 자유이용 서비스로 KOTRA 국가정보의 온·오프라인 이용 뿐만 아니라 KOTRA 발간하는 모든 유·무료자료를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 VIP 정보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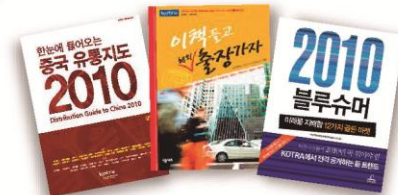
1. 국가정보 서비스 (전세계 136개국)

- KOTRA 주재 7개국 및 비주재 관할 65개국 국가정보의 이용 ID부여
* 비주재국 관할 65개국 국가정보 InfoPass 고객에게 최초공개
- 국가정보 (7개국) 전질 인쇄본 무료 제공 (150만원 상당)



2. KOTRA 발간 유·무료자료 무료 배송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내 발간하는 모든 KOTRA 자료 실시간 배송
* '09 유·무료 자료 (약 180여권) : [유료단행본] '2010 블루슈머', '중국유통지도' 등 21권 /
[무료자료] '한-EU FTA 10대 수출유망상품' 등 163권



판매가격(VAT 포함)

대상

500만원/년
250만원/년대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유관기관(협회 등)
개인 및 중소기업

*InfoPass ID는 기관내 공유 가능하나 동시접속은 불가 (ID추가시 20% 적용)

- ✓ 가입방법 : www.globalwindow.org 내 InfoPass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송부
- ✓ 담당자 : KOTRA 구미팀 정은정, 김한나 대리
- ✓ Tel : 02)3460-7319, 7322 / Fax : 02)3460-7924
- ✓ E-mail : cocoej@kotra.or.kr (정은정)
hanna@kotra.or.kr (김한나)

kotra

United Kingdom



1993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명	영국(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위치	서부 유럽(북해와 대서양 사이의 섬)
면적	244,100km ² (한반도의 1.2배)
기후	서안/온대 해양성
수도	런던(London)
인구	○ 총 인구 62,041,708 명(2010 년 추정), 58,789,194(2001 년 최신 인구조사 기준) - 잉글랜드 50,577,000 명(83.8%) - 웨일즈 2,950,000 명(4.9%) - 스코틀랜드 5,087,000 명(8.4%) - 북아일랜드 1,741,000 명(2.9%)
주요도시	런던(738만 명), 버밍엄(99만 명), 리즈(71만 명), 글라스고우(57만 명), 셰필드(51만 명) - 2001년 인구조사
민족	앵글로색슨 백인(92.1%), 남아시아인(4%), 흑인(2%), 기타혼혈(1.2%), 중국인(0.4%), 기타(0.4%) - 2001년 인구조사
언어	영어 (공용어), 웨일즈어, 스코티시 게일릭, 아이리시 게일릭
종교	성공회(50%), 개신교(30%), 로마카톨릭(11%), 기타(9%)
건국(독립)일	10세기 통일국가 유지. 1927년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공식 국호 명칭.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의회정치제
국가 원수 실권자	○ 국가 원수: Her Majesty Queen Elizabeth II - 1926. 4. 21 생, 1952.2.6 즉위 ○ 정식 명칭: Elizabeth the Second,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
	○ 총리(실권자): David Cameron - 1966. 10. 09 생 - 런던출생, Brasnose College, Oxford 대학교 PPE (철학, 정치, 경제)졸업 - 2001 년 보수당 하원의원 당선, 2005 년 12 월부터 보수당 당수 역임 - 2010 년 5 월 11 일 영국 총리로 취임 (200 년만에 최연소 총리)

자료: 영국 통계청, 영국 정부, The World Fact book

나. 경제 지표(OECD 발표, 또는 영국 통계청)

GDP	2조 1,390억 달러 (2010년말)
실질 경제 성장률	-0.5% (2011년 2월)
1인당 GDP	35,082달러(2010년)
실업률	8%(2011년 2월)
물가 상승률	CPI 4.4%(2011년 2월)
화폐 단위	영국 파운드(GBP) 표기: Libra, Lb 또는 £ 구성단위: 1파운드 (£) = 100펜스(p) 유통: 잉글랜드식 기본 파운드화는 연합왕국 (UK) 전역에서 사용가능. 스코틀랜드와 채널제도, 맨섬에서는 상이한 외관의 지폐와 동전이 사용되나 잉글랜드와 동일한 영국화폐제도에 속함
환율	£1 = 1,769.26원, £1 = \$1.6348 (2011 년 4월 8일 매매 기준율 기준)
외채	9천3백80억 파운드 (2011년 4월 8일)
외환 보유고	759억 6,500만 달러(2010년 11월 기준)
산업 구조	1차 산업: 1%, 2차 산업: 25.6%, 3차 산업: 73.4%
교역 규모	○ 총 수출: 4,187 억 달러 (2010 년 기준) ○ 총 수입: 5,859 억 달러 (2010 년 기준)
교역 품	○ 수출: 기계류, 자동차, 원유, 항공/선박기기 ○ 수입: 자동차, 사무용기기, 전자, 전기기기

자료: 영국 통계청, 영란은행, The World Fact book, World Trade Atlas

다. 한-영 관계

체결 협정	○ 1883.1,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 1884.4, 한영 국교수립(서울에 총영사관 설립) ○ 1900, 주한영국총영사관 공사관으로 격상 ○ 1901, 주영국 공사관 개설(초대 공사 민영돈 부임) ○ 1906,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총영사관으로 격하 ○ 1949.1.13, 영국정부, 대한민국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부로 승인 ○ 1950.2.17, 주영 한국공사관 개설 ○ 1954. 8.29, 잠정항공협정 ○ 1954. 9.28, 주한영연방군 대여금 청산 협정 ○ 1955.7.11, 양국, 공사관에서 대사관으로 승격 ○ 1960. 5.26, 항공협정 ○ 1964. 8.4, 차관협정 ○ 1964.11.19, 항공협정 ○ 1967. 5.10, 항공협정 개정 ○ 1969.12.18, 사증면제협정(60일간 유효, 30일간 연장가능) ○ 1970. 4.30, 항공협정 개정 ○ 1976. 3.4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 1978.2.19, 공업소유권 보호협정 ○ 1978.5.13, 이중과세 방지협정 ○ 1979.3.4,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83.9.22 개정) ○ 1982.7.12, 문화협정 ○ 1984.3.5, 항공협정 ○ 1985.6.14, 과학기술협력협정 ○ 1990.10.24, 항공협정 개정 ○ 1991.11.27, 원자력협력협정(92.5.12 제1차 한영 원자력협의회-런던개최) ○ 1996.10.25(서명), 이중과세방지협정(신협약) ○ 1999.4.20, 사회보장협약(2000.8.1) ○ 2000. 8.1, 사회보장협정 ○ 2001. 6.29, 항공협정 개정 ○ 2001.12.5, 국제과학감시계획협정 개정 ○ 2001.12.20, 국제과학감시계획협정 개정 ○ 2005. 8.29, 영국문화원운영협정 ○ 2009. 1.26, 군사비밀보호협정 가서명
교역 규모	○ 수출: 영국은 한국의 26대 수출대상국(56억 달러, 2010년) ○ 수입: 영국은 한국의 26대 수입대상국(33억 달러, 2010년)
교역품	○ 수출: 기계류, 의약품, 주류, 철강, 합성수지 ○ 수입: 선박, 전기기기, 자동차, 기계, 고무, 귀금속, 광학기기
투자 교류	○ 우리나라의 대 영국 투자 - 1968~2010년 우리기업의 영국 투자는 누계(총 투자 금액 기준)는 594건, 43억 달러 - 국내 기업의 대 유럽 투자는 200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 다만 동 유럽 국가의 EU 가입으로 국내 주요 기업의 유럽 내 생산 기지가 동구권으로 이전하는 추세임. ○ 영국의 대한 투자 - 1962~2010년 3분기까지 영국의 대 한국 투자 누계액(신고기준)은 106억달러를 기록, 세계에서는 4위, EU에서는 네덜란드에 이어 2번째로 한국에 많이 투자한 나라임 - 주요투자기업: BT(통신), TESCO(유통), PowerGen(에너지), Allied Domecq(주류 제조), British American Tobacco(담배), eBay(전자상거래), Total Holdings UK(항공), Prudential Corporation Holdings(보험), TI Automatic Holding(자동차부품 제조), AMEC Investments(건설) 등임. - 2009년 영국의 대 한국 직접 투자(신고 기준)는 88건, 19.5억 달러, 2010년 3분기까지는 68건, 6.2억 달러임
교민	○ 체류자: 3만여 명 - 정부, 민간지상사 주재원, 유학생 및 동반 가족 등 1만 5,000여 명 - 여학 연수생 1만 5,000여 명 - 지역별: 런던(2만 5,000여 명), 기타(5,000여 명)

2. 정치 사회 동향

가. 최근 영국 정치 동향

- 2010 년 5 월 6 일 총선
 - 노동당의 13 년 장기집권을 마감하고 보수당-자민당 연립정부가 출범하였음.
 - 노동당, 보수당 양당의 지지도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양당체제인 영국의회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수당은 제 3 당인 자유민주당과 연정을 수립하게 됨.
- 2010 년 5 월 11 일 데이비드 캐머런 신임총리 취임
 - 2005 년 12 월부터 제 1 야당인 보수당의 당수직을 역임해온 캐머런은 2010 년 총선에서 정권을 잡자 연정파트너인 자민당의 당수 닉 클레그와 내각구성에 대한 합의 하에 5 월 11 일 신임총리로 취임
 - 자민당의 당수 닉 클레그는 부총리로 취임
 - 데이비드 캐머런은 명문고 이튼과 옥스포드대학 PPE 과정을 졸업하는 전형적인 영국 귀족의 사회입문 코스를 밟은 엘리트로 2001 년 7 월 국회의원에 당선 (Witney 지역구) 되면서 정계 입문
 - 2005 년 당수직에 오른 이후 줄곧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를 강조해왔으며 2010 년 에는 영국 200 년 역사상 가장 젊은 총리 (43 세) 가 되었음
 - 내각구성 또한 평균 연령대가 3,40 대로 젊으며 여성 및 무슬림계 인사또한 등용하여 토리당 (Tory)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중시의 보수당 이미지를 바꾸고 다양성과 포용, 융합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음

나.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의 정책

- 보수주의 보수당과 시민자유주의 자민당의 연정이기 때문에 양당의 이념이 혼재되어 있음
 - 작은 정부 (정부부처 통폐합 및 대규모 감원)
 - 정부지출 삭감 및 국가지원사업의 축소 및 백지화
 - 외국인투자 유입 촉진
 - 중앙은행의 금융규제권한 일부 축소
 - 조세확대
 - 정보의 자유 확대해석 및 국가의 시민개인정보수집 (ID 카드, 주민정보 등) 폐지
- 국방 정책
 - 핵 억지력 유지
 - 핵탄두 및 전략무기 보유량 대외공개
 - 잠대지 핵미사일 트라이던트 교체
 - 유럽방위군 존속, 북대서양조약기구군 지원확대
 - 국방예산 중 재래전력 구입비용 대폭 삭감
- 사회복지 정책
 - 사회복지 예산 축소
 - 취업 촉진 복지정책 추진(청소년 및 미취업 청년의 사회봉사 의무 프로그램 등)
 - 의료 및 교육부문에 대한 재정 축소
 - 경찰인력 증원
 - 외국인력유입 억제 (이민자수 제한 및 국적법 강화)

- 기업 정책
 - 중소기업 특별 우대, 법인세 대폭 인하(법인세율 단계적 인하→유럽 내 최저수준 유지)
 - 지역개발기구 (Regional Development Agency) 폐지, 기업에 대한 정부개입 최소화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양국간 항공편 증편

- 2001년 6월 한-영국 항공회담 당시 양국은 한국 측의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에 양국 간 항공편을 현행 5회에서 8회로 증편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8월 이후 대한항공은 런던-서울 간 매일 운항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화, 목, 토, 일 4회 운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Convention) 발효

- 1995년 3월 양국 정상 회담에서 동 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1999년 4월 양국 정부 간 서명을 거쳐 2000년 8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 동 협정 체결로 영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상사 주재원이 지금까지 이중으로 납부하여 온 사회보장세가 면제되어 연간 약 65억 원의 세금 면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 운전면허 상호 인정

- 한국 운전면허증이 영국 면허증으로 교환될 수 있도록 1996년 4월부터 영국 정부와 교섭하여 온 바, 지난 2001년 4월 말 양국 간 원칙적 합의(1997년 1월 1일 이전 면허에 대해 5년 무사고 증명 조건부)에 도달하였다.
- 2002년 3월 조건부 운전면허증 교환이 영국 국내 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1997년 전후를 불문하고 조건 없이 우리 운전 면허증이 영국 면허증과 교환될 수 있도록 재교섭하였다. 그 결과, 한-영 양국은 2002년 9월 20일 동 방안에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국에 거주하는 우리 상사 주재원, 교민의 생활의 불편 완화는 물론 양국 간 경제·통상·투자 활동 증진과 인적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라. 최근 주요 인사 교류 현황

- 2004. 12. 노무현 대통령 국빈 방영
- 2006. 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영
- 2006. 6.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방영
- 2006. 10. 존 프레스콧 부총리 방한
- 2007. 4. 존 메이저 전 영국총리 방한
- 2007. 5. 권오규 경제부총리 방영
- 2007. 5 영국 의회대표단 방한(상원의원 존 커 경 등)
- 2007. 11 김우식 과기부총리 방영
- 2009. 4 이명박 대통령 방영 (G20 정상회의 참석)

(자료: 주영 한국대사관)

마. 한국 문화원 개관

- 영국의 수도 런던에 한국 문화원이 문을 열었다. 런던 중심가 트라팔가 광장 인근에 자리잡은 문화원은 2008년 1월 30일 개원식을 했고,故 백남준 씨를 비롯한 한국 출신 작가의 작품 전시, 한국어 강좌, 한국 음식 체험 등의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다.

바. 영국 정부, 한-EU FTA 체결 환영

-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은 2010년 10월 6일 한-EU FTA 서명이 완료된 직후 'EU가 관세로 연 14억 파운드를 절감하게 될 것이며 한국과의 교역 증진은 물론 EU가 인도 등 다른 국가와 FTA를 맺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한-EU FTA 체결을 환영하였음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거시경제 지표

- GDP: 2 조 1,390 억 달러 (2010 년 말 기준)
- 1 인당 GDP: 35,082 달러 (2010 년)
- 경제 성장률: -0.5% (2010 년 4 분기 기준)
- 실업률: 8.0% (2011 년 1 월 기준)
- 물가상승률(CPI): CPI 4.4%(2011 년 2 월)
- 환율: £1= 1,769.26 원, £1= \$1.6348 (2011 년 4 월 8 일 매매 기준율 기준)

(단위: %, 10억 파운드)

	2009	2010	2011 전망
실질 GDP 성장률	-1.25	1.5	2.0
물가 인상률(CPI)	0.5	2.7	4.1
정부부채	118	175.7	149.7

자료: HM Treasury (2011년 2월 기준)

나. 영국 경제의 특징

- 전체 GDP 대비 무역 비중이 61%로 교역 중심의 산업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여 2009년 전체 GDP 대비 75%를 차지하며 제조업의 비중은 18% 이하이고 농업 분야는 1.2%를 차지한다.
- 영국은 제 2 차 대전 이전에 전 세계 교역량의 약 26%를 차지하면서 세계 제 2 위 무역국의 지위를 누린 바 있으며, 현재도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의 비중이 16%로 미국을 상회하는 대외교역 지향 국가이다.
- 영국 경제는 그간 여타 선진국 경제와 마찬가지로 금융, 유통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하여 70 년대 GDP 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던 제조업의 비중이 2006 년에 들어 13.0%로 낮아지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재편되었다.
- 기업 활동 지원서비스, 금융, 물류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GDP 의 76% 수준 이다.

- 영국의 제조업은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고용 및 투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산업으로서 경상수지에 기여하는 등 여전히 영국경제의 근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전통적인 제조업분야에서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노동집약적, 대량생산 제조업을 포기하고, 제약 및 생명산업, 항공우주, 정보통신, 소재, 에너지환경 등 영국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로 제조업 구조를 재편하였다.
- 영국은 세계 1 위의 외환 및 금융파생상품 거래 규모, 세계 채권 발행의 54% 및 채권 유통액의 65% 점유 등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의 중심국가이다.
- 세계 외환거래의 31%를 소화하고 있는 런던 금융시장은 영국 국민총생산의 8%를 차지한다.

다. 최근 경제동향

1. 최근 영국 경제동향

1) 금융부문

□ 주가지수(FTSE 100)

- 영국의 2010 년 4/4 분기 GDP 성장률은 -0.5%를 기록했다. (3/4 분기 GDP 성장률은 0.7%) 이러한 경기위축에는 2010.12 월의 열악한 기후 (폭설과 한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4/4 분기에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 분야는 서비스(0.5% 위축), 건설 (3.3% 위축) 2 개 분야이며, 제조업은 상당한 신장세(1.4%)를 시현했다.
- 저조한 성장률로 인해 주가와 환율이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 1.25 일 FTSE 지수가 0.44% 하락(26.14 하락한 5,197.71)하고, 파운드 가치도 하락(달러 대비 1.15%, 유로화 대비 1.07%)하였다.
- 2011년 4월 11일 기준, FTSE 100 지수: 6,063.49

FTSE 100 주가지수 추이



자료: 야후UK 금융 [<http://uk.finance.yahoo.com/>]

□ 환율 추이

- 금융위기 이전 파운드 대 달러 환율은 2.0 정도였으나 금융 위기 이후 1.4 대로 30% 까지 하락한 바 있다. 2009년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2010년 들어 유럽 경제의 악화로 파운드의 가치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 £ 1 = 1,769.26원, £ 1 = \$1.6348 (2011 년 4월 8일 매매 기준율 기준)

파운드 대 달러 환율 추이



자료: 야후 UK 금융 [<http://uk.finance.yahoo.com/>]

2) 실물부문

□ GDP 성장률

분기별 GDP 성장률

	'10Q1	'10Q2	'10Q3	'10Q4	'11 전분기 전망
전분기 대비	0.3	1.1	0.7	-0.5	2.0
전년 동기 대비	-0.2	1.5	2.5	1.5	

* 전분기 대비를 주지표로 발표하고 전년동기대비를 부지표로 발표

자료: 영국 통계청, HM Treasury Pocket data

- 영국 GDP는 1993년 이후 63분기동안 매분기 성장을 이루는 기록을 세웠으나 2008년 2/4분기 제로성장, 3/4분기부터 1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2009년 4/4분기 0.1% 성장을 이루며 천천히 회복세를 타며 2010년 2/4분기는 전분기 대비 1.2%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10년 4/4분기에 -0.5%로 축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2%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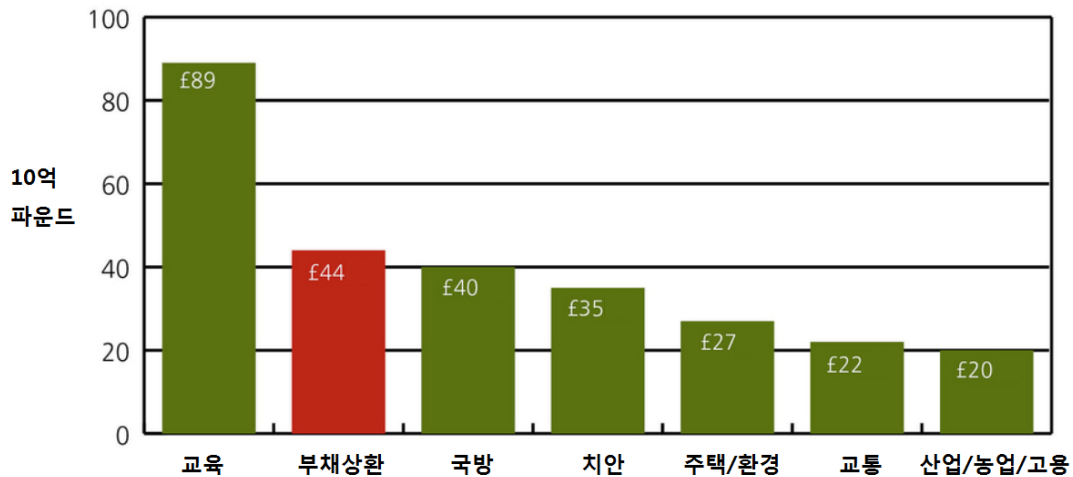
- 2011년 1월 기준으로 영국의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0.5% 감소를 보였다. 2010년 제조업은 전년대비 3.6% 증가하였으나 산업은 2.1%, 서비스는 1.1 증가에 머물렀다. 연간 생산의 증가는 제조업의 증가에 크게 기인한다.

□ 정부지출

	‘09Q4	‘10Q1	‘10Q2	‘10Q3	‘10Q4
전분기 대비	0.1	1.5	0.3	0.8	1.2
전년 동기 대비	0.0	2.2	2.6	2.7	2.9

자료: 영국 통계청

2010/2011 회계연도 영국정부지출 (2011년 3월 23일 발표)



자료: 영국재무성

- 소비자수 중 유일하게 정부지출은 계속 상승세이다. 2010년 4/4분기 소비지출은 전분기 대비 1.2%, 전년동기대비 2.9% 상승하였다.
- 영국정부의 최대지출부문은 교육 (890억 파운드)이며 부채이자 상환을 위한 지출이 (440억 파운드) 그 뒤를 잇고 있다.

□ 고용 및 금융시장

실업자수 및 실업률

(단위: 천명, %)

	10/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1/1월	2월
실업자수	2,486	2,506	2,475	2,469	2,457	2,467	2,448	2,448	2,502	2,498	2,492	2,529	N/A
실업률	7.9	8.0	7.9	7.8	7.8	7.8	7.7	7.7	7.9	7.9	7.9	8.0	N/A

자료: 영국 통계청

- 실업률은 2008년 6월(5.4%)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1년 1월 8.0%에 달하였다.

□ 기준금리 추이

- 영국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이전 5%대에서 계속 하락, 2009년 3월 최저금리인 0.5%로 인하되었고 2011년 4월 현재까지 유지되어오고 있다.

일시	기준금리 결정
2009년 3월 5일	0.5%(-0.5%)
2010년 2월 4일	0.5%(-0.5%)
2010년 3월 4일	0.5%(-0.5%)
2010년 7월 8일	0.5%(-0.5%)
2009년 9월 9일	0.5%(-0.5%)
2010년 1월 31일	0.5%(-0.5%)
2010년 5월 31일	0.5%(-0.5%)
2010년 9월 30일	0.5%(-0.5%)
2010년 12월 31일	0.5%(-0.5%)
2011년 2월 28일	0.5%(-0.5%)
2011년 3월 31일	0.5%(-0.5%)

자료: 영란은행

2. 주요 산업 동향

가. 전체 산업 구조 개관

영국은 무역과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를 토대로 경제 대국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농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완전 탈피하여 2% 이하의 노동력 투입을 통한 생산이 전체의 약 60%에 달하고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풍부한 석탄, 천연가스, 오일을 보전하고 있어 에너지 생산이 전체 GDP의 10%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은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GDP 내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 영국의 산업별 비중

- 1차 산업: 1%
- 2차 제조 산업: 25.6%
- 3차 서비스 산업: 73.4%

다. 영국의 주요 산업 소개

1) 핵심 산업 요약

□ Automotive

영국은 유럽 내 5대 자동차 생산 국가로 8개의 자동차 생산 업체와 500개 이상의 관련 업체 등이 존재하고 있다. 세계 20대 자동차 부품 회사 중 17개사가 영국 내 생산 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엔진 디자인과 독립적인 애프터 마켓에 특히 강점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 관련 총 수출액은 연 200억 파운드를 초과한다.

□ Biotechnology

유럽 내 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 내 바이오테크놀로지 업체 중 3/4 정도가 영국 회사로 추산되며 The Bio-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유럽의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장은 약 600억 파운드 규모이다.

□ Pharmaceutical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 중 하나로 2009년 129억 4,027만 파운드의 수출을 기록하였으며 대표적인 고용 시장으로 약 83,000명의 인력을 직접 고용 창출하고 있다.

□ Electronic & IT Hardware

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게임기,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첨단 전자 제품의 소비가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컴퓨터 하드웨어 시장 또한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118억 2,000만 파운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75%의 영국 성인 인구가 집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70%의 성인이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국내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는 대략 1,800만 명에 이른다.

□ Broadcast Technology

방송 기술은 영국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약 200개의 관련 회사가 존재하며 방송 기술과 방송 가전 제품을 통해 각각 약 8억 9,000만 파운드와 25억 5,000만 파운드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TV 시장에 있어 66%의 가구 보유율을 나타내는 성장 분야이다.

□ Telecommunications

2009년 기준 영국내 휴대폰 사용자 수는 전체 인구의 124%에 달해 선진 7개국중 이탈리아에 이어 시장 침투율 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이동 통신 회사인 보다폰과 BT 등 유수의 기업들이 기반을 두고 있다. 영국은 현재 유럽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휴대폰 단말기시장 규모는 판매대수 기준 약 3000만 개 시장이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평균 180~190달러 단가 산정 55억~60억 달러 시장이다.

2) 금융업

영국 런던 금융 시장은 뉴욕, 도쿄와 더불어 세계 3대 금융 시장으로 유럽 내에서는 제1위 시장이다. 뉴욕과 동경 금융 시장이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에 기반을 두고 성장한 반면, 런던은 국제 도매 금융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타 금융 센터에 비해 외국 금융 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크다. 영국 런던 금융 시장은 Bank of England 본점 건물을 중심으로 Tower of London, Liverpool Street, Holborn, Embankment를 잇는 1평방마일 면적의 City of London에 형성되어 있다. 세계 최대 외환 및 국제 주식 거래 시장으로 외환 거래액의 32%, 국제 주식 거래의 59%를 점유 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최대 펀드 매니지먼트 센터로 기관 투자자의 주식 보유액이 1조 8,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세계 4위 보험 시장이다.

3) 에너지 산업

영국은 천연 석유 및 가스, 석탄 등 다양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유럽 내 자원 강국이다. 1980년대 후반 가스 부문을 필두로 시작된 에너지 산업 민영화에 따라 1999년 5월까지 전기, 석탄, 원자력 부문이 모두 완전 민영화되었다. 특히 전기 산업의 경우,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정용 전기 판매업을 완전 개방하여 각 가정은 원하는 전기공급 업체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내외국인 무차별 정책에 따라 지역 전기 공급 업체들의 상당수가 외국 기업, 주로 미국 기업들에 인수됨으로써 상당 수준의 민간 경쟁 체제 하에 운영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기본 에너지 정책은 '민간 자율 경쟁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경쟁적인 가격에 소비자에 안정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10년 3월 기준 영국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약 25,000만톤(석유 단위 기준)으로 교통·운송용 32%, 산업용 20%, 주거용 32%, 상업·농업·공공 서비스 12.8%, 비 에너지 부문 사용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4) 저탄소 녹색 성장 프로젝트

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의 80% 이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와 2009년 4월 정부의 저탄소 사업 전략(UK Low Carbon Industrial Strategy)을 통해 그린화 정책의 핵심 산업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를 확보해 경제적, 산업적 이익을 거둘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 전략의 4가지 핵심 분야로는 비즈니스, 소비자 그리고 납세자의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에너지 효율관련 분야, 탄소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 원자력발전, 청정 석탄 등의 에너지 인프라관련 분야, 영국이 저탄소 배출 차량의 개발 및 생산에 선두가 되도록 하는 분야, 그리고 영국이 저탄소관련 비즈니스의 입지 및 개발에 최적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분야가 있다.

영국의 저탄소 환경관련 시장은 2009년 약 1060억 파운드 정도이며, 88만 명이 직, 간접적으로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1백만 명이 이 산업에 종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 현재의 경기침체기에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는 몇 안 되는 산업 중 하나가 저탄소 환경관련 산업이며, 저탄소 환경관련 산업은 2015년까지 매년 4%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은 저탄소 시장 확대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탄소환경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영국기업들을 포함한 타국기업의 관련 기업에 사업기회가 발생되리라 예상된다. 현재 영국 정부의 주요 지원 계획으로는 연안 풍력발전, 조력발전, 원자력발전, 저탄소 차량, 재생건설재료, 재생 화학물, 저탄소 제조업이 있다.

5) 유통업

영국의 전체 소매 판매액은 연간 약 2,000억 파운드(약 380조 원 규모)로 식료품 소매 판매가 전체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는 부가세 납부 기준으로 약 20만 개 정도의 소매 업자가 소매 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며 대다수는 영세 규모로 전체 소매 유통 업체의 약 85%가 연간 매출액이 50만 파운드(약 9억 원) 이하이다. 1% 미만의 유통 업체가 연간 매출액 500만 파운드 이상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소매 유통 구조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0.1% 미만의 유통 업체가 100개 이상의 아웃렛(매장)을 가진 소매 업체로 전체 소매 매출액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90%가 하나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단일 상점 운영 소매 업체가 전체 소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1990년대부터 전체 소매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근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이 타 산업에 비해 낮은 인터넷을 활용한 소매 업체의 등장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매 업체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업체 간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6) 전자 부품, 반도체 시장 동향

유럽 전자 부품 시장은 대략 106개의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약 226,000명 정도의 직접 고용 효과 및 477억 유로의 시장 가치를 지니며 이는 세계 시장의 19% 수준이다.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부문 시장이 전체의 51%를 차지한 가운데 Automotive, 소비 가전, 산업 부문 순으로 점유율을 유지한다. EU 내의 통계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선 'EU15' 외의 국가들의 성장세가 크게 돋보이고 있다. 특히 영국(아일랜드 포함)의 경우, 15억 유로 성장으로 총 100억 유로를 돌파함으로써 22.51%의 점유로 1위 독일을 근소한 차로 추격하고 있다. 한편, 세계 반도체 시장의 굴곡이 심한 시장 주기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약 350억 달러 내외의 시장 규모로 추산된다. 제품별 반도체 시장을 분석해 보면 DRAM이 +48.3%, Flash EEPROM이 +26.5%, Special Purpose Logic이 42.8%, Micro controllers가 +33.7%, Optoelectronics가 +64.5%의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유럽 내 반도체 시장의 큰 특징은 제품 수명 주기의 급격한 단축과 지속적인 가격 인하로 인한 세계 시장의 공격적인 압력으로 보다 속도감을 더한 혁신적인 시장이 형성된 것을 들 수 있다. 반도체 생산 공정의 복잡성과 높은 투자 부담(약 20-30억 유로)으로 인해 생산 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2005년 기준 22개 회사가 유럽 전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영국 시장의 추세는 직접적인 칩 생산보다는 SoC(System-on-chip) 등 차세대 칩 디자인이나 코어 개발을 통한 혁신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IP) 판매 및 라이선싱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System-on-chip 솔루션이나 나노 기술 등과 같은 보다 기술 집약적인 분야에 대한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으며 영국의 전자 칩 업체들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공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각종 산업의 화두인 컨버전스 추세와 각종 휴대 전화기나 디지털 카메라, 이동형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바일 기기의 확산에 따라 성능 향상과 소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SoC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영국은 유럽 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디자인 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대략 9,500만 달러 규모로 유럽 전체 전자 디자인 판매 이익의 60%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영국은 스코틀랜드에 세계적인 SoC 개발 센터인 알바(Alba)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997년 반도체, 전자 제품 설계 기술의 세계적 중심지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설립된 연구 기관으로 세계적인 해외 기업과 투자 유치 성공의 예로 들 수 있으며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인 ISLI과 지적 재산(IP) 판매소인 VCX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영국 내에는 유럽 내에서 최대 수준의 전자 시스템 관련 약 150개의 독립 디자인 하우스가 존재하며 최근 동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영국 내 대형 디자인 하우스로는 Plextek, Cambridge Consultants, Generics, Cadence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RF,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전반적인 전자 부품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유통 시장은 제조 업체들이 집중되어 있는 The North East, Central Scotland, South Wales 등에 위치하고 있다.

7) 정보 통신 산업 동향

영국의 정보 통신 시장은 Ofcom(the Office of Communications)이 통제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기관은 정보 통신 시장 전반에 걸친 전략 수립 및 검토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의 통신 시장은 가격 경쟁의 심화와 강화된 가격 규제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압력 등으로 둔화된 성장세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도 2.7%의 성장을 통해 546억 7,000만 파운드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유선 통신 부문의 축소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선 통신 부문이 가장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 부문은 인터넷 서비스 부문과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3G 서비스가 무선 통신 시장의 발전을 주도 해 나갈 것으로 여겨지며 비디오 메시지, 비디오 텔레포니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무선 데이터 서비스와 광대역 ADSL 등이 주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무선 컨버전스’도 또 다른 시장의 화두로 등장하며 이미 브리티시 텔레콤이 유무선 복합 전화 단말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 사업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국내 혹은 국제 통신 사업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규모가 큰 기업 고객에게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우 영국의 이동 통신 시장은 지난 2004년 5970만 명을 기록하여 인구 1인당 1대 벽을 돌파하였고 이후 2009년 7,940만 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며 휴대폰 사용자 수가 전체 인구의 121%에 달해 선진 7개국 중 이탈리아에 이어 시장 침투율 면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현재 유럽 휴대폰 단말기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으며 휴대폰 단말기시장 규모는 판매대수 기준 약 3000만 개 시장이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평균 180~190달러 단가 산정 55억~60억 달러 시장이다.

이동통신사별 가입자 수로는 Orange & T-mobile 이 2009 년 전체 시장에 37%로 가장 높았으며 O2, Vodafone 이 각각 28%와 23%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내 휴대폰시장 점유율은 2009 년 기준 Nokia 26%, Samsung 26%, Sony Ericson 25%, LG 8.9% 순이며, 기타 Motorola, NEC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인터넷 시장의 경우 현재 영국 성인 인구의 75%가 집에 컴퓨터 보유하고 있으며 2009 년 현재 영국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76%의 성인(약 3,740 만 명)이 최근 3 개월 내 기간에 인터넷 접속을 하였으며 총 92%의 성인 인구가 한 번 이상의 인터넷 접속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산 된다. 70%의 인구가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약 1,830 만 가구에 해당된다.

ISP review는 영국 내에 총 730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ISP가 존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141개의 비정량제 다이얼업 접속 ISP와, 가입비 없이 로컬 전화 요금을 부과하는 다이얼업 접속 ISP 229개, 로컬 전화 요금 및 가입비 부과 다이얼업 접속 ISP 63개, 무선 ISP 43개, ADSL ISP 209개, 그리고 3개의 케이블 모뎀 브로드 밴드 공급 업체와 45개의 위성 접속 ISP 등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은 2009년 초 경기침체를 타개하고 IT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2012년 올림픽을 앞뒀다 디지털 통신과 광대역망 구축에 50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밝힌 바 있다.

8) 제약 산업

2010년 기준 영국의 제약 산업 전반은 주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수는 7만 여 명, 여기에 직간접적인 모든 고용 인구를 합친 수는 25만 명에 이른다. 또 한 해에 투자되는 연구비만 해도 £3.3bn수준이며 R&D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만 해도 2만 7,000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연구 기술이 핵심적인 산업이다. 또한 1만 8,400여 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약 310개의 중소 생명공학 회사들이 있으며, 보다 넓은 의미의 생명 과학계까지 포괄하면 430여 개의 회사와 약 2만 3,000명을 추가할 수 있다.

영국의 제약 시장은 정부의 의료보험 비용 감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20억 3,710만 파운드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9) 의료 기기 산업

영국은 세계에서 5번째이자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의료 기기 시장이며, 매년 시장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 영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약 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의료 시장의 특징은 의료 기기부터 의료 소모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세분화 되어있으며, NHS(영국 국가 의료 시스템)이 전체 의료 기기 시장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 관리형 시장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많은 기금을 들여 구조를 개혁하고 병원 및 시스템의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Private Finance Initiative를 통한 민간 부분의 의료 시스템도 발전하는 추세이다. 영국의 의료 기기 시장은 2008년 기준 약 36억 7320만 파운드 수준이며 2013년에는 2008년 대비 1%정도 증가한 38억 610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10) 디자인 산업

2010 년 현재 영국에는 약 12,450 개의 디자인 회사가 있으며 이들의 매출액은 약 40 억 파운드로 나타났으며 60,900 명의 디자이너와 348,300 명의 종사자가 활동중에 있다. 이중 61%가 남성, 60%가 40 세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백인 남성이 주도적인 가운데 6%만이 소수 인종인 것으로 확인된다. 총 116 억 파운드 규모의 매출액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중소 규모의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약 60%의 디자인 업체들은 종업원 수가 5 명 이하이며 80%의 업체들이 10 만 파운드 이하 규모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 멀티미디어 관련 디자인 업체가 29,177 개로 14,841 개인 제품/산업 디자인 업체보다 거의 두 배가 많다.

11) 영화 산업

영화 산업은 영국 GDP에 31억 파운드의 매출(텔레비전, 비디오/DVD 판매 제외)을 공헌하고 있으며 8억 5,000만 파운드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도 관광 산업의 진작을 통해 8억 파운드의 경제 공헌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비디오/DVD 등의 판매를 통해 3억 파운드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영화 산업 내 활동 분야별 매출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기준 배급/상영 부문이 23억 6,300만 파운드로 전체의 66.6%로 가장 높은 점유를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제작 부문이 8억 8,000만 파운드(25.1%), 포스트 프로덕션 부문이 1억 5,300만 파운드(4.3%), 프리 프로덕션 부문이 1억 4,000만 파운드(3.9%) 시장을 형성한다.

특히 영국의 영화 포스트 프로덕션 산업은 미국,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3강 중 하나로 빠른 성장을 통해 2004년에는 그 매출을 약 3억 7,000만 파운드까지 끌어 올렸으며 이는 전체 영국 산업 중 포스트 프로덕션 부문의 14%, 영국 영화 산업 전체 매출의 16%에 해당된다. 영국의 영화 판매 산업은 미국, 일본에 이어 큰 시장이며, 2008년 기준 35개의 기업들이 존재하며 7개의 외국 기업과 28개의 영국 소유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3~2007년 영국의 주 영화수출국은 미국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유럽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12) 해양 기기/ 조선 산업

영국의 해양 기기 산업은 상업용 선박, 군함, 레저용 보트의 프로펠러부터 네비게이션까지 다양한 품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약 1만 7,000명이 종사한다. 2008년 해양기기의 총 부가가치는 약 24억 9,000만 파운드 수준으로 연 매출액은 약 17억 파운드로 이 중 62%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조선 산업의 경우 선박 수리 산업을 포함 약 2만 5,00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19억 5,000만 파운드 수준이다. 동유럽이나 한국, 중국 등으로부터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상업용 부문에 있어서의 대형 조선소가 아직 운영 중이다. Portsmouth, Plymouth, the Clyde, Barrow, the Tyne and Rosyth 등에서 향후 해군 함정 조선 거대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어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영 보트 제조 산업 또한 내 약 1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약 7억 7,000만 파운드의 연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수퍼요트’ 부문의 시장 내 중요도가 급상승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영국내 업계선두 업체로는 Sunseeker, Princess Yachts, Fairline, Sealine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영국 시장 점유율은 80%에 이른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단독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EU집행위가 EU의 27개 회원국으로부터 특정 국가나 지역과의 지역무역협정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제 3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체결된 자유무역협정 내용은 EU 27개국 모두에 적용된다.

가. EU의 FTA 정책

EU는 전통적으로 FTA 협상에서 ‘지역 대 지역’ 협상을 선호해왔으며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국과의 양자간 협정보다는 지역통합체와의 ‘지역 대 지역 협정’ 체결에 더 중점을 두어 왔다. 또한 상호주의에 의거한 FTA 보다는 일방적인 호혜적 특혜협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99년을 기점으로 하여 EU의 FTA 정책 방향이 크게 변경되어 ‘지역 대 지역 협정’ 이외에 개별국과의 FTA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FTA 체결 동기도 정치적 동기와 함께 상업적 동기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는 이전까지는 EU가 인근 국가의 정치, 경제적 안정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EU의 안보를 모색하는 ‘정치적, 외교적 동기’에 의거하여 인근 국가의 FTA를 추진해왔으나 1999년부터는 이와 함께 신흥성장시장을 대상으로 원래 의미, 즉 상업적 의미의 FTA도 병행 추진함을 의미한다.

나. EU의 FTA의 주요 특징

EU는 안보, 외교, 미국 견제 등의 다양한 동기들이 복합되어 다양한 형태의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형태도 FTA, 경제협력협정, 안정화협정, 무역개발협정 등 다양한 명칭으로 추진하고 있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자국 FTA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단일한 롤 모델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체결한 FTA 별로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다만 WTO(세계무역기구)로 부터 지역무역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가능한한 FTA에서 양측 상품 무역의 90% 이상의 관세 철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과의 협상에서는 이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다.

EU는 지난 2006년 10월 '신통상정책'을 선언하면서 FTA 우선추진대상국으로 한국, 인도, ASEAN, 러시아, MERCOSUR, GCC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07년 5월 5일 한-EU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한 후 지난 2009년 7월 13일 약 2년 2개월 만에 한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2010년 정식서명되었으며 2011년 4월 기준, 한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2011년 7월 이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도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2010년 말쯤 확정이 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1년 3월 EU 측의 발표에 따르면 협상 난항으로 적어도 2011년 말에서 늦으면 2012년 초에야 서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EU는 ACP 국가, Mercosur, GCC 국가, 그리고 일부 발칸 국가와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협상 진행 속도가 부진한 편이다.

2011년 들어 EU는 중미와 남미와의 경제협력협정 추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 14-18일 집행위는 MERCOSUR와 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갖고 3월 18일에는 중미 국가들(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의 협력협정에 가 서명하여 협정문 수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콜롬비아와 페루간 체결(2010년 5월)한 협력협정도 3월 23-24일간 브뤼셀에서 열렸던 협상에서 가 서명되어 협정문의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영국의 수출은 2009년 경기 침체와 파운드화 약세로 전년대비 약 26.7%정도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이후 2010년, 약 18% 증가하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는 서비스 및 투자수익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취약, 주된 수출 지역(전체 수출의 54%)인 EURO지역 경기 부진 등으로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의 주요 국가별 수출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8	2009	2010	비중			증감률 10-9
					2008	2009	2010	
	세계	483848	354869.9	418712.6	100	100	100	17.99
1	미국	0	52424.58	57843.76	0	14.77	13.82	10.34
2	독일	53780.4	38725.48	44185.43	11.12	10.91	10.55	14.1
3	네덜란드	36576.41	27507.14	31797.35	7.56	7.75	7.59	15.6
4	프랑스	35384.33	28082.85	31265.7	7.31	7.91	7.47	11.33
5	아일랜드	35010.45	24106.54	25280.69	7.24	6.79	6.04	4.87
6	벨기에	24671.43	16356.92	20013.34	5.1	4.61	4.78	22.35
7	스위스	15057.88	7912.509	17248.88	3.11	2.23	4.12	118
8	스페인	19021.71	13998.08	14912.28	3.93	3.95	3.56	6.53
9	이탈리아	17621.97	12852.42	13576.53	3.64	3.62	3.24	5.63
10	중국	9188.81	8018.633	11306.22	1.9	2.26	2.7	41
11	스웨덴	9643.556	6390.764	8326.29	1.99	1.8	1.99	30.29
26	한국	4553.925	3171.815	3410.915	0.94	0.89	0.82	7.54

자료: World Trade Atlas

영국의 주요 국가별 수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08	2009	2010	비중			증감률 09-10
					2008	2009	2010	
	세계	669881.7	514216.9	585889.4	100	100	100	13.94
1	독일	84886.41	62630.7	70789.01	12.67	12.18	12.08	13.03
2	미국	0	49839.6	53975.47	0	9.69	9.21	8.3
3	중국	50500.26	43426.44	52447.35	7.54	8.45	8.95	20.77
4	네덜란드	47897.22	33581.29	40384.87	7.15	6.53	6.89	20.26
5	프랑스	45119.36	33352.7	36141.53	6.74	6.49	6.17	8.36
6	노르웨이	38375.73	23063.85	29794.81	5.73	4.49	5.09	29.18
7	벨기에	30455.55	23301.9	26299.1	4.55	4.53	4.49	12.86
8	이탈리아	26895	19373.98	21940.65	4.02	3.77	3.75	13.25
9	아일랜드	22626.96	19087.14	19818.93	3.38	3.71	3.38	3.83
10	캐나다	14852.05	12546.18	18870.63	2.22	2.44	3.22	50.41
11	스페인	19579.76	14267.04	15428.87	2.92	2.78	2.63	8.14
29	한국	6031.469	3867.527	3766.378	0.9	0.75	0.64	-2.62

자료: World Trade Atlas

영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HS	품목명	2008	2009	2010	비중			증감률 09-10
					2008	2009	2010	
9999	기타소액품	32743.3	18014.3	-28397	6.77	5.08	6.78	57.64
3004	의약품	26861.31	25806.84	26795.74	5.55	7.27	6.4	3.83
8703	승용차	29086.88	18652.35	26540.95	6.01	5.26	6.34	42.29
2709	원유	31528.29	19549.74	24515.15	6.52	5.51	5.86	25.4
2710	정제석유	24222.05	15685.01	20195.36	5.01	4.42	4.82	28.76
8411	제트 터빈	14523.13	14825.25	15594.37	3	4.18	3.72	5.19
9908	기타	15205.31	13013.93	14669.49	3.14	3.67	3.5	12.72
8803	항공기	12378	10650.47	11464.55	2.56	3	2.74	7.64
7108	금	14778.64	2263.201	10535.83	3.05	0.64	2.52	365.53
9907	기타	13743.88	1691.349	9746.505	2.84	0.48	2.33	476.26
7102	다이아몬드	8867.603	5498.373	7634.035	1.83	1.55	1.82	38.84
2208	주류	6831.383	5960.603	6567.098	1.41	1.68	1.57	10.18
8517	전기통신	5311.654	5356.239	5738.177	1.1	1.51	1.37	7.13
8708	자동차부품	7269.723	4903.427	5565.712	1.5	1.38	1.33	13.51
2711	석유가스	6148.476	3204.64	5194.027	1.27	0.9	1.24	62.08

자료: World Trade Atlas

영국 주요 품목별 수입 통계

(단위: 백만 달러, %)

HS	품목명	2008	2009	2010	비중			증감률 09-10
					2008	2009	2010	
9999	기타소액품	45752.6	54876.2	52867.8	6.83	10.67	9.02	-3.66
7108	금	25664.04	36103.3	30832.81	3.83	7.02	5.26	-14.6
8703	승용차	37882.07	26057.78	30527.28	5.66	5.07	5.21	17.15
2709	원유	39105.36	22825.7	30154.69	5.84	4.44	5.15	32.11
9907	기타	24894.19	34474.02	28660.52	3.72	6.7	4.89	-16.86
9908	기타	18467.02	17261.09	20952.7	2.76	3.36	3.58	21.39
2710	정제석유	23706.79	14157.31	18261.3	3.54	2.75	3.12	28.99
3004	의약품	15776.79	15098.28	16497.28	2.36	2.94	2.82	9.27
8802	항공기	11954.06	11184.51	15015.01	1.79	2.18	2.56	34.25
8517	전기통신	14103.53	11846.71	14010.3	2.11	2.3	2.39	18.26
8471	정보처리기기	14824.23	11718.57	13266.84	2.21	2.28	2.26	13.21
8708	자동차부품	16024.74	9581.477	12956.5	2.39	1.86	2.21	35.22
8411	제트 터빈	11194.95	10924.25	11789.09	1.67	2.12	2.01	7.92
2711	석유가스	12838.2	7539.103	11067.9	1.92	1.47	1.89	46.81
7102	다이아몬드	8714.552	5500.485	7479.812	1.3	1.07	1.28	35.98

자료: World Trade Atlas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한국과의 무역은 급속히 증가하여 '07년에는 100 억불을 기록한 바 있다.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국간 무역량이 '08 년 96 억불→ '09 년 67 억불을 기록하며 감소했으나 '10 년 89 억불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무역 현황

(단위 : 억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06	'07	'08	'09	'10
수 출	금액	56.4	68.7	59.4	38.0	56.0
	증가율	△5.5	21.9	△13.6	△36.0	46.3
수 입	금액	30.0	35.8	36.4	29.0	33.0
	증가율	△5.5	20.3	1.6	△20.4	12.8
무역수지		26.6	32.9	23.0	9.0	22.9
무역규모		86.4	86.4	95.8	67.0	89.0

(출처: 한국무역협회)

- 영국의 대한수입 품목은 IT 및 수송장비 위주, 수입 품목은 식품류 중심이다.
- '10 년 對英 수출은 선박, 자동차, 무선전화기, 반도체 경유 등 5 대 품목이 對英 수출의 61.1% 차지했다.
- '10 년 對英 수입은 농약 및 의약품, 의약품, 주류, 펌프, 강반제품, 합성수지 등 5 대 품목이 31.2% 차지했다.

품목별 무역 현황

(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순위	수출('10 년)			수입('10 년)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선박	1,565	287	의약품	307	51.2
2	승용차	516	40.4	주류	225	18.9
3	무선전화기	504	△47.7	펌프	221	91.7
4	직접회로반도체	500	54.5	강반제품	141	△30.9
5	경유	310	전년 0	합성수지	126	△26.1
	총계	5,555	46.3	총계	3,266	12.8

(출처: 한국무역협회, MTI 4 자리 기준)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 지고 있다.

□ 반덤핑 관세

-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를 말한다.

- EU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 세이프가드 조치

-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 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 하고 있다.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수입규제조치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단독으로 제 3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를 통해 취하고 있다. 즉, 수입 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위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의 27개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해 지고 있다.

□ 반덤핑 관세

-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 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이다.
-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덤핑 사실의 존재
 -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EU 산업에 피해 존재
 -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를 말한다.
 - EU의 전반적 이익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접수일로부터 45일 내에 사전 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 관세 부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
 -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EU 연합의 전반적 이익: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 세이프가드 조치

-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약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 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 조치가 있는데 감시 (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기타 교역관련 규정

수산물이나 일부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위생 및 인체 건강 보호를 이유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조건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품목 역시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군사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기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역시 제한하고 있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EU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EU 공동 관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 제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 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간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 농업 정책에 의한 농업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한편, EU는 일년에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나. 통관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 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영국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U의 원산지 기준은 매우 복잡하여 품목별로 공정기준, 부가가치 기준이 병행하여 적용 되고 있다.

3) 관세 부과 가액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 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며)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 (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도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산 제품에 대해 낮은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176개 개도국에 대해 이러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EU로부터 GSP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GSP 제도는 세가지(표준 GSP, 최빈국에 대한 무세 혜택, GSP+)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준 GSP 제도는 176개 수혜대상국을 대상으로 약 6,400개 품목에 대해 제공되는 일반 GSP 제도이며, GSP+ 제도는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노동권 보호를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에 대해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제공하는 것이며, 최빈국에 대한 GSP 제도는 역시 표준 GSP 제도에 추가하여 50개 최빈국에 대해 무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EU의 GSP 제도는 2009년부터 2011년간 3년 동안 적용되고 있다.

6.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킹 제도

공산품에 대해 E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기술규격 인증으로 27개 EU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 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CE 마킹 대상 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안전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 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 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 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고 있는 라벨로 2010년 5월말 기준 26개 품목군에 대해 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 에코라벨 대상 품목 : 세제(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제, 세탁세제, 비누/ 샴푸/헤어 컨디셔너), 의류(섬유 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와 바니쉬), 전자제품(PC, 노트북, TV), 바닥덮개(wooden coverings, textile coverings, hard floor covering), 가구 (목재가구), 정원용품(Growing media 및 Soil improvers), 가정용 기기(전구, heat pump), Lubricants, 기타 가정용품(매트리스), 종이제품(복사용지와 그래픽용지, 티슈페이퍼), 서비스(Campsite services, Tourist accommodation service)

다. 에너지 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 라벨 대상 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 세척기, 전구, 전기 오븐, 에어컨, 온수보일러, 자동차 등으로 대상 품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편 GEEA의 에너지라벨제도 역시 적용되고 있다. GEEA(Group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란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회원국들이 운영하는 에너지 절약 제품 보조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포럼이며 GEEA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GEEA의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배터리 충전기 등 19개 품목으로 GEEA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Switzerland :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SFOE)
- Denmark : The Danish Energy Authority (DEA)
- Netherlands : The Netherlands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SenterNOVEM)
- Germany: The German Energy Agency (dena) / Gemeinschaft Energielabel Deutschland (GED)

○ 준회원

- Sweden: The Swedish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STEM)
- Austria: The Austrian Energy Agency (E.V.A.)
- France: The French Agency for Energy and the Environment (Ademe)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 개요 - 에너지 소비 효율에 따라 A~G 까지 Energy 효율 등급 라벨 표시 및 최저 효율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량 등 표시 ○ 대상 품목 - 라벨 표시: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 세척기 등 (10품목) - 최저 효율: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품목) ○ 시행 기관 - EU 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 법령 - 에너지 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GEEA 	○ 개요 - 스위스, 독일 등 유럽 9개국이 운영하는 대기 전력 감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제품 보급 프로그램이며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스캐너, 복합기,텔레비전,비디오,오디오,배터리 충전기 등 (19품목)

▶Energy 2000	
	○ 개요 - 대기 전력 절감형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 와 동일 기준을 적용 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 품목 - 컴퓨터,모니터,프린터,팩시밀리,복사기,스캐너, 복합기, 텔레비전,비디오,오디오,DVD 플레이어 등 (15품목) ○ 시행 기관 - 스위스 에너지부(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7. 지적재산권

가. 일반 사항

- 영국 내 특허신청 및 지적 재산권 관련 업무는 규제개혁부(BERR)의 후신인 비즈니스 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산하 기관인 ‘영국 지적 재산권 관리청(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http://www.ipo.gov.uk>)’이 관장하고 있다.
- 영국의 지적재산권 관리청에서는 지적재산권을 Copyright, Designs, Patents, Trade Mark 등 4 종류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 1977 년의 특허법은 최장 20 년 동안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특허 신청에 대해서 혁신성이 부족하거나 이미 사용 중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영국은 유럽 특허 조약의 가맹국이고 특허 협조 협약의 비준국으로 가맹되어 있다.
- 상표는 7 년간 보호되는데 이후로 14 년 마다 갱신할 수 있다. 상표 등록은 제조업체 및 서비스업 모두에 해당되며, 특정한 명사의 사용이나 관련 상품에 대한 서술식의 표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저작권은 문학이나 음악, 드라마 등의 원작의 경우에는 신고나 등록이 없이도 권리가 발생하며 이의 적용 범위는 기타 예술 작품이나 녹음, 영화 필름,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등에도 적용된다.
- 이 외에 1949 년 의장 등록법과 1988 년 지적재산권 및 디자인, 특허법을 통해서 산업 디자인이 보호를 받는다.

나. (기술)특허 신청 절차

- 특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신청서 1/77 양식을 기재하여 필요시 발명품 설명을 돕기에 용이한 도안(Drawing)이나 상세 기술(description)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특허 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는 없으나 특허인증 및 발급 절차에 대한 총 비용은 특허 기술에 대한 배타적 권리 획득까지 200 파운드가 부과된다.
- 신청자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사(에이전트)에 의뢰했을 경우에는 대행사별 별도 수수료가 추가된다.
- 일단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12 달 간의 무료 임시 특허 보고가 적용되며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시일이 만료되면 특허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 신청 후 다음 단계의 특허 조치를 위해서는 1 년 이내에 '9A/77' 양식의 원서를 필요시 되는 클레임이나 개요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동 원서의 접수비는 130 파운드이다.
- 이 후 특허청의 기술 평가관(Technical Examiners)들이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의 신규 개발 진위를 판단하게 된다.
- 기술 평가단은 보통 접수 후 3-7 개월 이내 연구 리포트를 통보하게 된다.
- 신청된 특허 사양(Patent Specification)은 첫 신청서 작성 이후 18 개월 이내에 공식 발행되며 이는 특허 정보가 일반 회원들에게 공개 열람됨을 뜻한다.
- 공개 열람은 6 개월 간 계속되며 이 기간 내 신청자는 10/77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 접수를 통해 특허청은 동 특허 조사 진행을 계속하게 된다. 신청비는 70 파운드이다.
- 특허 신청에 대한 인증 및 발급 종료는 첫 신청일로부터 4 년 6 개월 이내 또는 첫 기술 평가 후 12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일단 특허 인증을 획득하면 매년 갱신을 통해 20 년간 유효하다. 특허권의 갱신 수수료는 연차에 따라 다르고, 매년 납부해야 한다.
- 특허 기술 열람은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http://gb.espacenet.com/>)하며 이 외에 보다 구체적인 유료 조사 자문 서비스(Search and Advisor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조사 자문 서비스의 이용료는 조사 방법이나 경우에 따라 상이하다.
- 영국 특허 외 기타 EU 나 세계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he European Patent Office(www.european-patent-office.org)
 -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sation(www.wipo.int)

다. 디자인 등록 절차

- 영국 내 특허 등록된 디자인은 최장 25 년간 보호되며 5 년마다 갱신 수수료를 납부 해야 한다. 신청료는 60 파운드이고 (섬유제품의 디자인만 35 파운드) 반환되지 않는다.
- 우선 작품의 디자인 등록이 필요한지와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참조; <http://www.ipo.gov.uk/design/d-applying/d-should.htm>)
- 기본적으로 ‘고유 디자인 관련 권리’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생성되며 15 년간은 유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 against copying)일 뿐이어서 ‘독점적인 상업적 이용(Monopoly protection)’의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특허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적인 디자인 권리는 표면장식 등이 배제된 ‘3 차원적인 제품의 기본 형태’만을 보호하게 되어 있어 보다 궁극적인 작품 디테일 보호를 위해서도 등록이 중시된다.
- 등록 신청시 우선 'Application Form DF2A'(<http://www.ipo.gov.uk/design/d-applying/d-apply.htm>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을 작성 한 후 신청 수수료 60 파운드(수수료 납부 용지; FS2), 디자인 도해 1 부를 동봉하여 지적재산권 관리청으로 송부한다.
- 일단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면 접수확인과 함께 일주일 이내에 영수증발급이 이루어 진다.
- 그 후 관리청의 심사를 통해 결과서를 받는다. (신청 접수 후 보통 2 달 내)
- 디자인 특허 취득에 실패했을 시는 2 달 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일단 디자인 특허 취득 허가를 득한 경우라면 UK 디자인 등록소에 디자인이 자동 등록되며 등록 정보 및 디자인 도해가 'Patents and Designs Journal' 및 'Designs in View' 책자를 통해 각각 게재된다.

라. 특허 업무 관련 연락처

- The UK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Concept House
 - Cardiff Road
 - Newport
 - South Wales NP10 8QQ, UK
- 저작권 담당 사무소(런던):
 - The Patent Office
 - Harmsworth House
 - 13-15 Bouverie Street
 - London EC4Y 8DP, UK
- 인콰이어리 의뢰
 - The Central Enquiry Unit
 - Tel: +44 (0)1633 813930 / Fax: +44 (0)1633 813600
 - Email: enquiries@ipo.gov.uk

8. 통관/운송

가. 일반 통관

수입 물품의 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은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 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법 규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여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절차다. 영국 수입 절차를 완료하여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 외국 물품을 의미)은 영국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1) 통관 절차

출항→입항→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 장치)→물품 보세 구역 반입→장치 확인→수입 신고→심사→물품검사→수입 신고 관리→관세 등 제세 납부

□ 수입 신고 방법

- 화주가 직접 또는 에이전트를 통해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 에이전트의 경우 대부분 세관과 전산 연결되어 전산으로 신고 가능, 서류는 전산 입력 후 별도로 제출한다.
- 수입 신고 서류를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

- 수입 신고서(Single Administration Document)
- 선하 증권(B/L), 화물 송장(Invoice), 포장 명세서(P/L)
- 가격 신고서, 수입 허가서
-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EU의 관세 분류 번호는 EU 집행위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 http://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ebticau...htm

□ 긴급 통관 요청

- 장기 보관할 경우 부패, 손상이 우려되는 물품은 긴급 통관 요청이 가능하다
- 긴급통관요청서(Request for Urgent Clearance)에 사유를 기재해 세관에 제출한다.
- 세관에서 요청 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한 경우 긴급 통관 처리한다.

2) 물품 검사

-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 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17.5%, 2009 년은 15%)는 통관 절차 때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 절차를 운송 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게 위임하고 있다.

3)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 상품 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 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 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 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 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 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EU 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원산지 규정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혜택,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된다.

□ 관세 부과 가액

- 상품의 실질 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등이 그러한 것들 이다.

4) 통관 방법의 결정(Cargo Selective)

□ 수입 신고 즉시 세관에서 통관 방법을 결정한다.

- 전산으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전산 입력과 동시에 컴퓨터 화면에 통관 방법이 자동 표시 되어 수입 신고인이 통관 방법 확인이 가능하다
- 통관 방법의 결정은 세관의 화물 선별 시스템(Cargo Selective)에 의해 자동결정된다.

□ 통관 방법의 종류

- 서류 심사와 실물 검사가 병행된다.

- 서류 심사 및 실물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4 시간 이내에 통관된다.
- 품목에 따라 전산 신고를 통해 서류심사와 실물 검사를 하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하다.

5) 과세 가격의 신고

□ 신고 대상

- 일부 예외 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 물품이 가격 신고 대상이다.
- 예외 물품
 - 총 수입 가격 2,000 파운드 이하 수입 물품
 - 이사 물품, 개인 용품 등 비상용 물품
 - 과일, 채소 등 간이 가격 평가 절차 적용 물품
 - 일반 과세 가격 신고자가 수입하는 물품

□ 신고 시기

- 수입 신고 시 가격 신고서(Valuation Declaration)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수입 신고 시 가격 신고서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격 신고 제출 보증서를 제출한 후 수입 신고 후 14 일 이내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나. 간이 통관 및 우편 배송물에 대한 관세

□ 수하물 통관

- 방문 시 판매 상품을 직접 소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Merchandise in Baggage'라고 표현되며 이는 각 통관소의 붉은색 "Goods to Declare" 채널이나 Redpoint 전화기를 사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 특송 업체 및 우편 배송

- 국제 우편 협약에 따라 배송자는 반드시 관세 신고서(CN22/CN23)를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customs), 소비세(excise),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된다.
- 면제 조건
 - 관세의 경우 부과금이 7 파운드 이하이면 면제된다.
 - 수입 VAT 의 경우 알코올, 담배, 향수, 화장수 등을 제외한 제품 중 구매 금액이 18 파운드 를 넘지 않으면 면제된다.
 - 개인 선물용인 경우 알코올, 담배, 향수, 화장수 등을 제외하고 38 파운드 이하인 경우 면제된다.
 - 알코올, 담배의 경우 원칙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소비세가 부과된다.
 - 향수, 화장수의 경우 각 중량 50mg, 025l 를 초과할 경우 선물의 경우도 VAT 는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 수입 보세 가공 제도(Inward Processing Relief)

- EU 지역 내 가공 무역의 지원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생산한 제품을 EU 지역 외로 수출하는 경우 원자재 수입 시 관세 (물품세, VAT 외)를 면제하거나 완제품 수출 후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이다.
- EU 내에서 원자재의 충분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EU 이외 지역으로부터 원자재의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 수입 보세 가공 제도의 종류

- 원자재 수입 시 관세의 징수 유예
 - EU 지역 이외의 국가로부터 보세 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입 시 수출 이행 기간까지 관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징수 유예 받은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의 일부를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내수 판매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 원자재의 관세와 유예 기간 동안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보세 가공 물품 수출 시 관세 환급
 - 원자재의 수입 시에는 관세를 납부하고, 당해 원자재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 이행 기간 내에 수출한 경우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생산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내수 판매, 폐기를 한 경우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웨이스트, 스크랩 등은 관세 환급이 불가하다.

라. 운송

1) 국제 공항

- 런던 및 인근 지역에만 Heathrow, Gatwick, Luton, Stansted, City 등 5 개공항이 있으며 맨체스터, 글래스고우, 에버딘, 에딘버러 등 주요지방도시에도 국제공항이 있다.
- Heathrow 공항의 경우 5 개 터미널이 있는 바공항 출영송 시에는 반드시 터미널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히드로 공항은 사정에 따라 마지막 순간에 터미널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히드로 터미널 1, 2, 3 은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며 터미널 1, 2, 3 에서 터미널 4, 5 까지는 자동차로 약 20 분이 소요된다. 히드로 공항에서는 지하철, 버스 및 택시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 있으며, 1998 년부터 공항-시내 중심지인 패딩턴역까지 무정차 특급기차(히드로 익스프레스, 편도 약 16 파운드)가 운행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15 분이다.
- 게트윅 공항에서도 빅토리아역 간에 특급 전철(게트윅 익스프레스) 및 AIR BUS 를 이용하여 시내로 진입할 수 있으며 스탠스테드 공항과 리버풀 스트리트 역을 잇는 스탠스테드 익스프레스도 운용 중이다.

2) 국제 항구

- 영국 내에는 London(Thamesport), Tees and Hartlepool, Grimsby and Immingham, Sullom Voe, Milford Haven, Southampton, Liverpool, Forth, Felixstowe, Medway, Dover 항이 위치하고 있다.

3) 운송 비용(컨테이너 비용)

- 제시 가격은 최근 시점 영국-한국 간 참고 가격으로 화주 및 물동량에 따라서 RATE 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 선사에 따라 영국 내 출입 항구가 다르며 보통 한국과의 운송은 Felixstowe, Southampton, Thames port 항을 이용하고 있다.
- EXPORT 의 경우 영국 내 위치한 선사나 운송 업체에서 가격 결정을 하며 IMPORT 의 경우에는 보통 한국에 위치한 본사나 업체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 2010 년 10 월 기준, 운송 가격은 부산항에서 Felixtowe 항까지 Port-Port 20ft 가 대략 1,800 불, 40ft 가 3,500 불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주요 운송 업체

□ 한진해운

- 주소: Calder House, 1 Dover Street, London W1S 4LA
- 전화: 020 7629 9997 / 팩스: 020 7495 6588
- 홈페이지: www.hanjin.com

□ 현대상선

- 주소: 4th Floor, City Reach, 5 Greenwich View Place, Millharbour, London E14 9NN
- 전화: 020 7477 7200 / 팩스: 020 7477 6950
- 홈페이지: www.hmm21.com

□ 범한 판토스

- 주소: 720 Weston Road, Trading Estate, Slough, Berkshire SL1 4HL
- 전화: 01753 610 400 / 팩스: 01753 610 418
- 홈페이지: www.pantosuk.com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지로서의 장점

1)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노동력

- 영국은 전일제와 시간제 고용을 합해 총 2,800만의 숙련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근로자들을 보유, 유럽 연합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노동시장을 갖고 있다. 영국의 교육은 직업 교육과 훈련을 대단히 강조하는 수준 높은 것으로 이러한 교육은 영국 정부에 의해 매우 강화되어 왔다.

2) 낮은 공공요금(Utillities)

- 영국은 규제 철폐와 민영화로 유럽 연합 내에서 가장 저렴한 공익시설 사용료를 지불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영국은 북해유전과 천연 가스 보존층으로 인해 유럽 연합 회원국 중 유일한 에너지 자급국이다.
- 전기와 가스, 물을 포함한 영국의 공익 시설은 민영화 되어 있다. 실제로 수많은 이러한 시설들은 해외 투자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다. 지역 에너지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산업용, 상업용 이용자들에게는 상당한 가격할인 협상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영국의 공익 시설들은 새로운 시설 설치 경험과 산업용 대용량 사용자들과의 협정 경험도 있다.
- 영국은 통신산업의 자유화로 유럽을 선도해 오고 있으며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통신망 중 하나를 갖추고 있으며 그 비용도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

3) 기업 설립 용이

- 양질의 현대적 산업 부지는 녹지 지역과 개발지 내의 미사용 부지와 더불어 영국 전역에 걸쳐있다. 영국은 또한 복합적인 대규모 산업 설비를 신속하면서도 훌륭한 수준으로 건설한 탁월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건설 및 토목공사 산업을 갖고 있다.
- 지정된 '지원(assisted)'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해내는 기업체들은 보조금과 다른 재정적 지원 또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북 아일랜드에는 투자 지원 사항들이 풍부하다.

4) 세계적 수준의 연구, 디자인 개발

- 영국의 많은 대학과 과학 연구소들은 그들의 학문적 성과들을 상업적 영리 사업에 응용하기 위해 기획된 공동 벤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영국 정부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협동적인 연구 프로그램들은 영국과 유럽 연합의 재정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은 영국 대학들과 연구 협력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사의 연구소는 캠브리지 대학의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명성으로 인해 그 회사 최초의 미국 국외 연구실을 영국으로 선택했다. 영국은 170개 이상의 계약 연구 단체들과 더불어 다른 어느 유럽 국가들 보다 많은 임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5) 유럽의 선도적 통신 시장

- 영국은 전 세계 고객들에게는 매력적인 통신 중심지로 유럽 전체 국제통신사업 대리점의 약 40퍼센트가 그들의 본부를 두고 있다.
- 영국의 통신 사업은 다른 어느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더 빨리 규제가 해제되었고 자유화 정책에 있어서도 훨씬 더 앞서 있다. 지난 십년 동안 British Telecom(BT)사는 유럽에서 가장 발달된 전화망을 설립했다.

- CONCERT 사업으로 BT사는 텔레마케팅, 영업, 연구, 직접 응답, 고객 지원망과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유럽을 선도하고 있다. Cable&Wireless, AT&T와 같은 다른 주요 통신사들 역시 영국에서 국내 및 국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또한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이동 통신시장 중 하나이다.
- 인가를 받은 200개 이상의 공급자들 간의 경쟁은 현실적 견지에서 영국의 통신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예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또한 유럽에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우편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 영국은 양질의 통신과 저렴한 운영비로 점차 국제 본부나 유럽 본부 그리고 공동 서비스 센터를 개설하고자 하는 다국적 회사들의 선택지가 되고 있다.

6) 언어

- 영어는 전세계의 비즈니스 언어다. 유럽연합에서는 많은 이들이 영어를 제2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를 상업상 가장 유용한 언어로 생각하고 있다.

7)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 영국은 기업에게 낮은 법인세, 개인세, 경제적 안정 그리고 성장과 이익을 장려하는 규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주요 산업국들 중 가장 낮은 주요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부가 지방세를 일체 부과하지 않고 있다.
- 비록 기업들에 대해 개별적인 근거에서 과세가 되고 있지만 영국에서 기업들은 그룹 내 한 회사가 낸 세금손실을 그룹 내 다른회사가 낸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 과학 연구공제(SRA)는 건물, 공장, 기계설비에 드는 자본경비를 포함 모든 연구개발비용을 처음 1년 간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계설비와 공장에 대한 투자는 수지감소 원칙에 의거하여 1년에 25%의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 이익금 해외 송금 등 외환 관리에 아무런 규제 사항을 두지 않고 있다. 해외 배당금 송금에 대한 원천 과세도 없고, 이중과세 협정 역시 원천과세 없이 이익금을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이중과세 협정망을 갖추고 있다.
- 낮은 법인세율은 낮은 개인세율과 고용 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낮은 사회보장 기부금으로 보완되고 있다.

8) 런던, 유럽의 금융중심지

- 런던은 뉴욕, 도쿄와 함께 밤낮 없이 움직이는 전 세계의 자금 및 투자 시장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다. 런던에는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증권 거래소, 외환 사업체, 국제 채권 업체들이 많으며 유로화 거래, 유로 은행 거래, 보험업, 선물매매, 선택매매, 펀드 운용의 주요한 중심지이다. 은행 수만 봐도 파리 280 개, 프랑크푸르트의 250 개에 비해, 런던에는 70개국의 550개 이상의 은행들이 자리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금융서비스 단체들이 브리스톨, 에든버러, 리즈, 맨체스터를 포함한 영국의 도시들에 산재해 있다.

9) 신속한 시장 접근

- 영국에 있는 외국기업 10 개사 중 9 개사가 이곳에서 전세계로 수출을 하고있다. 영국의 통합 수송망은 유럽 경제구역 전역으로 원자재와 제품들을 신속하고 저렴 하게 배달할 수 있게 해주며 광범위한 무료통행 고속도로와 도로망은 모든 주요한 영국의 대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을 공항과 항구로 연결하고 있다.
- 영국전역 어디에나 100마일 이내에 컨테이너 항이 있다. 대부분의 항구들은 민영화되어 있고 트럭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많은 양의 컨테이너 운송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영국의 항구들은 유럽 본토로 향하는 배들의 출항이 매일 300회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매년 5억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약 2만 여 개에 달하는 운송 회사 수는 화물요금이 대단히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영국에 기반을 둔 일련의 국내 물류회사들과 범유럽 중개인들은 포괄적인 서비스와 계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Channel Tunnel은 육로와 철로로 영국을 다른 유럽지역과 연결하고 있다. 파리와 브뤼셀 등도 런던에서 기차로 3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있다.
-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유럽 내 다른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100 곳 이상의 유럽 내 행선지에 직항로를 개설하고 있으며 20 곳 이상의 지방 공항들도 영국 내에 있는 모든 주요 중심지로 취항하고 있다.
- UPS, DHL, Federal Express와 Amtrak과 같은 많은 세계적인 물류 회사들 또한 영국 내에서 주목할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

10) 유럽에서의 기회

- 영국 자체만으로도 약 6천만명 이상의 소비자를 보유한 거대한 시장이다. 뿐만 아니라 27개국의 유럽연합국가(European Union)에 총 4억 9,980만명(2009년 1월 통계)의 잠재적인 고객을 보유한 유럽 경제구역의 일부이다.

11) 투자자를 위한 영국정부의 지원

- 영국 정부는 R&D 분야의 업체에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금 우대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해외 기업의 R&D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영국을 이 분야에 있어서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정 받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지원정책은 업체의 규모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업체의 규모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되는데, 중소기업은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해당된다.
 - 종업원수 500 명 미만
 - 연간 매출액 5,000 만 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상 4,300 만 유로 이하
 - 자사소유지분 25% 미만
- 단일기업이 아닌 그룹 형태의 경우, 모기업 및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모든 계열회사도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대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 대기업의 경우에는 총 R&D 분야에 대한 비용의 최대 125%까지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비용항목이다.
 -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R&D 업무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용
 - 2004년 4월 1일 이후의 각종 소프트웨어비용,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용 등
 - 대학, 의료시설 등 특정 단체에 지급된 R&D 관련 비용
 - R&D 업무와 관련되어 타 연구소에 지급된 비용
 - 대기업의 경우에는 R&D 업무 이후에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소유 유무와는 무관하게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 해외의 모기업과 영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회사간의 연구개발업무에 대한 계약에 의하여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영국 내 자회사만이 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공히 12개월 내에 소요된 총 R&D 비용이 최소 10,000 파운드 이상이어야 세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용 중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된다.
 - 한편, 토지매입을 제외한 해당 R&D 업무와 관련된 고정 자산에 투입된 모든 비용도 세금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정책
 -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총 R&D 분야에 대한 비용의 최대 150%까지 세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즉, R&D 분야의 세금공제(tax credit) 요건에 해당하는 자본손실(tax losses)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감면은 국세청(the Inland Revenue)으로부터 현금 환불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R&D 분야의 비용 100 파운드당 최대 24 파운드까지 환불된다. 환불은 원천과세/정산(PAYE/NI) 형식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처리된다.
- 다음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R&D 분야의 비용항목이다.
 -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력의 인건비
 - R&D 프로젝트에 투입된 외부 용역비용
 - R&D 업무에 소요되는 소모품비용
 - R&D의 세부 분야에 대하여 제3자와 체결된 하도급 비용
 - 한편, 외부 보조금 또는 장려금으로 운영되는 R&D 업무와 다른 업체로부터의 하도급으로 진행되는 R&D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해당 연구개발 업무 이후에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은 반드시 해당 업체의 소유인 경우에만 세금 감면요청이 가능하다.
(자료: 주한 영국 대사관)
- R&D 세제혜택 상세 정보 링크
 - <http://www.hmrc.gov.uk/ct/forms-rates/claims/randd.htm>

나. 투자지로서의 단점

1) 높은 물가 수준

높은 물가수준으로 인해 전반적인 기업운영비용이 크며 특히 높은 부동산가격으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나 주거원 파견 시 주거비용 지출 부담이 크다.

2) 고임금

세계 최고 수준의 고임금 시장인 만큼 높은 수준의 인건비 부담 또한 기업 투자의 기본 회피 원인이 된다.

3) 파운드화 사용

유로화와 독립된 파운드화의 사용으로 인해 재무관리에 있어서 환율변동이 큰 영향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EU권내의 타 국가와는 구분된 별도의 유의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다. 주요 체크 포인트

- 지역 내 이미 존재하는 산업 부문과 비즈니스의 종류
- 관련 클러스터와의 연계 용이성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 등의 지원/혜택 수혜 가능성
- 실질 설립 비용(부동산/설비 구축 포함)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영국, 2009년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 147억 파운드로 전년도 대비 70% 감소

2010년발표된 영국 통계청 국제수지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규모는 2008년도의 497억 파운드에서 70% 감소한 147억 파운드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는 전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경간 M&A거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또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 2009년 기준, 영국은 세계 5위의 투자유치국

2010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간한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에 따르면 2009년 세계 FDI 규모는 2008년 전년대비 37% 이상 감소한 1조 1,14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경기침체의 확산으로 FDI 감소 추세가 개도국에까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2010년 FDI 규모는 2009년에 비해 조금 회복된 1조2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내 2위의 투자 유치국이었던 프랑스가 2008년 1위로 상승하였고 영국은 전세계에서 미국, 중국, 프랑스, 홍콩에 이은 세계 5위의 투자 유치국으로 나타났다.

□ 대영 외국 기업 투자 동향

영국에는 2만 개가 넘는 외국 기업들이 20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의 회사가 전체의 1/4을 차지한다. 2007년 영국의 FDI 실적은 작년 2,24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한 원인으로는 외국 기업들의 영국 회사 인수 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대표적으로 전력업체인 Scottish Power, 화장품 의약품 체인인 Alliance Boots, 건축자재 생산 업체인 Hansen 등이다.

국가별 투자 유치 현황 (2009/10)

순위	국가	프로젝트(건수)	일자리 창출(명)
1	미국	484	15,443
2	일본	107	2,293
3	프랑스	99	3,729
4	인도	92	3,271
5	독일	90	1,434
6	중국	74	760
7	호주	67	549
8	캐나다	62	2,033
9	아일랜드	56	859
10	이탈리아	55	762
11	스페인	38	1,193
12	네델란드	37	668
	기타 EU국	138	3,499
	기타	220	16,865
총계		1,619	53,358

주: 프로젝트 건수 기준

자료: UKTI 2009/10 Annual Report

산업별 투자 유치 현황(2009/10)

순위	산업 부문	건수
1	소프트웨어	257
2	첨단엔지니어링	190
3	생명과학	173
4	비즈니스 서비스	158
5	금융	110
6	ICT	105
7	환경기술	79
8	창조, 미디어	69
9	기타	478
총계		1,619

자료: UKTI 2009/10 Annual Report

활동 분야별 투자 유치 현황(2009/10)

순위	산업 부문	건수
1	서비스	706
2	R&D	278
3	HQ	277
4	생산	248
5	유통	56
6	컨택 센터	49
7	E-Commerce	5
총계		1,619

자료: UKTI 2009/10 Annual Report

영국의 투자 유치 성공은 '글로벌 경제 허브'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완화된 해외 기업의 기업 인수 규제, 이민 증가, 무엇보다도 강력한 영어 기반의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을 주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자국산업의 부가가치 및 대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고도산업 분야의 투자유치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분야에도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2010 년 한국은 영국에 총 26 건 약 3,280 백만불의 투자를 실행. 1962 년 이후 총 투자누계는 259 건, 7,590 백만불 기록하여 영국은 우리나라의 제 5 위 투자대상국임

국내기업의 대유럽 투자 자체가 2001 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동구권으로 EU 가 확대됨에 따라 주요 국내 기업들의 유럽내 생산기지를 동구권으로 이전하여 (삼성, LG 등) 현재 영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우리기업이 거의 없는 실정임

현재 영국내의 우리기업이 영위하는 주요업종은 판매, 유통, 금융, 운송 물류 등의 서비스 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우리나라의 대영국 투자실적

(단위: 건, 백만달러)

년 도	신규법인	금액
2001	8	320
2002	11	69
2003	4	95
2004	12	274
2005	22	68
2006	15	68
2007	17	174
2008	24	188
2009	24	1,677
2010	26	3,280
1968 - 2010	259	7,590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현재 영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으로 제조업 81 여개사, 도·소매업 74 개사, 서비스업 26 개사, 기타 78 개사 등 259 개 업체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 전자, 대우 전자 등 가전 3사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SK 텔레콤, 현대, 삼성, 한진 중공업, 국민, 신한, 삼성증권 등이 주요함

1968~2010 년까지 우리기업의 영국투자(누계기준)는 259 개 신규법인, 투자금액 75.9 억불로서 EU 국가 중 1 위 차지

2004 년과 2007 년도에 두 차례 걸쳐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주요 동유럽국가가 EU 에 가입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삼성전자, LG 전자 등)의 유럽내 생산기지가 동구권으로 이전, 이에 따라 영국내 우리기업 투자법인은 대부분 판매법인과 영업법인임.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주요 투자관련법 내용

1979년 외환 관리법이 폐지된 이래 외국인 투자(해외 투자 포함)를 포함한 국제 자본의 거래 및 이동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즉, 외국인 투자를 관리하는 법규 및 규제 사항이 전혀 없으며,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규 및 제도도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를 포함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수치 파악과 일반적인 경제 활동에 관한 통계 정보를 수집, 조사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무역 통계법(The Statistics of Trade Act, 1947)이 시행되고 있다.

□ 무역 통계법의 주요 내용

- 통계청의 통계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 생산, 유통, 서비스에 대한 센서스
- 조사에 대한 회신 방법, 회신 기간
- 회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 조사 결과의 의회 보고 관련 사항
- 자문 위원회
- 정보의 공개
- 정보 조사에 따른 강제 사항 등
- 기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나. 영국의 기업 환경

1) 외자 규제, 규제 및 금지 업종, 정부로부터의 인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 존재

영국에는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것이 있다. 사업 인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사업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금융 서비스, 의약품, 우편, 주류 판매, 유전 개발, 전력, 가스, 통신, TV방송, 항공, 폐기물 처리, 食肉(가공, 소매) 등
- 사업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의 예 : 의료기기, 의료·복지 서비스, 도박장, 폐기물 수송·브로커, 식품 판매, 양계장, 낙농업 등

2) 출자 비율 제한은 없음.

3)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 가부 가능. (조건 등은 지역에 따라 다름)

영국에서는, 외국기업이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데 있어 규제는 없다. 영국에서 토지의 최종적인 소유권은 왕실(The Crown)에 있다. 토지 소유의 형태로서는, freehold와 leasehold가 있고, 각각 일본의 소유권과 임차권에 해당한다.

영국에 거점을 설립하는 기업에서는, 공업용 부동산은 freehold, 오피스 물건은 leasehold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를 산업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있어, 각 자치체의 개발 계획국 으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상공업 부동산 및 각 지방의 개발, 건축 규제에 대해서 각 지역의 투자 유치 기관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투자 제도, 투자 촉진 기관 등은 - III 투자 촉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참조)

4) 개발·건축규제에 대한 상세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영국에서는 비거주자도 국내 규제에 따라서 토지 소유가 가능하고, 외국 기업의 토지 소유에 대해서 제한은 없다. 토지 소유의 절차는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왕실 토지 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에서 토지 소유권을 등록한다. 상업용 부동산의 leasehold는 통상 15년이고, 5년마다 갱신된다. 또 freehold는 무기한 계속될 수 있다.

토지의 구입, 임차에 있어서는, 양도 증서 작성 비용, 인지세(구입 시, 상세한 것은 아래에), 지방 자치체 의 조사 비용, 은행 송금 수수료 등의 법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물건의 소개를 부동산 업자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로 연간 임대료의 약 10%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

5) 토지 등록에 관한 상세

- 잉글랜드 웨일즈: Her Majesty's Registry
 - 전화: 0845 308 4545 (국내 전용)
 - 팩스: +44-(0)20-7917-8888
 - e-메일: enquiries.pic@landreg.gov.uk
 - 홈페이지: <http://www.landreg.gov.uk>
- 스코틀랜드 : Registers of Scotland
 - 전화: +44-(0)131-479-3620 / Fax: +44-(0)131-479-3688
 - e-메일: customer.relations@ros.gov.uk
 - 홈페이지: <http://www.ros.gov.uk>
- 북아일랜드 : Land Registers of Northern Ireland
 - 전화: +44-(0)2890-251700
 - 홈페이지: <http://www.lrni.gov.uk>

투기 목적의 부동산 투자나 개인적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입에 제한은 없다. 영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인지세(stamp duty Land Tax)로 불리는 고정자산세가 부과된다. 인지세율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가격	인지세율	인지세율(최초주택구입자)
£ 125,000 이하	0%	0%
£ 125,001 ~ £ 250,000	1%	0%
£ 250,001 ~ £ 500,000	3%	3%
£ 500,001 ~ £ 1million	4%	4%
£ 1million 초과	5%	5%

영국정부는 최초주택구입자(First-time Buyers) 우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인지세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3월 25일 부터 2012년 3월 25일 까지 적용이 된다. 또한, 비 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나 그 외 점유자에게는, 통일사업세(Business Rates)라는 지방세가 부과된다. 과세 평가액은 5년마다 재평가가 시행되고, 점유 물건의 임대료 해당 금액에 정부에 의해 정해진 요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해서, 각 지방자치체에 의해서 설정된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서 각각의 세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하기 웹사이트에 기술되어 있다.

- 잉글랜드 웨일즈: <http://www.local-regions.odpm.gov.uk>
- 스코틀랜드: <http://www.scotland.gov.uk>
- 북아일랜드: <http://www.dfpni.gov.uk>

6) 자본금에 관한 규제

외자규제는 없다. 국내 기업이라도 공개유한책임회사(Public Limited Company)는, 사업 개시에 앞서 최저 5만 파운드의 발행 완료 주식 자본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외자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 지역 개발에 대한 공헌, 신제품, 신기술의 도입, 경영 관리 기술의 활성화 등의 견지에서 그 진출을 환영하고 있고, 국내 자본과 차별 없이 자유롭게 경합시키는 자세를 갖고 있다. 자기 자금 등의 규제에 관해서는 노동 허가, 입국 허가신청 등을 참조하면 된다.

7) 기타 규제

- 국산화율
 - WTO, OECD규정에 따라,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관련 기계나 조립 부품 등의 현지 조달률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운영 및 진출 지역에 대한 경제 공헌의 관점에서, 현지 조달률을 높이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다. 외자 장려 업종

고부가가치 분야나 영국이 앞서있는 산업 분야(IT, 전자공학, 바이오 등의 하이테크 산업, 자동차, 연구 개발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외국인 기업가에 의한 투자에 대해 체재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또한, IT 등 전문직의 노동허가증 발급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 이노베이터즈·스킴(scheme)

전자상거래 등을 기본으로 한 기업을 우대하는 것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개발을 보유한 기업인/투자가에 대해서 이전까지 영국 입국에 필요한 자기 자금이나 투자 금액 등에 관한 조건에 대신해서 전자상거래나 그밖의 기술 혁신을 영국에 미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운영 방법을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했다.

2000년 9월부터 2년간의 시험적 조치로서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2009년 현재도 신청을 받고 있다. 동 스킴의 예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노

베이터로서 18개월간의 체재 허가가 부여된다. 이 기간을 포함해 최장 5년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영국에서 2명 이상의 고용(풀 타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
- 신청자는 해당 영국 기업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할 것
- 해당 영국 기업이 신청자에게 수입을 가져오게 되기까지의 기간, 수입 보조 등 영국의 공적 기금이나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할 것
- 입국 후 최초 6개월간은 자기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큼 자금을 갖고 있을 것

내무성 이민국이 아래 3분야를 점수제로 심사를 시행한다. 동 국의 Business Case Unit가 신청을 수령하고부터 통상 2주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 비자는 거주국의 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한다.

- 인격 : 업무 경험, 기업가로서의 명백한 능력, 학력·자격(특히 기술계, 과학계, 비즈니스계), 인격에 관한 추천장
- 사업 계획(일반) : 계획이 기술 면, 상업 면, 재정 면에서 현실적인 것, 경영진 설립에 관한 계획의 내용
- 사업 계획(영국 경제에 대한 공헌도) : 어떠한 숙련 노동자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창출 고용 수, 사업 계획의 신규성 및 창조성(영국이나 특정 산업에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R & D 활동에 대한 투자액 등

□ 스킴 관련 정보

- Business Case Unit Immigration and Nationality Directorate 18th
 - 주소: Floor,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UK
 - 전화: +44-(0)20-8604-3101 / 팩스: +44-(0)20-8604-5933
 - 홈페이지: <http://www.ind.homeoffice.gov.uk>

라. 외국인 취업 비자

- 취업비자는 T2 장기취업비자와 T5 단기취업비자가 있다.
- T2 장기취업비자는 다음과 같이 4 가지가 있다.
 - T2G 취업비자 (일반취업)
 - T2ICT 취업비자 (주재원)
 - T2M 취업비자 (종교취업비자)
 - T2S 취업비자 (스포츠인 취업비자)
- 2008 년 11 월 27 일부터 영국이민국은 과거의 워크퍼밋제도를 폐지하고, 새취업제도인 점수제 이민법의 2 급일반 취업비자(T2G, Tier 2 General)제도를 도입하였다.
- 비유럽인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반드시 T2G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단 같은 회사에서 영국지사(혹은 본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는 T2ICT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 일반인이 받는 T2G 취업비자는 영국회사로부터 스폰서쉽 증서번호가 담긴 잡 오퍼레터(job offer letter)를 받아서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T2G, T2ICT, T2M, T2S 취업비자는 처음 최대 3 년을 받을 수 있고, 추후에 3 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총 5 년간 영국에서 일하면서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T2 취업지자는 아래 계산으로 70 점을 취득해야 한다.
 - 스폰서쉽 증서, Labour Market Test 심사통과시 30점, 직업부족군은 50점
 - 신청자 학력점수: 전문대NVQ3이상 5점, 학사/석사 10점, 박사 15점(학위 하나만)
 - 잡오퍼 소득점수: £17,000(5점), £20,000(15점), £24,000(20점)
 - 영어점수: T2G, T2S 지원자 IELTS 4.0 (10점), T2M 지원자 IELTS 5.5 (10점)
 - 재정증명(Maintenance)점수: 10점-A급스폰서라이센스 받은 회사의 재정보증레터, 혹은 자금으로 재정증명: 영국에서 1년이상 거주자 £800 (동반자 1명당 £533)이상 3개월 잔고유지증명, 영국 1년 미만 거주자 혹은 해외신청자 £2,800(동반자 1명당 £1,600) 이상 3개월 잔고유지증명

마. 투자 인센티브

1) 일반적인 인센티브

① 선택적인 재정 보조금 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개요

- 영국 내의 지원지역(Assisted Area)내에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축 또는 개량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산출을 위한 정해진 공식은 없으며 개별 투자건을 심사하여 지급한다.
- 보조금 지원규모는 신규 고용인원 수, 프로젝트로 인해 보호되는 고용인원, 그리고 투자 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일반적으로 총 자본지출액의 10-15%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급 한다.
 - 보조금 규모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 ◎ 잉글랜드: 최저 1 만 파운드이며 최고 금액은 없음
 - ◎ 북아일랜드: Invest NI 와 협상하여 결정
 - ◎ 스코틀랜드: 최소,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
 - ◎ 웨일즈: 최저 7 만 5 천 파운드부터 시작하며, 최고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음

□ 지원 조건

- 지원지역(Assisted Area)에 투자 해야 한다.
- 투자로 인해 신규고용이 창출되거나 기존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
 - 10 만 파운드 이상의 보조금 신청시에는 고용의 질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투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 건물, 플랜트, 기계 등의 고정자산에 투자
-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
- 자금이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 EU 가 자금지원을 제한하지 않은 분야의 투자는 아래와 같다.
 - EU 의 보조금 지원 제한 분야: 철강, 석탄, 합성섬유, 운송기기, 농수산업
- 보조금 필요성 입증해야 한다.

□ 지원 서류

- 소정의 보조금신청서, 재무증빙자료, 및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역개발청(RDA)에 제출한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역개발청(RDA)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심사과정

- 잉글랜드
 - 25 만 파운드까지는 지역개발청에서 담당
 - 25 만 파운드-2 백만 파운드: 지역개발청 담당자가 심사하여 월레 지역자문위원회 (Regional Advisory Board)에 승인요청
 - 2 백만 파운드 이상: 중앙정부 부처인 BERR(Department of Business, Enterprise & Regulatory Reform)에서 심사 및 승인
- 북아일랜드: Invest Northern Ireland 에서 담당
- 스코틀랜드, 웨일즈: 5 백만 파운드까지는 지역개발청에서, 그 이상은 BERR 에서 담당.
- 심사기간: 기본적으로 필요서류 접수 후 30 일이나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음

□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은 당초 보조금지급 조건에 제시된 바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및 투자자금 실행 실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② 지역 선별 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

- RSA 는 스코틀랜드 지역에 제공되는 국가 차원의 지원계획으로, 유럽 공동체법(지원 대상 지역: Assisted Area)에 의해 지역 정부 지원 대상 지역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주된 형태는 무상 현금 보조로 자본 투자 비용,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나 보통 총 프로젝트 자본 비용의 10~20% 형태로 제공된다.
- 자본 투자가 비교적 적은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금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일자리 에 주어지는 처음 2 년 간의 급여에 따라 산정된다.
- Website: www.scottishdevelopmentinternational.co.kr

2) 세제상의 인센티브

□ 개요

- 영국은 철저한 내외국 기업 평등주의에 입각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가만을 위한 특별한 세제 혜택은 없다.

□ 일반적 세제상의 인센티브

- 낮은 법인세율
 - 주요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율 실시. 세금 공제 전 경상 이익의 30%
- 연구개발 및 공장 건설 경비 세금 면제
 - 개발 촉진 지구에 투자하는 경우 공장 건설을 위한 자본비용 및 연구 개발비의 100%에 대해 세금을 면제
- 고율의 감가상각 인정
 - 사업용도의 건물, 기계류구입 비용에 대해 연 25% 감가상각비를 인정, 세제혜택부여

3) 연구 및 개발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 EUREKA

- 개요
 - 유럽 내의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국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영국은 통산부가 주관함)
 - DTI 가 50%까지 경비를 부담한다.
 - 2009년도 연구, 개발 촉진을 위한 영국정부의 총 지원 예산액은 5,000만 유로이며 각 프로젝트당 최대 70만 유로까지 지원됨.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제한)
 - 첨단기술 개발프로젝트 또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단독 혹은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추진 경비지원
- Website: <http://www.eureka.be/contacts/fundingList.do>

□ LINK 제도(Link Collaborative Research Scheme)

- 개요
 - 영국내의 제조업체와 연구기관을 상호 연결하는 산학 협동 프로그램으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각종개발 프로젝트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대상: 첨단기술 또는 일반제조업의 산학협동연구개발 프로그램(5개의 주 카테고리로 분류)
 - Electronics/Communications/IT
 - Food/Agriculture
 - Bioscience/Medical
 - Materials/Chemical
 - Energy/Engineering

- 지원 규모: 총 프로젝트 소요 경비의 50% 한도이다.
- 기업 수혜 요건: 영국 내 제조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업(영국 기업 또는 영국 내 투자 실적이 있는 외국 투자 기업)
- Website: <http://www.ost.gov.uk/link/funding.html>

□ UK Foresight 제도

- 영국 내의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 대상: 선정된 연구 주제에 따라 적합한 선정을 통하여 보조한다.
- Website: <http://www.foresight.gov.uk/>

□ EU Fifth Framework Programme for R&D

- 산업 정보 기술에서 일상생활, 사회과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공동프로젝트 소요 자금 지원을 통하여 업체 간 연구개발 및 산학 협동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지원 대상
 - EU 회원국 회사 또는 EEA 회원국 국적 회사로 경쟁력을 갖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영국 내 투자 기업 포함)이어야 한다.
- 지원 조건
 - 연구 결과의 유용성 즉 연구결과의 보급 및 경제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 이어야 한다.
 - 기술 혁신 내지 기술 활용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이어야 한다.
- 지원 범위: 공동 프로젝트의 소요 자금의 50%까지 지원한다.

□ SMART

- 개요
 - 영국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보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지원 범위
 - 기술 평가(Technical Review) 지원
 -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보조되는 것으로 2,500파운드까지 지원되는데, 이것은 기술 사용에 대한 Best Practice에 보조된다.(Toward to a best practice review of technology usage).
 - 기술연구(Technology Studies) 지원
 - 혁신적인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이끌어 내는 기술적 기회(to help identify technological opportunities leading to innovative products and processes)의 확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보조하는 것으로 5,000파운드까지 보조된다.
 - 마이크로 프로젝트(Micro Projects) 지원
 -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2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2,500파운드 이하인 소액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기술적 진보성과 독창성을 지닌 Low-cost 제품의 원형이나 프로세스의 개발(Developing low-cost prototypes of products and process involving technical advance and/or novelty)에 보조된다.
- 신기술의 상업적 기술적 연구(Research Projects) 지원
 -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18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75,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60%(Tier2 지역인 경우 6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총비용이 20,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혁신적인 기술에 관한 기술적/상업적 타당성 검증 후(Undertaking technical and commercial feasibility studies into innovative projects)에 보조된다.
- 개발 프로젝트(Development Projects) 지원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0파운드 이내 총 비용의 35%(Tier2 지역인 경우 4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지급금이 20,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중대한 과학적 진보성을 지닌 신제품이나 프로세스의 전-생산 원형의 개발에 보조된다(Undertaking development up to pre-production prototype stage of a new product and process involving a significant technological advance).
- 특별 개발 프로젝트(Exceptional Development Projects) 지원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500,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35%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 지원금은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 고비용 프로젝트에 보조된다(Exceptional high-cost development projects with a strategic significance).

바. EU로부터의 금융 지원

EU 금융 보조금은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European Commission이 유럽 내 각국의 보조금 지원 기관을 통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4가지 구조적 기금(Structural Fund)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 보조금 종류

- Regional Development Fund(ERDF)
- European Social Fund(ESF)
-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EAGGF)
-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FIFG)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법상 구분

1) 개인사업자(Sole Trader)

- 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가장 간편함 수단임
- 모든 수익과 책임이 개인에게 귀속됨
- 모든 의사결정은 개인이 하게 되며, 자금 또한 개인이 마련하게 되어있음
- 1년에 한번 자영업자 세금평가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 회사 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2)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LP)

- 일정 수의 파트너 혹은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ies)들이 기업의 위험, 비용, 책임, 수익을 공유함
- 각 가의 구성원이 투자한 만큼의 지분과 보증에 대해서만 책임을 가지고 있음
- 각각의 구성원은 자영업자로 등록이 됨
- 최소한 두 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함
- LLP는 컴퍼니하우스(Companies House, 회사등록 및 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함
- 각 가의 구성원은 1년에 한번 자영업자 세금평가서를 작성 제출해야 함
- 재무관련 내용을 컴퍼니하우스에 보고해야 함

3)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 지분을 투자한 개인 혹은 단체는 그 지분에 비율만 재무적 책임을 지며, 유한책임회사의 재무는 지분을 가진 개인 혹은 단체의 사적인 재무와 별개임
- 유한책임회사가 파산할 경우에 지분 소유자들의 개인 재산은 보호 받을 수 있음
- 유한책임회사의 주요 형태로는 비공개주식회사(Private Limited Companies, LTD)와 공개주식회사(Public Limited Companies, PLC) 그리고 무한책임회사(Private Unlimited Companies)가 있음
- 반드시 컴퍼니하우스에 등록을 해야 함
- 최소 한 명 이상의 이사(Director)를 등재해야 하고, 그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단체가 아닌 개인이어야 함
- 공개주식회사는 반드시 2 명의 이사와 1 명의 회사비서(Company Secretary)가 등재되어야 함
- 기업은 반드시 1년에 한번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이사는 컴퍼니하우스에 회사조직, 경영진의 변동을 반드시 보고해야 함
- 회사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으로 배분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
-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은 없음

4)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 사회적인 목적을 위한 기업으로, 기업의 수익의 대부분은 기업에 재투자 되거나 사회에 환원됨
-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는 지역개발조합 (Community Development Trusts), 주택조합 (Housing Associations), 레저센터(Leisure Centres)등이 있음

나. 투자형태별

1) 투자 진출 형태

영국에서의 회사 설립은 기업의 국적을 불문하고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진출 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라이선스 계약(License Agreement)
- 주재원 사무소(Correspondent Office)
- 지점(Branch)
- 자회사(Subsidiary)
- 개인 사업주(Single Trader)
- 합작 투자(Joint Venture)
- 매수·합병(Mergers & Acquisitions)

실제 회사 등기 등의 절차는 변호사 사무소나 회계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 비용은, 진출 형태나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등에 따라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다르다. 영국을 비롯해서 구주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나 컨설턴트와의 비즈니스상 교제는 불가결하고, 그 때문에 비용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다.

- 주한 영국 대사관 투자과
 - 주소: 서울특별시중구정동 4 번지 태평로 40(우편번호: 100-120)
 - 전화: 02-3210-5611/3
 - 팩스: 02-728-2797
- UKTI (UK Trade & Investment)
 - 주소: Kingsgate House, 66-74 Victoria Street, London, SW1E 6SW
 - 전화: +44-(0)20-7215-8000
 - 팩스: +44-(0)20-7828-1281
 - 홈페이지: www.ukinvest.gov.uk
- Companies House
 - 주소: Crown Way, Cardiff CF14 3UZ, UK
 - 전화: +44-(0)29-2038-0011
 - 팩스: +44-(0)29-2038-0149

2) 투자 방식 개요

- 외국 기업이 영국에 진출했을 경우 택할 수 있는 회사 형태로는 크게 i) 지점 또는 사무소로 등록하거나, ii) 새로운 영국 회사(비공개/공개 주식회사) 설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투자형태 일람표

구분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영리활동	가능	가능	불가능
등록	Companies House 에 등록	Companies House 에 등록	Companies House 에 등록
자본금	* <u>공개주식회사</u> 최소 £50,000 * <u>비공개주식회사</u> 최소 1 펜스	불필요	불필요
이사(Director)	* <u>공개주식회사</u> 최소 2 명 * <u>비공개주식회사</u> 최소 1 명	불필요	불필요
비서역 (Company Secretary)	1 인 이상	불필요	불필요
법인세 과세범위	전 세계 소득	국내 원천소득	법인세 없음
회계 처리	영국법인의 회계처리로 완결	별도회계 필요	해당사항 없음
과실송금 가능여부	과실송금 가능	과실송금 가능	해당사항 없음
소송(분쟁해결)	원칙적으로 본국 법인에 영향 없음	본국 법인에 영향을 미침	본국법인에 영향을 미침
등록 소요기간	서류 제출 후 8-10 일 (다만 £50 의 등록비를 낼 경우 서류제출일에 등록됨)	서류 제출 후 8-10 일 (다만 £50 의 등록비를 낼 경우 서류제출일에 등록됨)	서류 제출 후 8-10 일 (다만 £50 의 등록비를 낼 경우 서류제출일에 등록됨)
설립 소요비용	등록비용 £20 (법률사무소 등을 이용할 경우 £1,000 ~ £2,000 의 수수료)	등록비용 £20 (법률사무소 등을 이용할 경우 £1,000 ~ £2,000 의 수수료)	등록비용 £20 (법률사무소 등을 이용할 경우 £500 ~ £1,000 의 수수료)
등록기관	Companies House (www.companieshouse.gov.uk)	Companies House (www.companieshouse.gov.uk)	Companies House (www.companieshouse.gov.uk)

3) 지점 또는 사무소 등록

외국 회사가 영국에 일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때에는 영국에 사무소 또는 지점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영국에 출장 와서 호텔 등과 같이 임시적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 사무소(영업장, Place of Business) 등록

- 외국 회사가 영국에서 보조적, 임시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 규정(place of business regime)에 따라 영국에 사무소 등록을 해야 한다. 임시적인 기능으로는 창고 시설, 관리 사무소 및 내부 자료 처리 시설 등을 일컫는다.
- 외국 기업이 영국 내에 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회사 등기소(Register)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영문 이외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공증된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는 20 파운드이며, 개설과 동일자에 등록할 때에는 100 파운드이다(스코틀랜드 또는 북아일랜드에 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Edinburgh, Belfast 상업등기소에 별도 등록해야 함).
- 공증된 회사의 정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규정의 사본(Certified copy of the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양식 #691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요청된 어떠한 통고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 가능한 한 사람 이상의 영국 거주자의 성명과 주소
 - 이사 또는 비서에 의한 영업장 설립 일자의 법적 공고

□ 사무소 등록 후 신고 사항

- 회계 자료 보고
 - 사무소는 본사 재무제표를 등기료(15 파운드)와 함께 영국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본사 재무제표가 영국 파운드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경우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환율을 기재해야 한다.
 - 본사 재무제표 제출 기한은 결산일로부터 13 개월이다.
- 신고 내용 변동
 - 등록 후 신고 내용 변동 시 소정의 서식으로 변동 사실을 영국 등기소에 신고

□ 지점(Branch) 등록

- 외국 회사가 영국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보조적 또는 임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점 등록 규정(branch registration regime)에 따라 지점 등록을 한다. 지점은 외국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직되며, 이는 영국 거주자가 외국 회사 본사와 거래하는 대신 영국 지점과 직접 거래함을 의미한다.
- 1 개 이상의 지점 설치도 가능하다. 지점을 설립한 외국 회사는 지점 개설 후 1 개월 이내에 서식 BRI 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등록 사무소에 제출하며 등록 비용은 20 파운드이다. 모든 서류는 공증된 영문 번역서로 제출되어야 하며, 최초 지사 개설 후 복수 개설되는 다른 지점은 최초의 지점 등록 번호를 서식 BRI 에 기재하면 정관 등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 회사 현황소, 메모랜덤 및 회사 정관의 인증된 사본(만약 원본이 영어 이외의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인증된 영문판 문서와 더불어)
-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 BR1 양식
 - 외국 회사 본점에 관한 사항
 - 회사 명칭
 - 사업장 명칭(회사 명칭과 다른 경우)
 - 회사의 설립 국가, 설립 국가에서의 법인 등록 번호, 설립 국가의 등록 기관
 - 회사의 형태
 - 회사의 이사와 비서의 명단, 주소, 국적, 직업, 생년월일 등
 - 제 3 자와 거래 및 소송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이사의 권한의 정도 신용 또는 금융 기관인지의 여부
 - EU 회원국 이외에서 설립된 외국 회사는 추가로 아래 사항을 신고해야 함.
 - 회사의 설립 근거법
 - 설립 국가 내 주소, 회사의 목적, 자본금 금액

- 본사의 회계 기간 및 본사 소재국의 법에 따른 회계 보고서 작성 및 공시 기한 영국 지점에 관한 사항
- 지점 주소
- 개설 일자
- 지점에서 수행하게 될 사업 내용
- 회사의 명칭과 사업장 명칭이 다른 경우는 사업장 명칭을 기재
- 지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영국 내 거주자의 성명 및 주소
- 권한의 행사 범위(즉, 위임 기관이 범위 내 또는 제한을 표시한 정도 내인지) 및 공동 대표인 경우 관련된 자의 성명

□ 지점 등록 후 신고 사항

- 회계 자료 보고
 - 본사의 회계 보고서 작성, 회계 감사 및 공시에 관한 본사 소재지국에서의 의무에 따라 상이
 - 회사 설립 국가 내에서의 공시 의무가 있는 경우 지점 설치 후 1 개월 이내에 최근 공시 회계 보고서 사본을 번역 공증을 첨부, 제출
 - 회사 설립 국가 내에서의 공시 의무가 없는 경우 사무소 관련 규정과 같은 방법으로 제출
 - 회계 보고서 제출 기한. 본사 소재국의 법이 공시를 요구하는 때에는 법에 따라 회계 보고서를 공시할 때마다 공시 후 3 개월 이내에 영국의 회사 등기소에 회계 보고서 사본 제출. 회계 보고서는 등록비 15 파운드와 함께 제출
- 등록 사항 변경: 변경 후 21 일 내에 변경 신고

다. 투자주체별

1) 단독투자

- 투자자는 100%의 자기 자본으로 기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사, 유한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2) 합작투자(Joint Venture)

-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및 전문 능력을 하나로 합쳐 영업활동을 하여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형태
- 합작투자의 형태로는 기존의 기업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과,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형태가 있음
- 상황에 따라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를 설립하는 것보다, 비즈니스파트너(Business Partnership) 혹은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Liability Partnership)를 설립하는 것이 좋을 수 있음
- 합작회사를 설립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혹은 서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급한 정확하고 상세한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함

3) 인수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 사업을 확장하여 진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기업을 인수 합병하여 기존의 기업에 병합하는 방법이 있음
-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모기업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피인수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

라.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1) 선호형태 및 사유

- 외국인의 투자 및 회사 설립 시 내국인과 차별이 없기 때문에 선호하는 특정 형태는 없음
- 영국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기업의 상황에 따라 연락 사무소/지사를 설립 후 일정기간 회사를 운영 후 정식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음
- 영국의 경우 법인의 설립절차 및 비용이 저렴하고 법인의 폐쇄 또한 용이하기에 외국의 기업들은 지사나 연락사무소 보다 법인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에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계획이 없이, 하나의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해 영국에 진출 할 계획이 있을 경우는,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형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외국인에게 어려운 형태

- 영국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의 회사 설립 및 지원, 인센티브 등에 차별이 없음
- 외국인의 회사등록에 제약이 없기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기업의 투자전략에 따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마.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1) 비공개 주식회사

-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회사 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소정 양식은 회사 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서류 등록 비용은 20 파운드 이다 (설립과 동일자에 등록할 경우 100 파운드).
 - 회사 설립 시(모든) 자본 출자자가 서명하고 공증된 회사 정관 사본(이때 자본 출자자는 한 명이라도 상관 없음)
 - 초대 이사 및 비서역에 관한 보고서: 이사 및 비서역의 취임 동의서
 - (서식 10)와 회사의 등록된 사무소 주소 첨부
 - 회사 법 1985 에서 규정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서약서. 이 서약서는 공증인 임회 하에 변호사, 이사 또는 비서역에 의해 작성
- 회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충족된 경우, 회사 등기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을 발급함. 회사 설립 증명서의 발급은 사실상 회사의 영업 개시를 인가한 것을 의미하며, 그 이전에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회사 설립 후 신고 사항
 - 회계 연도의 신고: 1996 년 4 월 1 일 이후 설립 회사는 자동적으로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이 되는 달의 말일이 되나, 요건 충족 시 현재의 회계 연도 변경도 가능한데, 이때는 서식 225 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 신주 발행: 신주 발행 경우에만 해당
 - 상호 및 정관의 변경: 회사 상호의 변경은 인가 받는데 통상 10 일이 소요되나 100 파운드의 수수료를 내면 하루 만에도 가능하다. 새로운 회사명은 '회사명 변경 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n change of name)'가 발급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설립 후 이사회 의 소집: 이사는 회사 설립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데 따른 절차를 승인하고, 거래 은행 및 회계 감사인의 지정, 주주에 대한 주권의 발행 등 제 절차를 마쳐야 한다.
- 법인 설립 후의 보고 의무
 - 회계 자료 보고: 결산일로부터 10 개월 이내 재무제표를 회사 등기소(registrar)에 제출
 - 연차 보고서 보고: 매년 작성, 제출 의무가 있으며 작성일로부터 28 일 이내에 회사 등기소 (Companies House)에 제출. 제출 수수료 £ 15.
 - 연차 주주총회 개최: 매년 1 회 이상, 이전 주주총회로부터 15 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개최해야 함.

2) 공개 주식회사 (Public limited company: PLC)

- 비공개 주식회사는 주식을 공모할 수 없는 반면, PLC 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주식 공모가 가능하다.
- PLC 는 비공개 주식회사보다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비공개 주식 회사로 설립할 것인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회사의 상황에 비추어 결정해야 하는데, 비공개 주식회사로 설립한 후 PLC 로 전환하는 것은 처음부터 PLC 로 설립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 일부 기업들은 회사 이름 뒤에 붙는 PLC 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주식 상장을 양으면서도 PLC 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 PLC 설립 방법은 비공개 주식회사 설립과 유사하나, 다음 사항에 차이가 있다.
 - PLC 정관에 public limited company 로 명기해야 한다.
 - PLC 의 회사 명은 반드시 public limited company 또는 PLC 로 끝나야 한다.
 - PLC 는 최저 2 명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비공개 주식회사는 최저 1 명의 이사
 - PLC 의 수권 자본금은 50,000 파운드 이상이어야 한다.
 - 비공개 주식회사는 1 파운드 이상으로 사실상 수권 자본금 제한 없음.
 - PLC 의 발행 주식 총액은 수권 자본 금액의 25% 이상이고, 주식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는 프리미엄 금액 전액이 납부되어야 한다.
 - PLC 의 비서역(company secretary)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경험 및 적절한 자격을 보유하여야 한다.
 - PLC 가 최저 자본금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회사 법(Company Act) 117 조가 규정한 설립 인가증이 회사 등기소(registrar)로부터 발급되며, 동 인가증 발급 이전에는 업무상 거래나 차입 행위가 금지된다.

3) 공장 설립

- 공장 설립법과 같은 단일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지방자치단체(Council)별로 각 투자 사안에 비추어 처리하고 있다.
- 이는 한국의 법체계 정서로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국의 내외국인 투자 촉진 취지는 고용 창출이기 때문에 기업이 각 지역 개발청에 투자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역 개발청은 부지 선정에서부터 인력 확보, 공장 가동까지 turn-key base 로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반적으로 공장 설립과 관련된 설립 허가(factory permit) 획득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는 대략 5 주 정도 소요되며 최근에는 온라인 등록도 가능하며 접수 시 계획서,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 따라서 투자 희망 기업은 충분한 영국 시장 타당성 조사 후 각 지역 개발청을 접촉, 투자 인센티브 및 개발청의 지원 범위 등을 확인,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연락처: 각 지역 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England 지역
 - Greater London : Think London
 - South East : South 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
 - South West : South West England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East of England : East of England Investment Agency
 - East Midlands : Ea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 West Midlands : We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 North West : North West Development Agency
 - Yorkshire and the Humber : Yorkshire Forward
 - North East : One North East
 - Wales 지역: Welsh Development Agency(WDA)
 - Scotland 지역: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
 - Northern Ireland 지역: Invest Northern Ireland
- 일례로 가장 모범적인 투자 유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북아일랜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나 승인 절차가 없으며, 투자 계획서 및 최근 3 개년간 재무제표, 투자 금액, 공장 부지 면적, 기계 설치, 신규 고용 계획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는 있으나 단지 지원을 위한 사전 참고 자료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 1988 년 북아일랜드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D 전자의 경우 북아일랜드 개발청(IDB)에 투자 계획서와 재무제표를 제출함과 동시에 지역 선택 보조금 신청 절차 및 IDB 공장 건설 팀과의 공장 설립 계획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IDB 공장 건설 팀은 투자 기업으로부터 공장 설계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상 6~8 개월 내에 부지 조성에서 생산 라인 설치까지의 전 공정을 TURN-KEY BASE 로 완성, 투자 기업에 공장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다.

바. 추천 법무법인/회계법인

- DENTON WILDE SAPTE LLP
 - 주소: One Fleet, London, EC4M 7WS
 - 대표전화: +44 (0)20 7242 1212
 - 담당자: 김병용 변호사
 - 이메일: david.kim@dentonwildesapte.com
 - 담당자 전화: +44 (0)20 7246 7382
 - 홈페이지: www.dentonwildesapte.com
- Ince & co
 - 주소: International House, 1st katharine's way, London, E1W 1AY
 - 대표전화: +44 (0)20 7481 0010
 - 담당자: 남기종 변호사
 - 이메일: kijong.nam@incelaw.com
 - 담당자 전화: +44 (0)20 7551 8219
 - 홈페이지: www.incelaw.com
- Hill Dickinson LLP
 - 주소: Irongate House, Duke's Place, London, EC3A 7HX
 - 대표전화: +44 (0)20 7283 9033
 - 담당자: 박광규 변호사
 - 담당자 전화: +44 (0)790 239 7626
 - 홈페이지: www.hilldickinson.com
- 권순재 회계법인 (Kwon & Co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 주소: 2nd Floor, 9 Coombe Road, New Malden, Surrey, KT3 4PX
 - 전화: +44 (0)208 949 2388
 - 팩스: +44 (0)208 947 2399
 - 담당자: 권순재
 - 이메일: skwon@kscacca.co.uk
 - 홈페이지: www.kscacca.co.uk
- 삼일 회계법인 (PricewaterhouseCoopers LLP)
 - 주소: Korean Service Group, 6th Floor, 1 Embankment Place, London WC2N 6RH
 - 전화: +44 (0)20 7213 4939
 - 팩스: +44 (0)20 7804 6763
 - 이메일: 김미경(mee.k.knigt@uk.pwc.com)
 - 홈페이지: www.pwc.com
- 삼정 회계법인(KPMG LLP)
 - 주소: 38Floor, Canary Wharf, One Canada Square, London EC14 5AG
 - 전화: +44 (0)20 7311 6404
 - 팩스: +44 (0)20 7311 4121
 - 이메일: 방경주(kyungjoo.bang@kpmg.co.uk)
 - 홈페이지: www.kworld.kpmg.com

○ 한영 회계법인 (ERNEST & YOUNG KOREAN DESK)

- 주소: 1 More London Place, London SE1 2AF
- 전화: +44 (0)20 7951 0707
- 팩스: +44 (0)20 7951 9305
- 이메일: 방규승(kbang@uk.ey.com)
- 홈페이지: www.ey.com/uk

○ (주) 우리 엔터프라이즈(영국 이민국 공인 컨설턴트)

- Woori Enterprise LTD
- 주소: Suite 24 Fitzroy House, Lynwood Drive, Worcester Park, Surrey KT4 7AT
- 전화: +44 (0)20 8337 4994
- 팩스: +44 (0)20 8337 9449
- 이메일: info@woori-enterprise.com
- 홈페이지: www.woori-enterprise.com

6. 투자입지여건

가. 입지 선정

영국에는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공단을 조성하여 분양하고 있지 않으며 기업들은 지역 선택 보조금을 받고 Greenfield에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특정 산업의 기업이 많이 입주한 공업 지역이 있으나 엄격히 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공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간 및 공공 투자 유치 기관, 지방자치 단체들이 특정 지역을 Industrial Estate(공장지), 또는 Industrial Park(공업지), Business Park(사업장) 등으로 지정, 기업 입주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 정부는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투자 기업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선택 보조금(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제도를 통해 투자 금액의 50%까지 지원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RSA제도에 따라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잉글랜드 지역에 투자할 경우 공장 부지 구입, 공장 건축비, 설비 투자비 등 공장 설립 및 가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지역 선택 보조금 제도 수혜를 위해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잉글랜드 지역에 기업들이 공장을 많이 짓고 있어 이들 지역이 공업 단지와 같은 성격을 띤 지역이 많다.

이와 같이 영국에는 한국과 같은 산업 공단은 없으나 RSA 수혜 가능 지역별로 20개 이상 기업이 입주한 Industrial Estate 또는 Industrial Park 등의 숫자는 북아일랜드 40개, 스코틀랜드 37개, 웨일즈 21개, 북 잉글랜드 59개 등이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국내외 기업간 차별이 거의 없으며 영국 내 투자 외국 기업은 모두 영국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영국은 전체적으로 12개의 경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에 9개 그리고 웨일즈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가 각각 독립된 경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공장 입지 조건은 각 사업 부문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며 공장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영국 무역 투자청(UKTI)이나 각 지역의 지역 개발청(RDA)들이 지역 내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타당한 입지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들어 런던 지역의 경우 이미 16년째 유럽 내 최고의 비즈니스 도시로 뽑혀 오고 있으며 가장 큰 장점으로선 숙련된 인적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나. 주요 기업 단지

영국내에서 기업 단지(Enterprise Zones)로 지정되는 것은 침체된 도시지역의 재활이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이며 이미 거의 모든 단지들이 그 특혜가 보장되던 10년이 만료된 상태이다.

다. 주요 체크 포인트

- 지역 내 기 위치한 산업 부문과 비즈니스의 종류
- 관련 클러스터와의 연계 용이성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정부 등의 지원/혜택 수혜 가능성
- 실질 설립 비용(부동산/설비 구축 포함)

라. 지역별 투자 여건(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지방자치 단체는 주택 법(Housing Act, 1989)에 의거 해당 지역의 경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위임 받고 있어 인센티브의 내용이 자치 단체별로 다소 상이하다. 주로 Grants(보조금), 저리의 자금 대출, 지급 보증, 투자 기업에 자본 참여, 건물 등의 부동산을 무료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 잉글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잉글랜드 지역은 Great London, South East, South West, East of England, East Midlands, West Midlands, North West, Yorkshire and the Humber, North East 의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방 관할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낙후 지역인 Yorkshire and the Humber와 North East의 대부분 지역을 투자 지원 지역(Assisted areas: Tier1, Tier2, Tier3-중소기업에 한함)으로 지정해 보조금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 Yorkshire and the Humber 지역: 관할 기관 Yorkshire Forward

- 선별적인 재정 보조금 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실업 문제 해결 및 당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지원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제공함(세금이 면제되지 않는 보조금).
 - 동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생산성과 기술의 파급 효과에 따라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최소 10,000파운드를 무상 현금 형태로 분할 지급(주로 총 고정 투자 비용의 10~15%) 중소기업의 경우 좀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100,000파운드 또는 그 이상의 재정 지원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고용 창출이 있어야 하며 프로젝트 또한 경쟁력이 있고 3년 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고정 자산 비용에는 대지구입, 부지조성 및 건물 건축, 플랜트 및 기계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되나 특허료, 자문료, 기계 설치 비용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됨.

-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에대한 측정은 현재 다른 지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산업 파급 효과를 기준으로 함.
- 프로젝트는 또한 경쟁력이 있어야 하며 재정지원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5년 동안 성과를 측정함.
- EU 자원에서 경쟁력이 없는 철강, 석탄, 합성 섬유, 자동차, 농업, 그리고 어업 분야는 지원 가능 산업 분야에서 제외. 또한 투자 지원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아닌 고용 대체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이 제한 됨.
- 보통의 SFI 팀에서 보조금의 가능 여부, 범위 등을 결정하나 사업 단위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의 경우 런던에 있는 DTI에서 평가함.
- 전담 부서명:
 - Yorkshire Forward SFI Team
 - 주소: Yorkshire Forward Victoria House 2 Victoria Place, Leeds LS11 5AE
 - 전화: 0113 394 9860 / 팩스: 0113 394 9870
 - e-메일: sfi@yorkshire-forward.com
 - 홈페이지: <http://www.yorkshire-forward.com>
- Northeast England 지역
 - 관할 기관: One North East Regional Development Agency
- 선별적인 재정 보조금 제도(Selective Finance for Investment in England: SFI)
 - 이전의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와 EG(Enterprise Grants)가 통합된 형태로 투자 지원 지역(Assisted area)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 현대화할 경우 보조금을 제공. 이 제도의 목적은 생산성, 기술, 고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촉진하기 위함임.
 - 생산성, 기술 향상, 고용 창출을 가져오는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형태로 분할 지급되며, 보조금은 영국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위험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보조금이 상향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원
 - Micro Projects
 -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12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 총 예산이 2,5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Research Projects
 - 50명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18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75,000파운드 이내 총비용의 60%(Tier2 지역인 경우 65%)를 보조금으로 지급. 지급금액이 20,000 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Development Projects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200,000 파운드 이내 총 비용의 35%(Tier2 지역인 경우 40%)를 보조금으로 지급. 지급 금액이 20,00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Exceptional Development Projects
 -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6~36개월 이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500,000 파운드 이내 총 비용의 35%를 보조금으로 지급함.
- 기타 투자 인센티브
 - NESTA
 -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지적 재산권의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NESTA에서 조사, 개발, 실험을 지원. 지원금은 개인당 65,000파운드까지 가능함.

- 전담 부서 명: NESTA
- Fishmongers' Chambers
- 주소: 110 Upper Thames Street, London EC4R 3TW
- 전화: 020 7645 9500
- e-메일: nesta@nesta.org.uk
- 홈페이지: www.nesta.org.uk
- Cultural Business Venture
 - 영국에서 가능한 문화 산업의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이때 Prince's Trust 와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 25명미만의 종업원을 갖추고있는 신설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자문이 필요함.
 - 보조금은 1,000~10,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총 비용의 75%까지 지원 가능함. 지원 단계에서 24%의 매치펀드 근거 제시 필요함.
 - 전담 부서 명: Cultural Business Venture
 - Arts Council England, North East
 - 주소: Central SquareForth Street Newcastle upon Tyne NE1 3PJ
 - 전화: 0191 2558500
 - 팩스: 0191 2301020
 - e- 메일: northeast@artscouncil.org.uk
 - 홈페이지: www.artscouncil.org.uk
- Carbon Trust Grants
 - 산업/공적 분야에 산업적인 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온라인 지원이 가능함.
 - 전담 부서 명: Barrie Brass
 - Regional Manager
 - Carbon Trust
 - 주소: One NorthEast, Stella House Goldcrest Way, Newburn Riverside Newcastle /Tyne, NE15 8NY
 - 전화: 0191 229 6200
 - e-메일: barrie.brass@thecarbontrust.co.uk
 - 홈페이지: www.thecarbontrust.co.uk/foundation

2) 북아일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관할 기관: Invest Northern Ireland (Invest NI)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자본 지출에 대한 현금 지원(Cash Grants)
 - 국제적으로 유망한 사업으로서 북아일랜드 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로 고용 창출 효과를 기준으로 공장 건설비(부지 포함), 기계 설비 구입비의 최고 50% 까지 부상 지원
 - 동 보조금은 타 지역과는 달리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 세금이 면제됨.
- 창업 초기 인건비 보조(Start-up Costs, Employment Grants)
 - 북아일랜드 투자로 인해 창출된 고용 인력의 규모에 대하여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지원 규모는 창업 기간 동안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짐.
 - 지원 기간은 3년이며 고용 인력 규모를 Invest NI 측에 보장하는 경우 3년 분의 보조금을 일시에 지원받아 투자 또는 운전 자본으로 전환 사용이 가능함.

- 이자 감면(Interest Relief Grants)
 - 비 정부 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최대 7년까지 금리 보조
 - 최초 3년간은 상업 금융 기관 금리, 이후 4년간은 3%의 금리를 보조
- 공장 임대료 보조(Factory Rents)
 - 공장 임대 시 임대료의 100%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Rent Grants)
- 시장 개척 비 보조 (Marketing Development Grants, 40/60 Scheme)
 - 설립후 최초 3년까지 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의 40%, 최대 60,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보조

□ 세제 지원

- 기계, 설비, 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Invest NI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최대 45%까지 포함) 중,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연 25%,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연 4%의 감가상각을 허용
- 제조 공장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 100%를 감면

□ 금융 지원

- 운영 자금을 비롯하여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본에 대해 IDB 측이 정부 자금을 융자하여 줌. 동자금은 무이자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담보제공 등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함.
- 특수한 프로젝트인 경우 Invest NI가 직접 주식 투자의 형태로 참여

□ 종업원 교육 훈련 지원

- Invest NI의 방계 기관으로 훈련 고용청(Training & Employment Agency)을 설립, 북 아일랜드 투자 기업에 대해 종업원 교육 훈련 비용(교육 기간 중 임금, 교육 비용, 여행비 포함)의 최대 50%까지 지원함.

□ 연구개발비 지원

- 시장 지향적인 제품 및 제조 공법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기획 단계(Project Definition Phase)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15,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지원
 - 개발 단계(Project Development Phase)에서는 최대 40%까지(10% 추가 지원 가능: Green Bonus) 250,000파운드 범위 내에서 지원
 - 홈페이지: <http://www.investni.com>

3) 웨일즈 지역 투자 인센티브

관할 기관: Wales Development Agency(WDA)

□ 인센티브 제공

- 외국 기업이 투자 타당성 조사 단계 에서부터 최종 마케팅 단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사항을 WDA가 관련 기관과의 협력 하에 패키지 형태로 지원. 다른 지역과는 달리 TAX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세제 지원

- 소득세(Personal Tax)
 -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처음 세전 이익이 3,000달러 10%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일 경우 22% 소득세를 부과함. 또한 지방 소득세는 없음.
- 법인세(Corporate Tax)
 -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법인세를 실시. 세금 공제 전 경상 이익의 30%. 배당 소득, 이자, 로열티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없음. 환전 및 해외 송금에 대한 규제가 없음.
- 부가가치세(VAT)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17.5%의 세금이 부과되고 연료 및 전기에 대해서는 5%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이러한 비율은 제한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되며 사업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세금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 영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 그 밖의 주요 인센티브

- 교육 훈련 인센티브
 - 종업원의 채용,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지원 범위는 개별 계약에 의함)
 - 종업원의 채용 정보 제공 및 채용 지원
- 부동산, 인프라 관련 인센티브
 - 공장 시설 가동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공장 부지까지의 전력선, 진입로, 상수도 등 관련 시설 건설 지원)
 - 관련 웹사이트: <http://www.locate-in-wales.com>

4) 스코틀랜드 지역 투자 인센티브

관할 기관: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

□ 주요 인센티브 현황

- RSA(Regional Selective Assistance)
 - 지원 대상 지역(Assisted Area)에 지대 및 건물 임대료, 공장 및 기계, 소프트웨어 및 지적 재산권 등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 중에서 보조금이 지급
 - 보조금의 규모는 협상에 의해 결정되며, 보통 예상 자본 경비의 10~20% 수준임. 그리고 이 보조금은 창출되는 일자리 한 개당 5,000~10,000파운드에서 조정됨.
- SMART
 - 두 단계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첫 단계는 경쟁을 통해서 선출된 개인과 소기업들이 6~18개월 동안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 지원금 4만 5,000파운드 내에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함.
 -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생산 전 단계의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총 프로젝트 비용의 35%를 지원. 두 단계를 합친 최대 지원금은 15만 파운드이며 두번째 단계의 프로젝트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안에 완료되어야 함.

- SPUR
 - 상당한 수준의 기술 발전을 동반하는 신제품 생산이나 프로세스에 소요되는 프로젝트 비용의 규모가 최소 5만 파운드 이상인 기업을 지원함.
 - 통신이나 생명 공학과 같은 고가의 첨단 기술을 요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비용의 규모가 최소 100파운드 이상이면 SPUR plus 대상 기업이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단, 이때 지원 대상 기업은 방위 산업을 제외한 기업에 한하며, 기술적인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연구개발비 지원
 - 종업원 수가 250명 이하이고 연간 매출이 약 2,500만 파운드 이하이면서 대기업이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
 - 수익을 내는 기업의 경우 R&D 비용에 100~150%까지 세금을 면제
 - 수익을 내지 않는 기업의 경우 R&D 비용 100파운드마다 24파운드의 현금으로 지원
 - 대기업의 경우 세금 혜택 조건을 만족하는 R&D 비용에 대해 첫 해 100% 세금 공제와 25% 추가 세금 공제
- 부동산, 인프라 관련 인센티브
 - 스코틀랜드 내 개발 촉진 지구, 중간 지구 내의 공장 부지 사무실 부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조성, 개발, 구입 지원
 - 공장 부지에 대한 상수도, 가스관, 전력선, 진입로 등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 지원 (설비 건설 지원 또는 무상 건설 지원)
 - 스코틀랜드내의 도심지 입주 업체를위한 사무 공간, 건물 구입 정보 제공 및 구입 지원
- 종업원 고용 및 훈련 관련 인센티브
 - 미숙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보조금 지원
 - 종업원 채용 정보 제공 및 채용 지원
- 홈페이지: <http://www.scottishdevelopmentinternational.co.kr>

7. 노무관리

가. 노동 여건

1) 개요

영국 내 종업원 고용은 신문 광고, 지역 직업 안정소(Job Centre), 전문 직업 소개소(recruit agency)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 경제 분석가 등의 고급 인력 채용은 recruit consultancy로 불리는 전문 업체를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고용 계약

□ 고용 조건

종업원은 고용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동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고용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용 조건으로는 의료 진단(medical examination), 영국 내 취업이 합법적임을 입증하는 여권 사본, 노동 허가증(work permit-비 EU 국민 해당) 제출 등이 있다.

□ 고용주의 고용 조건에 대한 문서화 의무

고용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고용주는 고용조건에 관한 문서를 작성, 근무 시작 후 2개월 내에 종업원에게 전달할 법적 의무가 있다. UK Employment Law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없음을 명기해야 한다.

- 고용 개시일
- 급여액, 급여 계산 방법, 급여 지급일
- 근로 시간
- 휴가
- 병가
- 연금
- 고용 계약 만료를 위한 통지
- 직책(job title) 및 주요 업무
- 근무지
- 징계 정책 및 불만 사항 처리 방법

상기 고용 조건들을 보다 상세한 고용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상세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고용주와 종업원 간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보너스 지급의 재량 권이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등과 같은 발생 가능한 분쟁 사항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특히 상위직 종업원과의 고용 계약 시 이러한 상세한 고용 계약서의 작성 이 권고되며, 고용규모가 클 경우 법률회사로부터 계약서 내용을 자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종업원의 법적 보호권(mandatory rights)

영국의 고용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고용 조건에 관한 문서를 종업원에 전달해야 하며, 이러한 고용 조건은 법령이 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 또는 법적 보호권은 종업원의 국적에 관계 없이 통상 영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종업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

- 고용 만료 통지권(right to notice of termination): 1 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 주의 고용 계약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통지 기간은 2 년의 근무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매년 1 주씩 증가(최고 12 주까지)한다. 즉, 1 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최소 1 주의 고용 만료 통지 기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 평등 지급권(right to equal pay for equal work): 지급 평등법(Equal Pay Act 1970)에 따르면, 모든 종업원은 동일한 업무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유급 휴가권(2009 년 4 월 1 일 이후): 종업원은 최소 연 5.6 주(28 일)의 유급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다.

○ 최저 급여(minimum wage):

비고	기존(2010년 3월)	2011년 4월 현재
22세 이상	시간당 £ 5.80	시간당 £5.93
18~21세	시간당 £ 4.83	시간당 £4.92
16~17세	시간당 £ 3.57	시간당 £3.64
주택보조	하루당 £ 4.30	-

○ 비정규직 근로자(Agency Workers)의 지위 향상

- 영국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법을 제정하였다.
- 이 법은 정규직 근로자가 12 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적용되고, 이 법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 포함되는 혜택으로는 유급 병가, 연금 등 있다.

○ 출산, 육아관련 휴가

- 영국정부는 출산, 육아관련 휴가에 대한 여성근로자 권리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발표하였다.
- 이 법은 2008 년 10 월 5 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여성들에게 적용되고, 이 법은 고용주들 에게 많은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출산 휴가는 총 52 주로 26 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 주의 추가 출산휴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의 경우 26 주 기본 출산휴가 기간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 하던 인센티브(개인의료보험, 생명보험, 회사 자동차, 육아 지원금)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총 52 주의 출산휴가의 모든 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출산휴가 기간의 실적 보너스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타협이 필요하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다.

○ 성차별 금지법 강화

- 영국 정부는 1975 년부터 성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 정부는 강화된 성차별 금지법을 2008 년 4 월 6 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 강화된 주요 내용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이 아닌 제 3 자에게서도 성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가 임신,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의의를 제기할 시, 임신전의 대우와 임신후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진다.
- 근로자가 26 주의 추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고용주는 그 이전과 같은 대우(각종 혜택)를 제공해야 하고, 근로자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 명시 조항(express terms)

법령에 강제된 종업원 법적 보호권이 충족된다면 고용주와 종업원은 기타의 고용 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 조항에 대한 합의는 구두 또는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문서를 통해 향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논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명시 조항 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비밀 유지 조항: 종업원은 업무상 지득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경쟁 금지(non-competition) 조항: 종업원은 고용 만료 후 고용주의 경쟁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종업원이나 고객을 유인해서는 안 된다.
- 지적재산권 조항: 종업원이 고용 중에 개발한 각종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고용주와 종업원 중 누가 보유하는가에 관한 사항이다.

□ 묵시 조항(implied terms)

일부 조건들은 법령에 의해 계약서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고용주와 종업원간 상호 신의성실 의무는 이러한 묵시 조항 중 대표적인 것이다.

□ 위임 조항(incorporated terms)

종업원의 고용과 관련된 조건들을 다른 문서의 고용 관련 부분에 위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에 위임한 것이 좋은 예다. 위임 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종업원을 대신하여 급여 수준, 유급 휴가 일수 등을 협상할 수 있다.

3) 고용 종료(Termination of employment)

고용주가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용 종료와 관련된 종업원의 권리이다.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종업원이 계약 상 또는 법령 상의 고용 종료권을 갖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 상호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
 -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낮다
 - 고용 계약서상 고용 기간의 종료이다.
 - 고용 계약서에 고용 기간을 명시한 경우, 동 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고용 관계가 종료 되는 경우로, 종업원은 이에 불구하고 적법한 소송 제기 가능하다.
- 종업원의 자발적인 시작
 - 종업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정한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 고용주가 계약상의 고용 종료 통지를 하는 경우
 -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 따라 종업원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하는 경우, 이에 불구하고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해고
 - 고용주는 고용 계약 종료를 종업원에게 적절히 통지함으로써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은 종업원의 근무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통지 기간은 계약상 통지 기간이나 법정 최소 통지 기간 중 긴 기간이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또는 계약서상 통지 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종업원은 타당한 기간 동안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통지 기간은 관련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항상 법정 최소 통지 기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 고용 계약에 의하여 통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복리 후생비가 있다면 복리 후생비 포함)을 함으로써 통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주들은 종종 계약서상 언급이 없지만 통지 기간 동안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함으로써 통지 기간 없이 계약을 종료한다. 통지 없이 그러한 지급을 할 계약상의 권리가 없는 경우, 이는 기술적으로 계약위반이 되며 종업원에게 수당 지급이 사실상 손해배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당 해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 종업원이 계약서상 의무를 매우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예: 중과실), 고용주는 통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이 즉시 통지(summary notice)로 고용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계약서 상에 즉시 해고에 대한 특정한 상황을 기재할 수 있다. 종업원은 부당한 해고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고용 계약 종료 시 수당: 종업원은 정리 해고에 의한 고용 종료의 경우가 아니면 고용 종료 시 법정 수당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종업원이 정리 해고로 해고된 경우, 동일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법정 정리 해고 수당(statutory redundancy pay)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정리 해고수당은 주급(현재 최고 270 파운드)에 근무 연수(현재 최고 20년)와 연령 요인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현재 최고 법정정리 해고수당은 8,100 파운드이다. 종업원은 또한 특정한 경우 고용 계약 종료 수당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향상된 정리 해고 정책을 운영할 경우, 계약 상의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있는 경우, 종업원은 법정 정리 해고 수당 외에 퇴직 수당과 같은 혜택을 갖게 될 수도 있다.
- 공정 해고 조건(이유)
 - 무능(capability). 예를 들어, 종업원이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바람직하지 않은品行(misconduct)
 - 정리 해고(redundancy). 보통 고용주가 전체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중단한 경우, 특정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적어진 경우, 또는 특정 위치에 필요 없는 경우)
 - 불법 행위(contravention of a statutory enactment)
 - 기타 해고를 정당화하는 상당한 이유(some other substantial reason)
- 부당 해고
 - 고용주가 정당한 통지 조치 없이 종업원을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일방적인 해고 조치가 종업원의 심각한 부정 행위에 기인된 것이 아닌 이상,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위반한 것에 해당, 고용주는 통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와 복리 후생 급여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종업원은 적법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인정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 고용주가 고용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종업원은 사임하고, 이러한 사임이 고용주에 의한 부당한 해고 조치임을 주장할 수 있음. 이러한 고용주의 심각한 위반의 예는 직급의 하향 조정 및 일방적인 급여 삭감 등이 있음. 종업원은 고용주의 고용 계약 위반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4) 노동시장 통계

내용	2008년	2009년	2010
16세 이상 고용 인구수	29,443,000 명	28,860,000 명	29,157,000 명
고용율	74.5%	72.2%	70.5%
총 노동 가능 인구수	31,661,000 명	30,750,000 명	
주간 총 노동자 근무시간	940.7 백만시간	908.2 백만시간	
16세 이상 실업자 수	1,776,000 명	2,449,000 명	2,529,000 명
실업률	5.7%	7.8%	8.0%
신규 일자리 수	617,000	480,000	
해고자(Redundancies) 수	163,000 명	168,000 명	141,000 명

자료: 통계청 (Labour market statistics)

5) 노무 관리 유의 사항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법적인 권리는 주로 영국의 판례법에서 파생한 계약법과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고용계약은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일정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많은 영국의 법령이 EU지침의 요구에 따라 발효되었으며, 유럽 법원의 판결이 영국에서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고용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영국에서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보편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발상이며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나. 사회보장 제도

-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과 국민 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로 나누어진다. 동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국인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민보험

- 국민보험은 소득세와는 별도로 소득에 부과되는 강제 보험으로 보험료는 국민보험국(DSS)을 대신하여 국세청(Inland Revenue)에서 징수한다. 보험금 납입 후 65 세 이상 남자, 60 세 이상 여자로 당시 영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연금 형태로 보험금 혜택을 받게 된다.
- 종업원 부담분: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된 경우 영국에 도착 후 최소 52 주간에 대해서는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동 면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영국통상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
- 고용주 부담분: 고용주 부담분은 종업원이 국민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그러므로 최소 52 주간의 면제 기간에는 고용주 부담분 납부 의무가 없다.

8. 조세제도

가. 일반 사항

2005년 4월 18일 이후 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청(HM Customs & Excise)이 통합되어 HMRC(HM Revenue & Customs) 가 새로 출범하여 업무를 통합하게 되었다.

영국 정부의 주요 세제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세제

- 직접세 (Direct Taxes)
 - 자산소득세 (Capital Gains Tax)
 - 법인세 (Corporation Tax)

- 소득세 (Income Tax)
- 상속세 (Inheritance Tax)
- 사회보장세 (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 간접세 (Indirect Taxes)
 - 소비세 (Excise Duties)
 - 보험료세 (Insurance Premium Tax)
 - 석유세 (Petroleum Revenue Tax)
 - 인지세 (Stamp Duty)
 - 토지인지세 (Stamp Duty Land Tax)
 - 채권, 주식 인지세 (Stamp Duty Reserve Tax)
 - 부가가치세 (VAT)
- 세제 혜택
 - 아동 세제 혜택 (Child Benefit)
 - 아동 복지 기금 (Child Trust Fund)
 - 세금 감면 (Tax Credits)
- 기타 조세
 - 지방세 (Council Tax)

2) 소득세(Income Tax)

- 과세 연도: 매년 4. 6 ~ 익년 4. 5 일
- 과세 대상: 영국 내 소득 발생 내. 외국인
- 원천징수 제도와 소득 신고
 - 원천징수(PAYE, Pay As you Earn): 대부분의 영국 납세자가 이에 해당된다. 근로 소득과 경비. 후생적 급여 보고 체계를 통해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원천징수되기에 종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자진소득신고 (Self Assessment): 자영업자의 경우 SA form 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율

소득	소득세(예금소득제외)	예금 소득세	배당 소득세
£ 0 ~ £ 2,560	해당없음	10%	해당없음
£ 0 ~ £ 35,000	20%	20%	10%
£ 35,001 ~ £150,000	40%	40%	32.5%

- 비과세 소득(Tax-Free Allowances)
 - 회계연도 2008/09 년 비과세 소득: £ 6,035
 - 회계연도 2009/10 년 비과세 소득: £ 6,475
 - 회계연도 2011/12 년 비과세 소득: £ 7,475
 - 65 세 이상인 개인은 더 높은 비과세 소득에 적용된다.

3) 법인세(Corporation Tax)

○ 법인세율

Rates for financial years starting on 1 April				
	2008	2009	2010	2011
Small Companies Rate*	21%*	21%*	21%*	20%
Small Companies Rate can be claimed by qualifying companies with profits at a rate not exceeding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Lower Limit	£300,000	£300,000	£300,000	£300,000
Marginal Small Companies Relief Upper Limit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Marginal Small Company Relief (MSCR) Fraction	7/400	7/400	7/400	3/200
Main rate of Corporation Tax	28%*	28%*	28%*	26%*
Special rate for unit trusts and open-ended investment companies	20%	20%	20%	20%

○ 법인 신고

- 회사가 영국 회사 등기소(The Registrar of Companies)에 등록을 하면 동 사실이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에 통보되며, 영국 국세청은 통상 CT41-G 서식을 당해 회사로 발송한다.
- 영국내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 지점 및 영국 자회사의 법인세상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사무소가 지점, 대리인 또는 조세 조약상의 고정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즉, 영업상의 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국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 지점(Branch): 지점이 영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소득에 대해 영국 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다. 지점의 소득이란 영국에 귀속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 영국 내 자회사(Subsidiary): 해외 법인의 영국 자회사는 영국 거주 법인이므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서 영국에서 법인세를 부과한다. 단,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일정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회사라도 영국에서 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 회사라면 영국 거주법인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영국에서 과세된다.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자진신고 납부제도(Corporate tax self-assessment: CTSA)에 따라 법인이 회계기간(4.1 ~ 익년 3.31) 말일로부터 12 개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 자진신고 제도로 변경 이후 이전세(Transfer Pricing)와 해외 관계회(CFSs: Controlled Foreign Companies) 세액 등에 대한 책임은 신고 회사가 지도록 되어 있어 진출 법인들은 세금 신고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사전에 전문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세무조정사항(세금 공제)
 - 세무상 감가상각비(capital allowance)
 - 접대비
 - 자본적 지출(법률 비용, 수선비, 특허, 상표권 관련 비용) 등

4) 부가가치세 (VAT)

- 영국정부는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VAT 를 인하하여 2009 년 VAT 세율은 15%이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2010 년 1 월 1 일 이후로 17.5%로 인상되었다가 현재 2011 년 한시적으로 20.0%로 재 인상되었다.

나. 유의 사항

- 한국 기업 및 한국인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현지의 법률이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공인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 및 회사의 관리 담당자는 연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련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외부 용역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 회사 형태의 종류에 따라 관리 업무 대상 범위는 조금씩 상이하지만 법인세, 부가가치세, 회계/감사,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원천징수 절차(PAYE), 국민보험 및 개인 소득세 등 사업 관리상 필요한 기본 사안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일반 사항

1979년 10월 24일부터 금융, 보험 등 서비스 부문의 흑자 확대를 겨냥, 정부의 외환 통제를 전면 철폐하고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의한 환율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누구나 목적에 관계 없이 자유로이 외환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자유로이 파운드화를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금 또한 자유로이 매매될 수 있다.

나. 과실 송금

영국은 외국 투자가가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금의 대외 송금, 곧 과실 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당, 원본, 이자, 로열티의 송금이 자유롭다.

다. 현지에서의 자금 조달 제도

1979년 10월에 외국 외환 규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국내 자금, 해외 자금 모두 무제한으로 조달 가능하다. 이는 파운드에 한정되지 않고 유로, 미 달러 등 외국 통화도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외국 기업의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다.

단, 금융 기관과의 각각의 거래에 따라 조건은 다르고, 모회사로부터의 보증이나 그 외 다른 형태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다. 대외 차입에 대해서도 규제는 없고 영국 통화 이외의 외화로도 차입도 가능하다. 단, 국제 연합이나 유럽 연합의 정치적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되고 있다. 또한 통상의 유가 증권이나 금융 상품의 규제는 없고,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은 없다.

현지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신규사업 등록자나 기 영업중인 사업체들을 상대로 폭넓은 사업자금 대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자금조달 필요 시 현지 거래은행이나 전국 상업금융중개인협회(NACFB)에 등록된 브로커를 통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며 한국 업체들의 경우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들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국내 은행 현지 법인 및 지점들의 경우 보통 개설 3년 미만의 현지 업체에 대한 최초 대출 시는 한국 본사의 보증을 요청하는 예가 많으며 향후로는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한 등급에 따라 대출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현지 지사의 경우 올 4월 말부터 시행되는 신용보증기금 출연료 부과에 따라 대출 시 기존 대출 금리에 0.36%의 추가 금리인상 효과가 있어 대출 부담이 더할 전망이다.

라. 주재 한국 은행 리스트

- 국민은행 런던 현지 법인
 - 6th Floor, Princes Court, 7 Princes Street, London EC2R 8AQ
 - 전화: 020 7710 8300
 - 팩스: 020 7726 2808
- 기업은행 런던 지점
 - Leaf B, 38th Floor, Tower42, 25 Old Broad Street, London EC2N 1HQ
 - 전화: 020 7847 5590
 - 팩스: 020 7374 2693
- 신한은행 런던 지점
 - 3rd Floor, 51-55 Gresham Street, London EC2V 7HB
 - 전화: 020 7600 0606
 - 팩스: 020 7600 1826
- 우리은행 런던 지점
 - 9th Floor, 71 Fenchurch Street, London EC3M 4HD
 - 전화: 020 7680 0680
 - 팩스: 020 7481 8044
- 한국산업은행 런던 지점
 - 99 Bishopsgate, London EC2M 3XD
 - 전화: 020 7426 3550
 - 팩스: 020 7426 3555
- 한국 수출입은행 런던 현지 법인
 - Boston House, 63-64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6XB
 - 전화: 020 7562 5500
 - 팩스: 020 7588 3642

- 한국외환은행 런던 지점
 - 30 Old Jewry, London EC2R 8EB
 - 전화: 020 7325 6633
 - 팩스: 020 7606 9968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비자 특성

-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국민성의 영향으로 브랜드 충성도와 비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었으나, 수입 규모의 확대와 유통 채널 간 가격 경쟁으로 시장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 구매 시즌
 - 영국이 식품 류 및 서적류, 아동 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20%의 높은 부가 가치세와 고 마진 유통 구조로 인해 물가가 비싼 관계로 소비자들은 부활절, 성탄절, 여름과 겨울의 정기 대 바겐세일 시즌을 많이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한다.
 - 정기 대 바겐세일: 여름(6 월말~8 월말), 겨울(11 월말~1 월말)
 - 시즌 특수: 부활절(4 월), 학교 개학시기(1 월과 9 월), 성탄절(12 월)

나. 한국 상품 인지도

- 한국의 국가적 브랜드 이미지의 상승과 더불어 상품에 대한 인지도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 삼성, LG 는 핸드폰과 LCD/플라즈마 TV 시장에서의 연이은 판매 성공을 거두며 전자 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도 자사 제품들이 고객평가에서 호평을 누리고 있다.
- 그 외 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도 단순히 저가의 아시아 국가 생산품이라는 인식보다는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다. 유통 채널

- 최대 소비지인 런던을 중심으로 한 남동부 지역, 맨체스터 및 버밍엄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글라스고우 등 북부 지역으로 상권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시장 성격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국 유통시장 특징으로서 다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1) 고 마진 시장

전통적으로 유통 단계가 복잡하고 마진이 높아 유럽국과 가격 비교 시 동일 제품일 경우 평균 30%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불만 고조에 따라 영국 정부도 자동차 및 유명 브랜드 제품의 회색 수입 시장(Grey import) 규제 완화 등 유통 마진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펴고 있다.

2) 보수적인 거래 관행

기존 거래선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입선을 바꾸지 않으며, 또한 최종 계약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인내가 요구된다.

그러나 일단수입상과 신뢰관계를 구축하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3) 소비자의 개방적인 구매 태도

상품 거래 시 상품의 질과 내용을 중시할 뿐 어느 특정 지역의 제품 또는 자국 상품을 선호하는 등의 배타 감정이 없으며, 개성 있는 상품 구매를 선호하여 대부분의 거래는 소량, 소액, 다품종 주문 형식을 띠고 있다.

4) 제 3 국 조달 시장

과거 광범위한 식민지를 경영했던 국가로서 현재까지도 영연방 국가들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구매 조달 시장으로 막강한 영향력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조달 품목은 중고 자동차, 건설 자재를 비롯하여 의류, 모조 장신구, 신발 등 일반 비내구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바이어들은 해당 국가에 본사를 두고 런던에는 1-2 명의 구매 담당자가 buying office 를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 국가 바이어들과 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L/C 계약 체결이 바람직하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유통 구조

- 영국 소매시장 분류는 기준 산업 분류(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에 따라 소매상을 Division 52 (Retail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Personal and household goods)로 분류되며 취급 품목에 따라 7 개의 소그룹으로 세분화된다.
 - 52.1: Retail sale in non-specialised stores
 - 52.2: Retail sale of food, beverages and tobacco in specialised stores
 - 52.3: Retail sale of pharmaceutical and medical goods, cosmetic and toilet articles
 - 52.4: Other retail sale of new goods in specialised stores
 - 52.5: Retail sale of second-hand goods in stores
 - 52.6: Retail sale not in stores
 - 52.7: Repair of personal and household goods
- 52.1 그룹에 포함되는 소매상을 일반적으로 Grocery Store 라 칭하며 이중 대형 소매 유통점을 Leading Grocery Multiples, Major Multiples 또는 Multi-outlets 으로, 중간 소매 유통 체인점을 Smaller Multiples 으로, 소규모 개인 상점을 Independent Grocery Store 로 분류된다.

- 52.1 그룹을 제외하고 52.2, 52.3 또는 52.4 그룹에 포함되는 전문점들은 주로 Specialised Convenience Multiples 로 호칭된다.
- 최근까지 영국 소매 시장은 유럽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고 마진이 높은 분야로 인식되어 왔으나 소매 시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라. 2011년 히트 상품

1)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

영국 내 휴대폰 사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판매업체의 다양한 단말기 판매 옵션 및 기기 업데이트 기회 제공으로 인해 현지 휴대폰 단말기 판매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단말기 시장은 인터넷접속이나 e-메일 송수신 기능 및 각종 사무 네트워킹 기능이 강화된 PDA/스마트폰 제품시장과 휴대성 및 디자인적 요소에 비중을 둔 슬림형 카메라폰 시장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전자는 주로 비즈니스맨들이 후자는 여성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다.

2008 년부터 현재 영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애플의 iPhone 은 판매 전부터 이미 전세계 휴대폰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해 온 바 있으며 그동안 영국 휴대폰시장 점유율 1,2 위를 다투던 한국기업에서의 수입이 2010 년 1-4 월 2009 년 동기 대비 16% 이상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애플사가 만든 태블릿 컴퓨터 아이패드(iPad)는 아이폰과 같은 iO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개발 업무용 프로그램 아이워크 등을 보강한 것이 특징으로 2011 년 3 월 아이패드 2 가 영국에 출시되었다.

영국에서 공식적인 판매수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트북과 넷북 시장의 판매율에 영향을 줌으로써 타 경쟁회사 HP, Acer 그리고 Dell 사의 판매수익이 10% 이하로 하락하였고 아이패드 영향은 향후 2014 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초경량 친환경 전기 자동차

최근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가 지구촌 최대의 걱정 거리가 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의 환경 오염 억제 및 친환경 정책 추구, 친환경 기술 개발 노력 등이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되고 있다.

특히 영국 내 런던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친환경 교통 정책은 차량의 배기 가스량별 차별화된 자동차세, 도심 혼잡세, 주차비 징수를 계획하고 있어 향후 차량 판매/구매 패턴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계속된 물가상승에 따른 대중교통비 및 차량 관리 비용의 인상 또한 경차 및 전기차 구매 증폭의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선두 제조업체들이 친환경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Ford사의 경우 향후 10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자사 브랜드인 Ford, Jaguar, Land Rover, Volvo 등 전 차종의 친환경적 기술 개발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도심형 전기 승용차의 경우 배기가스 0%의 친환경 차량으로 자동차세(Road Tax) 면제, 런던 내 혼잡세 면제 및 주차비 면제/할인 혜택, 저렴한 운용 비용(1.5펜스/마일)을 내세워 런던 시민을 중심으로 큰 호응이 있을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3) 자전거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절감과 고유가 시대에 연료비 절약효과, 그리고 환경 및 건강 증진의 효과로 2011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 상반기 자전거 판매율은 2009년 이후로 20%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히트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영국정부는 2008년부터 3년간 1억 4000만 파운드 예산의 Cycling England 프로그램을 통해 Cambridge, York, Derby 등 11개 자전거 도시 건설과 Great Bristol을 공식적인 영국의 자전거 도시로 개발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Cycling England 정책과는 별도로 런던시는 2010년 6월 30일, 시내 44km² 구간에 걸쳐 5000대의 대여 자전거 및 315개의 정거장을 설치하는 자전거 대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바클레이스 은행(Barclays)이 이 프로그램 운영자금의 25%를 후원하여 파란색의 바클레이스 로고가 특징이며 실시 10주만에 백만 회수를 돌파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10년간 5억 파운드를 투자할 런던 자전거 도시화 계획의 일부이며,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된 파리, 리옹, 브뤼셀, 바르셀로나 등의 자전거 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보완 및 업그레이드로 런던이 유럽 최고의 자전거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기반시설 투자에 힘입어 영국의 자전거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전거뿐만 아니라 관련 액세서리, 안전용품 등 자전거 보수와 기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상품 및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한국기업의 진출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유망 상품

품목 명	추천 사유	경쟁국
자동차용 타이어	○ 영국의 연간 타이어 교체수치는 약 300 만~350 만개 지만 영국자체 생산 규모는 200 만개로 파악, 수요 충족을 위해 나머지 수치는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 - 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타이어 수입 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2008 년 전체 시장에 9.7%, 시장 점유율 4 위를 나타냄. -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입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	독일, 프랑스, 중국
스마트 미터기	○ 영국 정부는 2020 년까지 2,600 만 전 가구에 가스 및 전기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여 탄소배출량을 현재의 1/3 으로 감소할 계획 - 영국 가정에 스마트 미터기 설치에 따른 예상 비용 70 억 ~ 90 억 파운드 - 또한 오는 2030 년까지 지능형 전력망 관련 시장에서 2 조 9,880 억 달러의 수요가 창출되어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국제적인 녹색 성장 산업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	미국, 영국, 프랑스
의료 기자재	○ 영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Bio 산업 보유 - 유럽전체 바이오기업 25%인 270 개사, 종사자 4 만 명 ○ 의료기기 시장 규모 확대 추세 - 영국의 의료기기 수입액(2004 년): 52 억 달러 - 한국산 수출액: 1 억 6,000 만 달러 ○ 세부 유망 품목: 의료용 모형, 의료용 재료, 의료용 또는 수의용 기기, 의료용 소모품, 기타 의료용 기기 등	고가: 독일,미국,영국 저가: 중국
조선 기자재	○ 영국 내 수리조선관련 조선 기자재 및 선박부품 수요 다대 ○ 한국 선박 수출의 후방 효과 모색 - 한국의 선박 대영 수출액(2004 년): 4 억 4,900 만 달러 ○ 유망품목: 선박건조부자재, 관련 기기, 수리조선 관련 밸브, 펌프류, 엔진 부품, 와이어 로프류, 선박용 소화 기기 등	노르웨이,스페인,일본
디지털 라디오	○ 급격한 보급 속도 - 영국의 디지털방송협회(DRDB: DigitalRadio Development Bureau)는 처음 보급된 지 7 년을 맞는 2008 년경 영국가구의 28%정도가 디지털 라디오를 보유하리라 확신	영국인원천기술보유, 다른 제조국 통해 소싱
공예 도기 제품 (Craft Ceramic ware)	○ 영국의 Ceramic Ware 전체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공예품(Craft Potters)시장만은 지속적인 상승세 - Ceramic Ware 의 주종인 식기류 소비 감소 이유는 영국 소비자들의 선호가 종전 formal dinner set 에서 individual piece 로 변화됨에 따른 것으로 공예품의 증가는 공예품을 선물용품으로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에 주목	고가: 영국현지업체,독일 저가: 중국 등
GPS 이용한 위치 추적 장치	○ GPS 기술을 응용한 감시 장비 관련 기술의 발달이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안심 욕구를 충족시킴. 자유권의 제한 등 반론이 있지만, GPS 기술을 이용한 아동추적 장치는 시장에 출시될 경우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미래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미국

2. 물가정보

(1 GBP = 1.64 USD, 2011년 4월 7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USD)
식품류	쌀 1kg	2.62
	계란 12개	5.41
	쇠고기 등심 1kg	26.24
	돼지고기 등심 1kg	12.00
	우유 500ml	0.82
	식용유 1L	2.46
	생수 1L	0.65
	맥주 (스텔라캔 440ml, 4팩)	7.85
	담배 1갑 (말로로)	11.21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3.3
	김치찌개 1인분	11.48
의료비	의료보험비 (4인 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 의료보험 x	무료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무료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28,000.00
	무연휘발유 1L	1.69
	자동차 등록비	90.20
	자동차보험료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1년)	1312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7.34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6.56
	시내버스 기본요금	3.60
	택시 기본요금	3.60
통신	시내전화 요금 (1분)	0.04
	국제전화 요금 (1분, 한국으로 걸 때)	2.64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33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32.8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Bedroom, 런던 평균, 4월 기준)	2432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 사립	2215.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 사립	2215.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 사립	2215.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 사보이호텔 기준	66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120.00
임금/노무	대졸초임(중상급대졸,영어구사,외국인회사) 초임월급여	3,437.00
	일반 사무직(학력무관)	2,277.75
	매너저급 급여 (프로젝트 매니저, IT)	6,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26주
	연간 국경일수 - bank holiday 기준	8일
	주5일 근무 여부	유
기타	드라이클리닝 (정장 1벌 기준)	16.48

자료: 영국 통계청

3. 바이어 발굴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영국 내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방법으로써는 각 산업별 전문 협회나 기관, 그 외 전문 잡지 등 매체 그리고 전시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며 이와 관련된 산업별 대표 기관의 연락처 등은 보통 영국의 상공부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혁신기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 사이트(<http://www.bis.gov.uk>)나 CBI의 'Trade Association Forum' 사이트(<http://www.taforum.org>) 등을 통해 산업별, 이름 별로 확인 가능하다.
- 영국에서 개최되는 연중 전시회 정보와 관련해서는 'Trade Fairs & UK Exhibitions' 사이트(<http://www.exhibitions.co.uk/index.html>) 등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보통 영국내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각종 비즈니스 검색사이트 및 회사 디렉터리제공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그 외 각 산업이나 제품별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 협회나 기관의 사이트를 통해서도 회원 리스트나 관련 업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표적인 비즈니스 검색 & 회사 디렉터리 서비스
 - Kompass: www.kompass.com
 - 1st Directory: <http://www.the1stdirectory.com/>
 - Kelly Search: www.kellys.co.uk
 - Ask Alix: www.askalix.co.uk
 - Yellow Page: www.yell.co.uk
 - Apple Gate: www.applegate.co.uk

다. 참고 사항

영국의 바이어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신규 오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단기간에 공략하기보다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비즈니스 에티켓

1) 상담 전 준비 사항

- 먼저 바이어 조사를 시행한 후 세일즈 출장을 실시
 - 영국은 심지어 동일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유럽 국가와는 시장성이 전혀 다를 수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 부품류 수출 업체의 경우, 영국의 제조업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고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각종 부품을 직접 수입하지 않고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를 통해 공급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규모가 있고 유능한 디스트리뷰터나 에이전트 발굴이 중요하다.

- 세일즈 출장 시에는 기계 및 도구의 경우는 제품 성능을 시현하기 위해(핸드 캐리가 가능 할 경우) 샘플을 지참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밖에 모조 장신구, 안경테 등 잡화의 경우 에는 바이어가 선호하는 디자인 및 재질 위주로 샘플을 구성하여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철저한 회사 및 제품 소개 자료 구축 필요
 - 영국 바이어를 처음 접촉할 경우 항상 요구하는 것이 영문 카탈로그, 가격표 및 샘플, 영문 홈페이지 주소 등으로 이와 같은 회사 및 제품을 소개할 자료가 없을 경우, 비즈니스 진행에 차질이 있으므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영문 카탈로그나 영문 홈페이지 등은 반드시 구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료 상의 영어 표현은 반드시 Native Speaker의 감수를 받아 오타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으로 회사의 격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
- 상담시 영어표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부정적인 상담 결과를 초래하는 예가 많다. 따라서 필요시 현지사정에 밝고 영어가 유창한 통역원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통역원 이용은 KOTRA 의 ‘세일즈 출장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현지 학생커뮤니티 홈페이지나 각 대학교 한인학생회 등을 통해 직접 통역원을 찾을 수 있다. 상담장소(이동 거리)나 시간, 난이도, 통역지원 범위 등에 따라 통역비는 차이가 있으나 보통의 경우 일일 통역료는 100~150 파운드 수준이다(9~5 시 근무 시간 기준, 교통비/숙식비 별도).

□ KOTRA 가 추천하는 바이어 선물

- 대부분 영국인들은 사업 상 파트너나 동료들과는 선물을 주고받지 않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선물을 하는 경우는 있다. 이 경우에는 금, 은, 자기에 기념 문구를 새겨서 선물하거나 기념 문구를 새긴 펜, 책, 꽃, 와인 또는 샴페인 등의 품목부터 식사 대접 및 공연 관람 등도 좋은 선물이 된다.
-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의 경우 카드를 보내는 것이 좋으며, 만약 영국 업체로부터 먼저 선물을 받았을 경우는 저녁을 초대하거나 고급 와인 또는 샴페인을 선물하도록 한다.
- 영국 가정에 초대를 받았을 경우 와인, 꽃, 초콜릿을 선물한다. 양주의 경우는 취향의 차가 심한 편이어서 좋은 선물 품목은 아니다. 꽃을 선물할 시 되도록이면 빨간 장미, 하얀 백합 또는 국화는 선물하지 않는다.
- 영국인 가정에 머물 경우라면 한국에서 기념품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미처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영국인 가정에 필요하거나 어울릴 만한 선물을 추후 우편으로 보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귀국한 후 영국인 가정에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도 예의 이다.

2) 상담 시 비즈니스 매너 및 유의 사항

- 충분한 명함과 사전 마케팅 자료 준비는 필수이다.
- 사전 약속 없는 회사 방문은 결례이다.
 -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 5일제 근무를 하며,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 점심 시간은 오후 12시에서 2시 사이이다(은행의 경우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임).

약속은 보통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내에 하는 것이 좋으며 약속을 하지 않고 직접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큰 결례이다. 또한 부활절(3월 말~4월 중순), 여름 휴가 기간(7~8월)과 크리스마스와 새해(12월 중순~1월 첫째 주)에는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약속 시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찬과 같은 Social Event에 초대받을 경우에는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대중 교통 시설이 노후화된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 복장은 검정, 진한 곤색 및 회색 계통의 줄무늬(pinstripe)가 좋다.
 - 주로 검정, 진한 곤색, 진한 회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주로 입으며, 전통적인 세로의 가는 줄무늬도 자주 착용한다. 요즘은 금요일만 스마트 캐주얼(Smart Casual)을 허락하는 회사들이 늘고있다. 일반적으로 고급 호텔이나 음식점에는 식사를 할 경우에도 자켓과 넥타이를 착용해야 한다.
-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면 결례이며 신분에 따른 호칭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주로 이름을 부르지만,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면 큰 실례이므로, 상대방이 이름을 부르자는 제안을 해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한다. 여왕, 주교, 장군 등과 같은 신분에 따른 호칭이 있는 경우나 공식 행사의 경우(예, Mr. Chairman, The Commander-in-chief, The Prime Minister)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명함에 나와 있는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Mr. 여성의 경우는 결혼 관계가 확실치 않을 시 Ms.라는 타이틀을 사용한다. 작위를 받은 남성의 경우 'Sir', 부인은 'lady'라는 호칭을 쓰며 작위를 받은 여성의 경우 Dame을 붙인다. 그 외 Dr. Professor 등의 타이틀이 있다면 그대로 칭하는 것이 예의다.
- 중요한 사업상 면담은 점심 때 하라.
 - 예전과는 달리 중간 경영자들은 스텝들과 함께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거나 자신들의 자리에서 샌드위치와 물로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 공공 자리에서는 중대한 사업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여흥은 레스토랑, 펍, 카페 등에서 이루어진다. 펍에 갈 경우 보통의 경우 1 파인트, 원할 경우 하프(1/2) 파인트를 주문한다. 보통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한 사람씩 돈을 지불한다. 가격은 1파인트에 약 3파운드 수준이며 대표적인 맥주로는 스텔라, 크로넨버거, 포스터, 기네스 등이 있다(pub에 따라 카드 지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현금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한국과는 달리 선채로 이야기하면서 마시는 경우가 보통이며 푸짐한 안주보다는 가볍게 땅콩이나 칩스(크리스프스)를 선호한다. 식사 시간대에는 저렴한 맛도 괜찮은 요리를 제공하는 펍들도 많다. 상대방을 초대할 시에는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직급의 사람들을 초대하며 초대받은 사람이 언급하지 않는 한 사업과 관계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자.
 - 좋은 주제 예) 날씨, 운동(특히, 축구나 럭비) 동물(상대의 취향 확인 필요), 영국의 역사, 문화, 문학, 예술, 대중음악, 현재의 시사, 영국에서의 좋은 경험, 음식. 맥주
 - 피해야 할 주제 예) 북아일랜드, 종교, 영국 왕실과 왕족, 극우/좌파적 정치, 유럽 연합, 중동, 개인의 배경, 계급과 계급 시스템, 인종과 이념 관계, 성(특히 동성애 관련)

- 영국인들은 특별한 형식이나 방향 없이 자유분방하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전통에 입각한 것이다.
- 영국 기업인들은 선례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담에 임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프로필 등을 미리 조사해 보는 것도 좋다.
- 영국인들은 통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확실한 예들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므로,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적 감정 등을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담시 만약 회의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직설적 표현은 자제해야 하며 지나친 의사 표출이나 강제적 답변은 관계자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영국인들은 제 3 자를 통해서 소개 받는 것을 좋아하나 만약 그것이 불가피한 경우 스스로 소개를 하는 것이 좋다. 보통 남성끼리는 자연스레 악수를 하며 상대 여성이나 남성과는 주로 유렵식(뺨을 대는 인사) 인사나 가벼운 악수를 건넨다. 상대 여성이 취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대처하면 되며 유렵식의 경우 두손으로 양 어깨를 가볍게 감싸고 양쪽 뺨을 번갈아 대며 가벼운 입술음을 낸다.

나. 문화적 금기사항

- 영국의 지역별 차이를 이해하라.
 -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영제국 또는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포괄하는 나라이다. 위의 지역들은 각각 특이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 이유로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하다. 따라서 스코틀랜드인, 웨일즈인 그리고 북아일랜드인에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잉글리쉬’라고 말하는 것은 큰 결례가 된다. 상대방의 출신 지역을 확인한 후 적절한 단어(스코티쉬, 웰쉬, 아이리쉬) 사용 및 이야기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칭으로는 ‘브리티쉬’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 영국인은 중립적이고 내성적이다.
 - 중립적인 성향으로 타인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꺼리며 특히 간섭받는 것을 불쾌하게 여긴다. 따라서 상담 및 대화 시 어떤 경우라도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한다. 부득이 한 경우라면 반드시 양해를 구하도록 한다. 또한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내성적이어서 대화 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몸짓을 많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 거리를 유지 하는 것을 좋아함으로 너무 큰 몸짓을 하거나 큰 목소리로 이야기 하는 것은 거부감을 줄 수 있다. 대화 시는 서로 눈을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보수적 경향으로 사업 간 장기적 신뢰 관계 선호
 - 영국 기업가들은 협력 업체 선정 시 지속적이고 장기간 쌓아온 관계를 선호한다. 따라서 1회성 계약을 위한 상술보다는 장기적 관계 형성을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다.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중요하다.
 - 정확한 수입(구매) 담당자를 파악하여 동 담당자의 개인 e-메일 주소 및 직통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알아내야 한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영국 기업은 세일즈, 마케팅, 구매 부문의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며 품목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서도

담당자가 다를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담당자하고 접촉 없이는 일의 진행이 전혀 안되며(담당자 부재 시, 휴가 시 다른 직원이 대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음) 담당자에게 권한이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규모가 작은 영국 기업 접촉 시에는 구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Managing Director(대표)를 직접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첫 접촉 시에는 우편으로 모든 자료를 송부한다.
 - 대부분의 한국 업체는 첫 바이어 접촉 시 팩스 1장이나 e-메일로 간략한 회사 소개 및 일반 적인 인사말 등을 보낸 후 관심 있을 경우 연락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접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영국 업체에게 좀처럼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 영국에서는 각종 광고물 등이 수시로 팩스나 e-메일로 접수되기 때문에 보통 중요한 서류 등은 번거롭지만 대부분 우편으로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좀 번거롭더라도 첫 회사 소개서 또는 거래 제의서를 영문 카탈로그, 가격표, 필요 시 샘플 등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훨씬 격식 있고 영국 기업에게 관심을 끄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와 같이 격식을 차린 모든 관련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 약 3주 후 팩스, 전화, e-메일 등으로 자료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서 검토 결과를 문의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 영국 바이어들의 관심사는 가격, 품질(인증획득유무), 딜리버리 기간 등 객관적 지표이다.
 - 첫 접촉 시 회사 소개를 할 경우 CE 마크나 ISO, BSI 등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일 경우에는 반드시 동 인증 획득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며 항상 유럽 산 제품 구매와 비교 시 비용 상의 유리한 점과 딜리버리 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고려하므로 CIF 가격 및 딜리버리 기간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영국 바이어들은 CE마크 획득 여부를 가장 많이 문의하며 일부 제품의 경우는 CE 마크보다 획득이 더 까다로운 BSI (영국 표준협회)의 KIT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제품은 ISO 인증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인증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 여부를 결정 할 때 아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 또한 회사소개 시 선진국 시장에 수출한 경력, 전문 제조 기술 보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일반적으로 회사 규모, 설립 연도, 연간 매출액, 제조 설비 등이 명기된 회사 소개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첫 교신부터 첫 오더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내가 필요하다.
 - 일반적으로 영국 업체들은 제품 검토서부터 첫 구매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기존 공급 업체와 비교, 확실한 거래상의 이점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 선을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 따라서 기존 공급업체 제품의 가격, 품질, 딜리버리 및 A/S 지원 여부 까지 세밀히 검토한 후 거래 선을 정하기 때문에 관심 표명 후 첫 거래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한 접촉을 해야 한다. 무리하게 검토 결과를 재촉하는 것은 관계 자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며 너무 재촉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
 - 또한 다품종 소량 주문이 많은 관계로 첫 거래부터 최저 주문량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바이어는 거래를 쉽게 포기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문화와 언어의 상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국내 영업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사의 제품을 외국에 팔아야 하는 해외 수출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마케팅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상대 업체와의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이다. 비즈니스가 결국 어느 한쪽이 아닌 서로의 이익을 위한 관계이지만 간혹 투자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히 하는 업체들도 있다. 하지만 언어가 다르고 또 그 내면에 깔린 문화가 다르기에 여러가지 오해나 실질적인 사업/제품 설명 부족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해외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테지만 유감스럽게도 막상 직접 업무를 수행할 때 그와 관련된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하는 예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영국에 살아본 적이 있거나 국가 정보를 접한 적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영국 이라는 나라는 그 성향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다. 그 보수성은 사회적/문화적 우월감에서 기인한 것이라 단순화해서 보면 무척 오만해 보이는 예가 많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어떤 만남에서도 쉽게 상대방에게 인상을 구기거나 싫은 내색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일명 영국 신사들이지만 막상 그 반응을 지레 오버해서 받아드렸다가는 낭패 보기 십상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영어의 본고장이 영국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영어가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은근히 답답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영국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야 기를 쓰고 들으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야 별 그럴 필요 없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나.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제품(특히 소비재)의 경우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음

영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를 지켜보면 특히나 IT 상품에 대해서는 특정 상표에 대한 선호도가 무척 분명한 편이며, 브랜드가 생소한 제품은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짙다. 이는 영국의 보수적인 국가 성향과도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 구매에 있어서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모험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고가라 하더라도 본인이 쓸 물건은 좋은 걸 쓰는 경향이 있어 Apple i-Pod같은 제품의 경우, 시장에서 별다른 경쟁자가 없다. 또한 제품이 어느 국가(NATIONAL ORIGIN, 원산지와의 별도)인지에 큰 관심을 가진다.

판매 업체들은 누구나 그러한 소비자들의 행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제품을 꺼린다. 우선 별도의 많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할뿐더러 그 연후에도 판매 성장에 대한 개런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제품의 시장성이 아주 탁월할 경우라도 바이어들이 선뜻 제품을 구입 하는 예는 없다. 마케팅 비용을 빌미로 터무니 없이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일이 예사인 것이다. 그 속에서 판매상은 일단 리스크를 포함한 충분한 고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초도 진출 및 마진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국 시장의 특성상 회사 및 제품의 브랜드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해외영업 인원으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시장 개척 지원이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성공 사례

1) 기술적 우수성 입증

M사는 디지털 사인 시스템과 POP(Point of Purchase) 업계의 선두 주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모바일 관련 특허를 포함, 모두 120여 개의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다. 연속된 GD마크 획득 및 다수의 수상 경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K사 등 주요 통신사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을 포함한 1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동사는 자사 주력 상품에 대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능 대비 가격 경쟁력 및 품질 안정성을 바탕으로 수출 성공을 이끌고 있으며 지속적 인 첨단 신제품 연구개발에 전력하고 있다.

디지털 셋톱박스 개발업체인 H사의 경우도 기술력으로 영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방송 매체의 디지털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97년 제 1세대 셋톱박스를 유럽에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 H사는 유럽, 중동, 미국, 아시아에 걸친 전 세계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북아일랜드에 현지 법인을 세우고 마케팅 기능과 생산 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유럽 시장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H사의 이런 성공 비결은 가격 정책에 따른 성장전략 보다는 축적 된 뛰어난 기술력에 근거한 고품질의 자체 브랜드 제품 판매를 통한 시장 개척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보안 통합 솔루션 제공 업체인 S사가 차별화된 홍채 인식 제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영국에 1,35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바도 있다

2) 디자인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

영국의 경우 디자인 산업에 있어 ‘실용적 디자인’을 강조하는 미국과는 달리 ‘공학과 디자인이 결합된 고품격 디자인’을 모토로 디자인 특화 전략을 수립해 디자인 선진국으로 서의 면모를 유지해 오고 있다. 실제 구매 담당자나 소비자들의 행태 또한 어느 나라 못지 않게 디자인적 요소에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영국 진출을 위해서는 영국 현지의 디자인 트렌드에 적합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되어야 한다.

한 예로, 한국의 대표적 도자기 회사인 H사는 ‘도자기 명품화’를 선언한 후 명품 도자기 세트를 출시하여 국내는 물론 도자기의 본고장인 영국에도 수출을 성공하였다. 이 회사는 우수한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지난 1995년에 디자인 스쿨 ‘프로아트’를 오픈했으며 각종 첨단 장비인 컴퓨터 색분해기, 드럼스캐너 등의 장비 지원과 디자인 부문의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해 왔다. 그러한 노력 끝에 디자인 분야에서 최고의 상인 ‘디자인 포장’을 수여 받음으로써 디자인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평가 받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동양적 분위기의 심장생 시리즈와 아라베스크 문양의 유럽 스타일은 이 회사만이 갖고 있는 디자인의 특징으로 유럽의 디자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은 현재 영국 주요 도자기 브랜드의 OEM을 비롯 50여개 국에서 안정적인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전자통신 시장에서도 점차 한국업체들의 디자인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단말기 시장에 있어 삼성과 LG 제품의 디자인이 명성을 얻고 있다. 올해 들어서 영국 내 많은 언론 매체들은 이미 LG 샤인(Shine)을 히트 예감 상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동 제품은 뛰어난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으며 경쟁 제품인 모토로라사의 RAZR스타일 보다 디자인 부문에서 더 높은 평점을 받고 있어 지난해 역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현지에서 '올해의 휴대폰'으로 선정된 바 있는 동사의 초콜릿폰에 이어 히트상품 등극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한편 삼성의 올 봄 출시 예정인 U100모델의 경우도 5.9mm 두께의 세계 초슬림형 디자인으로 관련 전시회를 통한 소개 이후 세계 주요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3) 현지 거점확보를 통한 빠른 딜리버리와 A/S 시스템 구축

부품 시장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나 제품 경쟁력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나 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빨리 조달 가능한 지역에 스톡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빠르게 A/S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투자에 따른 위험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설 장비를 납품하는 P사의 경우 적극적인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해 유럽 내 거점을 확보 하여 만족할 만한 애프터 서비스 보장, 신속한 딜리버리 등 바이어가 가장 관심있어 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국 시장 진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 무역 거래, 투자 진출 시 실패 사례

1) 영문 자료 미비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열세에 몰리는 한국 기업

영국 바이어들은 매우 자존심이 강하고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존심 강한 특성은 미국식 영어보다는 영국식 영어로 제작된 카탈로그를 선호하고 있으며, 거래 상대방의 영문 카탈로그에서 오자나 탈자, 잘못된 표현 등을 발견하면 그 기업의 능력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보수적인 성격은 아직까지도 e-메일을 통한 자료 제공보다는, 특히 첫 거래를 위해 접촉할 경우 제품에 관한 인쇄물 카탈로그, 가격 명세서, Spec 에 관한 자료 등 세트화 한 일련의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전 상대방이 제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자 하며, 이를 경쟁사들이 제시한 제품들과 비교해 보고 협상에 나서고 있다.

A 기업은 지자체 시장 개척단 일원으로 참가가 결정된 뒤 곧바로 무역관이 영문 카탈로그 등 자료 제공 요청 및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위해 연락을 하였을 때, 이제야 영문 카탈로그 제작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면서 A 기업이 시장 개척단 일원으로 현지를 방문하는 때에 바이어에게 제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였으며 이에 영문 홈페이지는 있느냐고 문의하였더니 영문 홈페이지는 제작할 여력조차 없다고 하였다. 이에 KBC 는 영국 바이어 들은 사전에 자료 검토를 충분히 한 후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상담장에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나서, A 기업의 국문 카탈로그를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영문 제품 설명서를 만들어 바이어와의 상담 주선을 이행하였다. 일단 KBC 가 임시 제작한 영문 제품 설명서와 A 사의 국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그림 파일을 기초로 상담 주선은 3 개 바이어와 이루어졌으나, 상담을 마친 이후 바이어들의 추가적인 자료요청 등에 대응을 못한 A 기업은 영국 시장 개척에 실패하였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거래에 기본적인 영문 카탈로그,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투자가 미흡한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곧 시장 개척의 실패로 이어진 예가 대다수이다.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이어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는 바이어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지 않으며, 설사 제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더라도 이런 국내기업 중 대다수는 추후 거래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는 열성이 부족한 사례가 많이 있다.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Native Speaker 가 감수한 영문 카탈로그와 영문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결국 철저히 준비하는 수출 기업만이 바이어 책상에 하루에도 수건의 거래 제의가 쌓이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출에 성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주택 물색

주거용 주택은 부동산(estate agency)을 통해 구한다. 부동산은 각 동네마다 쉽게 찾을 수 있는데, Hawes & Co 등 큰 부동산은 전국에 체인을 두고 전국적인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주택 매입 시에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 임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 수수료는 8~12%로 집주인이 내도록 되어 있으며, 임차인에게는 계약서 작성비 명목으로 100~150 파운드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 임차 시에는 특히 향후 임대 계약 기간 만료 후 원상 복구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 전에 비품 목록(inventory list)을 작성, 주인과 임차인이 각각 1부씩 보관, 퇴거 시 상호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의 주택은 크게 개인 주택(House)과 연립주택(Flat)으로 나누어지며, 개인 주택도 건물 형태에 따라 완전 단독 주택인 Detached House, 두 가구가 한 건물을 절반씩 나누어 사용 하는 Semi detached House, 여러 가구가 사는 Terraced House 등으로 나뉜다.

나. 거주지 확정 후 행정 절차

현재 한국인은 외국인 등록 대상에서 면제되어 있으며, 주거가 확정되는 대로 주영 한국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마치면 된다.

다. 계좌 개설

부동산 거래 및 각종 계약 시 은행에서 발급하는 credit repor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과금 자동 이체를 위해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주거 확정 후 소속 회사 거래 은행 또는 접근이 편리한 은행을 선택,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전국 지점망이 잘 확충되어 있는 Barclays, HSBC, Natwest, Halifax 등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계좌 개설 시 직불 카드도 함께 신청하도록 한다.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바로 발급되지 않으며 일정 기간(1년 이상) 은행 거래를 이상 없이 하여 신용이 쌓이면 발급한다.

라. 전화 신청

전화는 국영 BT(British Telecom)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일반 주택의 전화번호 발급 및 라인 개설 등의 자세한 문의는 영국 전역에서 국번 없이 152번 BT Residential Service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기 전화선이 있는 경우 전화국원의 가정방문 없이 자동으로 신청 3일 내에 개통된다.

마. 비품 구입

영국 주택은 가구 및 기본 생활 비품 비치 여부에 따라 furnished와 unfurnished로 나뉘어 진다. furnished house/flat의 경우 침대를 비롯, 그릇 등 기본 생활 비품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별다른 비품 구입은 필요 없으나, unfurnished의 경우 가구가 전혀 없으므로 현지 부임 /이주 전 주거하게 될 주택의 종류를 확인한 후 출국 전 이에 맞게 물품 구입을 하도록 한다.

가전제품의 경우 플러그 모양과 헤르츠가 한국과 달라 특히 모터가 달린 제품은 사용 수명이 단축되거나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한국에서 미리 전자제품을 완비해서 이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영국이 가전 제품을 비롯, 전 공산품의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임으로 헤르츠 차이 등에 큰 관계가 없는 물품은 준비해오는 것도 좋다. 영국은 유통 구조가 대형 체인 위주로 형성되어 있으며, High street라고 불리는 동네의 변화가에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전자제품, 가구, 생필품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Sainsbury's, Tesco, Waitrose 등의 대형 슈퍼에서도 웬만한 생필품은 구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슈퍼들은 거의 대부분의 동네에 있다.

바. 주거 환경

현지 주재원들은 기차 및 지하철 이용 시간 1시간 내외의 교외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자연 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큰 불편 없이 임차 주택을 구할 수 있으며 직원의 경우 임대료는 월 1,000~1,500파운드 내외가 보통이다. 임차주택 입주 시 1.5개월 임차료를 보증금으로 선납 하게 되는데, 임차 계약 해약 시 주택 파손 부분에 대해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보증금 회수에 따른 시비가 일기도 하나 일반 적으로 주인과 타협을 하게 된다.

사. 한국 식품 조달 여건

런던 시내지역 및 교포 밀집지역인 뉴몰튼 등에 상당수 한국 식품점이 있어 한국식품은 구입이 가능하다. 보관상태 및 재고 처리상의 문제로 한국 식품점들이 다양한 품목들을 구비하고 있지는 못하나 주곡, 라면, 양념류, 국산차 등 기본식품들은 현지조달이 가능하다.

아. 병원·약국

1) 의료보험

National Health Service(NHS, 국립 보건 기구) 제도로 인해 전국민(체재 외국인 포함)이 간단한 질병에서부터 수술까지 무료로 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 주재 및 거주 목적으로 영국에서 거주지를 정하면 집 근처의 GP(일반의, General Practitioner) 에 등록을 하도록 한다. GP(일반의)는 거의 모든 동네에 있고 일차적으로 모든 질병을 진료 하며, 전문적인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종합병원 등으로 환자를 인계한다.

2) 병원

GP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진료를 하지 않으나 긴급 환자의 경우 특별 진료를 하며, 위급한 경우 종합병원의 EMERGENCY 치료를 이용할 수 있다.

3) 약국

원칙적으로 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약을 조제해 주며, 약은 어린이 및 노인은 무료이고, 그 외에는 유료이며, 일주일에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문을 연다(09:00-17:00). 봉대, 반창고 등 의사 처방이 불필요한 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 외에도 테스코, 부츠 등 대형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자. 레저 여건

전통의 나라로 불리듯이 많은 역사적 유적, 유물, 유산 등이 있다. 박물관과 공원들이 특히 많으며, 많은 음악회, 미술 전시회, 연극들이 연중 공연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로 많은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다. 성(Castle), 정원들이 많으며 많은 여행 코스 및 피크닉 장소들이 있어 주말과 휴가철에는 대부분이 여가 활동을 하고, 각 커뮤니티 단위로 스포츠 센터가 있어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골프의 발상지로서 많은 Public Course(일반 대중을 위한 비회원제 골프장) 및 Private Course(회원제)들이 있다.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축구, 크리켓, 테니스 등을 많이 하고 있다.

차. 치안 상태

야간에 혼자 산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안 상태가 좋은 편이나, 런던 시내에서는 총기 사고를 포함한 강력 사건들이 가끔 발생하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실업 증가와 더불어 도난, 강탈 사건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카. 현지인들의 한국인 인식

서울 올림픽 개최, 한국 대기업들의 현지 투자, 급속한 경제 성장 등으로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가전제품 등 기술 집약적 제품을 수출함에 따라 이미지가 크게 제고되었다.

타. 자녀 교육 여건

연령에 따라 영국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정원내 공석이 있는 한 입학신청서 및 여권사본 제출로 곧바로 입학이 된다. 공립 학교를 다닐 경우 의무 교육으로 인해 고등학교 까지는 학비가 무료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상당히 비싼 수업료를 납부 해야 한다.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도 차별을 하지 않으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안내하며, 학교가 많아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교육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자녀 교육 환경은 양호하다. 현재 영국에는 전역에 걸쳐 7개의 한인학교가 있으며, 초, 중, 고등학생(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규 교과 과정을 학습시키고 있다(토요일에만 수업).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영국의 기후는 연중 내내 큰 기온 변화 없이 온난하지만, 남서풍과 대서양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루 중에도 변화가 심한 편이다.

기온은 대체적으로 최고 32 도를 넘거나 최저 영하 10 도 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으나, 남쪽과 서쪽이 북쪽이나 동쪽보다 조금 더 따뜻하다. 동절기인 12~2 월, 3 개월간의 월평균 기온은 8~4.9 도이며, 하절기인 6~8 월 3 개월간의 평균 기온은 14.1~16.2 도이다. 그러나 영국의 10~4 월까지는 가랑비가 계속 내리며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동기간 중에는 코트나 스웨터 등 겨울 옷이 필요하다.

연중 강우량은 웨일즈, 스코틀랜드 등 북서 산악 지방의 경우 1,600mm, 중부 지방과 남·동부 지방의 경우 800mm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연중 고른 강우량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3~6 월 중이 가장 건조하며, 9~1 월 중에는 강우량이 더 많은 편이다. 연중 일조 시간은 지형에 따른 지방차가 있으나 5~7 월 북부 스코틀랜드의 경우 5 시간, 남부 지방의 경우 8 시간 정도이다. 일조 시간이 가장 짧은 11~1 월 중에는 북부 스코틀랜드 1 시간, 남부 해안 지방 2 시간으로 겨울의 영국은 상당히 습하고, 햇볕이 적다.

□ 출장 시 추천 복장

계절에 따라 4~6 월, 7 월 초와 9~10 월 간에는 춘추복, 7~8 월 간에는 하복, 11~3 월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봄, 가을, 겨울에는 일교차와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적합한 방수용 코트나 점퍼, 스웨터 및 우산을 준비하도록 한다.

여름에도 크게 기온이 올라가는 일이 드물어 여름 출장 시에도 가급적 긴 팔 와이셔츠를 착용하는 것이 좋으며, 열은 색상과 콤비 정장은 많이 선호되지 않으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나. 시차/근무 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한국시간 -9 시간이며, 일광 시간 절약 기간(SUMMER TIME)에는 한국 시간 -8 시간이다. 일광 시간 절약 기간은 매년 3 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 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이다.

2) 근무 시간

관공서 및 일반 기업의 근무 시간은 대개 09:00~17:00, 은행은 09:00~16:30 까지이며 주 5 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지점 위치에 따라 평일 오후 5 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도 업무를 보는 곳도 있다.

슈퍼마켓은 점포마다 차이가 있고 24 시간 영업점들이 생겨 나고 있으나 대체로 평일은 08:00~20:00 까지, 토·일요일은 10:00~16:00 까지 영업을 한다. 의약품 및 위생용품점, 일반 상점들은 평일 09:00~17:00 까지, 토요일 10:00~16:00 까지 개점하며, 일요일은 대부분 휴점하므로 비상약 등은 출장 전 미리 준비하도록 한다.

다. 주요 단위(도량형)

- 공식적으로는 Metric System 이나 인치, 파운드 등을 사용하는 UK Imperial System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EU 통합에 따라 EU 의 미터법 통일 법규 (European

Union Legislation on Metrication)가 발효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파운드, 온스 등 UK Imperial System 이 점차 미터법으로 변화되고 있다.

- 2000 년부터 모든 식품은 미터제에 의해 판매되고 있다.
- 그러나 거리는 아직도 마일로 표시되며 몸무게는 파운드로 표시되는 등 미터법 사용에 도 불구하고 관습적으로 UK Imperial System 이 생활 속에서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The U K (Imperial) System of Measurements

Length		Area	
12 inches	= 1 foot	144 sq. inches	= 1 square foot
3 feet	= 1 yard	9 sq. feet	= 1 square yard
22 yards	= 1 chain	4840 sq. yards	= 1 acre
10 chains	= 1 furlong	640 acres	= 1 square mile
8 furlongs	= 1 mile	Capacity	
5280 feet	= 1 mile	20 fluid ounces	= 1 pint
1760 yards	= 1 mile	4 gills	= 1 pint
Volume		2 pints	= 1 quart
1728 cu. inches	= 1 cubic foot	4 quarts	= 1 gallon (8 pints)
27 cu. feet	= 1 cubic yard	Troy Weights	
Mass (Avoirdupois)		24 grains	= 1 pennyweight
437.5 grains	= 1 ounce	20 pennyweights	= 1 ounce (480 grains)
16 ounces	= 1 pound (7000 grains)	12 ounces	= 1 pound (5760 grains)
14 pounds	= 1 stone	Apothecaries' Weights	
8 stones	= 1 hundredweight [cwt]	20 grains	= 1 scruple
20 cwt	= 1 ton (2240 pounds)	3 scruples	= 1 drachm
Apothecaries' Measures		8 drachms	= 1 ounce (480 grains)
20 minims	= 1 fl.scruple	12 ounces	= 1 pound (5760 grains)
3 fl.scruples	= 1 fl.drachm	1 yard	= 0.9144 metres
8 fl.drachms	= 1 fl.ounce	1 pound	= 0.453 592 37 kilograms
20 fl.ounces	= 1 pint	1 gallon	= 4.546 09 litres

의류 사이즈

Men's Suits and Coats								
미국	36	38	40	42	44	46	48	50
유럽	46	48	50/52	54	56	58/60	62	64
영국	36	38	40	42	44	46	48	50

Women's Dresses and Suits								
미국	6	8	10	12	14	16	18	20
이탈리아	38	40	42	44	46	48	50	52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독일	34	36	38	40	42	44	46	48
스페인, 포르투갈	36	38	40	42	44	46	48	50
영국	8	10	12	14	16	18	20	22

Men's shirts								
미국	14	14½	15	15½	16	16½	17	17½
유럽	35	36/37	38	39/40	41	42/43	44	45
영국	14	14½	15	15½	16	16½	17	17½

Men's shoes							
미국	7	8	9	10	11	12	13
유럽	40/41	42	42/43	43/44	45	47	48
영국	7	8	9	10	10½	12	13

신발 사이즈

구분		35½	36	37	37½	38	38½	39	40	41	42	43	44	45
U.K.	M	3½	4	4½	5	5½	6	6½	7	7½	8	8½	10	11
	W	3	3½	4	4½	5	5½	6	6½	7	7½	8	9½	10½
Korea(mm.)		231	235	238	241	245	248	251	254	257	260	267	273	279

모자 사이즈

UK	6 1/2	6 5/8	6 3/4	6 7/8	7	7 1/8	7 1/4	7 3/8	7 1/2	7 5/8	7 3/4	7 7/8
미터식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기타		S		M		ML	L		XL		XXL	

라. 출입국/비자

1) 출입국

□ 출입국 절차

- 공항 도착 후 입국 인터뷰를 위한 입국 심사대는 여행자의 국적에 따라 EU, Others 등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한국인은 Others 쪽 심사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영국 외 다른 EU 국 방문 후 영국에 오는 경우에도 EU 가 아닌 Others 심사대를 이용함).
- 입국 심사는 입국 심사원에게 여권과 입국 카드(Landing Card), Visa(단기 체류 시 생략)를 제시하고 심사원의 질문에 따라 영국 방문 사유와 체재 기간을 설명하여 입국 허가

도장을 받는 것으로 완료된다. 2010 년 1 월부터 EU 회원국 이외 국가의 여권 소지자는 입국심사 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 입국 심사를 마치면 세관 신고대를 통과하게 되는데, 세관에 신고할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녹색, 세관에 신고할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적색 통로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 주류, 향수, 선물용품, 스포츠용품 등 개인 휴대품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무관세 통관이 허용되며, EC 역내 구입품은 역외 구입품에 비해 무관세 허용 한도가 크다.

□ 출입국 유의 사항

- 영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은 여행객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여 잘 정비되어 있으나,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 실업 유발과 범죄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발급 및 입국 허가 등에 있어서는 확고하고 엄격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유에서 공항 Immigration Office 는 인터뷰 시 현지 체재 사유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항에서 입국을 불허하거나, 체재 허가 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
- 위의 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6 개월까지는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입국 관리국 인터뷰 시 불필요한 설명과 얼버무리는 듯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나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현지 파트너가 없는 비즈니스 출장의 경우 의심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특별한 영업 소득을 발생치 않는 단순한 시장 조사 또는 업무 처리를 위해 6 개월 정도 체재할 계획이라면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여권 분실 해결 절차

- 여권을 입국 절차 전이나 도중 분실했을 경우는 아예 입국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하도록 한다. 정황 설명이 잘 전달되어 즉시 입국이 허용된 경우라면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대사관을 통해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하며 장기 체류 목적일 시에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도록 한다. 여행자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경찰서 신고 확인서, 여권용 사진 2 장, 사진이 부착된 한국 신분증 (여권 사본을 따로 지참하는 것이 편리함), 비행기 티켓(분실 시 복사본 또는 확인 e-메일도 가능)이 필요 하며 보통 3 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 휴대 물품

- 테러위험 이후 영국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나의 기내 반입용 가방을 가지고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허용된다. 이 가방의 크기는 바퀴, 손잡이, 옆 포켓 등을 포함해서 최대 가로 35cm, 세로 45cm, 높이 16cm(약 13.7 인치 X17.7 인치 X 6.2 인치)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핸드백 같은 다른 가방들은 한 개의 기내용 가방 안에 넣어서 반입할 수 있다. 승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X-레이로 검사를 받게 된다. 유아용 우유나 액체식품, 필요충분 조건을 구비한 처방약(당뇨병약등) 확인된 몇 개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어떤종류의 액체도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허용되지 않으므로 병, 플라스크, 튜브, 캔, 플라스틱용기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지 말자.
- 여행 관련 사항이나 공항에서 시행되는 보안 검색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항 당국이나 항공사 등에 출발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

□ 샘플/브로슈어 통관 절차

- 입국 심사 시 짧은 출장의 경우 출장 관련 설명 없이 일반 관광 비자로 입국하는 예가 있으므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 후 개인 수하물을 찾는 것을 감안한다면 오해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내용 휴대품에는 샘플이나 브로슈어를 적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량의 샘플을 소지한 경우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우선 제품이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따라서 “가치가 없다 (Samples of negligible value)”는 것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제품에 흡을 내거나 특별한 마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 외 동제품이 일회성 판매(소비용)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하며 그 수량 제한도 필요하다. 제품에 따라 샘플용으로 처리 되지 못하는 품목들도 있으니 확실치 않을 시 미리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 공항 입국 시 샘플을 휴대(in baggage)했다면 원칙적으로 Customs Red Channel 이나 Red Point 에서 세관 자신 신고를 해야 하며 따로 적재했다면(as freight) 해당 서류(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Form C88)에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관세를 지불한 후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항의절차를 거칠 수 있다(Notice 990 Excise and Customs Appeals).

□ 식품류 반입

- 한국으로부터의 육류, 가공 및 동 부산물 수입은 식품 위생 검사를 필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수산물 등 비가공 상태의 기타 식품류의 경우도 반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관세 관련 항의 및 문제 해결 연락처

- The Adjudicator's Office
 - 주소: Haymarket House, 28 Haymarket, London, SW1Y 4SP
 - 전화: (020) 7930 2292/팩스: (020) 7930 2298
 - e-메일: adjudicators@gt.net.gov.uk
 - 웹사이트: <http://www.adjudicatorsoffice.gov.uk/>

2) 비자

- 일반 여행 및 방문객: 6개월 무비자
 - 하지만 영국 입국 심사 시에는 영국 체류에 필요한 충분한 비용과 방문지(숙소 주소) 및 여행 계획, 그리고 한국 귀국 일정 등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국 허가 여부와 체류 기간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때 결정된다.
- 6개월 이상 장기 체재를 원할 경우
 - 출국 전에 영국해외공관(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직접 장기 체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체류 기한 만료 전 소정의 신청서를 등기우편 또는 등기 배달로 Home Office(Immigration Dept.)에 송부하거나, 여권을 지참하여 각 지방 이민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 출장자

영국에서의 회의 참석, 사업상 협상 또는 재화/용역 구매 계약 체결, 사실 관계조사 등 일시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여행객과 같이 6 개월간은 비자 없이 체류 가능하다. 만약, 재화나 용역을 직접 일반에게 판매하는 등의 생산적인 노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동 허가(Work Permit)가 필요하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일반에게 판매하지 않더라도, 영국기업과 연관되어 실제 노동을 수반하게 될 경우 비즈니스 방문 비자(최대 6 개월)를 미리 발급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일인 사무소(sole representatives) 운영

영국 내 자사지점 등 다른 사무소가 없는 해외업체를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1 년 내에 등록된 지점(registered branch)이나 자회사(wholly-owned subsidiary)를 설치 하여 대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급 직원(senior employee) 자격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는 다른 경우와 같이 주한 영국대사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다.

□ 투자자(investors)

투자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자기통제 하에 영국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000 파운드 이상이 되고, 이중 최소 750,000 파운드 이상을 영국에 투자할 것이며 주요 주거지를 영국으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 입국을 위해서는 주한 영국 대사관을 통한 사전 입국 허가가 필요하며 신청 절차는 같다.

□ 비자 발급처

○ 영국 비자센터

-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 가 120 번지 단암빌딩 5 층
- 홈페이지: www.vfs-uk-kr.com

○ HOME OFFICE

- 담당 부서: Immigration Department
- 주소: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Surrey CR9 2BY, UK
- 전화: 087-0606-7766
- 업무 시간: 09:00~16:00(Bank Holiday 제외)

○ 처리 기간: 약 8 주, 직접 방문 시 당일 처리(구비 서류: 여권, 재정 증빙 서류)

마. 환전

1) 화폐 단위

화폐 단위는 파운드(Pound Sterling)로 '£'로 표시한다. 1 파운드는 100Pence 이며 pence 는 소문자 'p'로 표시하고 '피'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폐에는 5, 10, 20, 50 파운드가 있으며, 주화에는 펜스 단위로는 1p, 2p, 5p, 10p, 20p, 50p 짜리가, 파운드 단위로는 1£, 2£가

있다. 가계수표 및 직불카드(Debit card), 신용카드(Credit Card)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50 파운드짜리 고액권은 일반적으로 많이 소지하지 않는 편이다.

2) 환율

파운드화의 환율은 2011년 4월 7일 매매 기준율 기준으로 1 파운드= 1,776.3 원이다.

3) 환전

달러화 또는 EU 국가 화폐의 경우 공항, 은행, 우체국, 국제 수준 호텔 등에서 쉽게 환전할 수 있으며, 시내 중심가에도 환전소가 있기 때문에 환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환전환율은 은행 간에는 비슷하며, 시내 환전소가 다소 유리한 것처럼 보이나 수수료를 감안하면 역시 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호텔은 은행, 환전소보다 약간 불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로 원화환전은 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환전해가거나, 여행자 수표(Traveler's Cheque)를 발급받아 오도록 한다. 영국 전역에서 대부분 신용카드가 통용되기 때문에 많은 액수의 현금을 환전할 필요는 없으므로 적당한 금액만큼만 환전해 오는 것이 좋다.

바. 교통/통신

1) 교통

① 항공

대한항공이 매일 인천-런던 직항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일주일에 4 회(화, 목, 토, 일) 직항을 운행하고 있다. 비행시간은 11 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 외 네덜란드 항공(KLM)과 에어프랑스가 암스테르담과 파리를 각각 경유하는 런던-인천 왕복 항공편을 운행하고 있으며, 경유 노선이어서 요금은 직항 노선에 비해 다소 저렴하나 두 시간 정도 더 소요된다.

런던 인근의 Heathrow, Gatwick, Luton, Stansted, City 등 5 개 국제공항 및 맨체스터, 글라스고, 애버딘, 에딘버러 등 주요지방 도시의 국제공항 등을 통해 유럽은 물론 세계주요 도시들과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라이언에어 (www.Ryanair.com)와 이지젯(www.Easyjet.com)등이 대표적인 저가 항공사로 인기를 끌어오고 있다.

항공권 구매는 보통 미리 예약할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며 특히 각 항공사의 수시/시즌 특가 판매나 전문 여행사들의 할인 티켓 구매를 통하면 보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 영국 내 한인 여행사 리스트

- 대한항공 런던 지점
 - 주소: 66/68 Piccadilly, London W1J 0HJ
 - 전화: 020 7495 2299/3377/팩스: 020 7495 1616
 - e-메일: lonso@koreanair.co.kr
 - 홈페이지: www.koreanair.com

- 아시아나항공 런던 지점
 - 주소: 2nd Floor, 7/8 Conduit Street, Mayfair, London W1S 2XF
 - 전화: 020 7514 0209/팩스: 020 7514 0207
 - 홈페이지: www.flyasiana.com
- 유니마스터 여행사
 - 주소: 1st Floor, 115 Praed Street, London W2 1RL
 - 전화: 020 7402 0077/팩스: 020 7402 1511
 - 홈페이지: www.unimaster-travel.com
- 박 여행사
 - 주소: 15 Hanover Square, London W1S 1HS
 - 전화: 020 7495 2525/팩스: 020 7493 6952
 - e-메일: parktravel@parktravellondon.com
- 보라 여행사
 - 주소: 91 Burling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4LR
 - 전화: 020 8241 7987, 8949 1279/팩스: 020 8949 3132
 - e-메일: boratravel@hotmail.com
 - 홈페이지: www.boratravel.com
- 코리안 서비스 여행사
 - 주소: 17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 전화: 020 8949 1177, 5976/팩스: 020 8949 7681
 - e-메일: kstravel1177@yahoo.com
 - 홈페이지: www.kstravel.co.uk
- 에메랄드 글로벌 여행사
 - 주소: 15-16 new Burlington Street, London W1S 3BJ
 - 전화: 020 7312 1719/팩스: 0870 220 4599
 - e-메일: mkim@emerlad.co.uk
 - 홈페이지: www.emerald.travel

② 국내 교통

- 오랜 대중교통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런던 전역에는 지하철과 버스가, 시 외곽에는 지역 버스와 기차가 잘 발달되어 있다. 시설 노후로 최근 잦은 운행 지연 및 결행으로 이용객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나 도심 주차난으로 대중교통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통 수단이다.
- 런던 지역의 대중교통 정보는 Transport for London 웹사이트(www.tfl.gov.uk) 검색 또는 런던 전화 020 7222 1234 로 문의하면 요금과 운행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월 정기권 및 연 정기권은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지하철(Tube)

'Underground'(속칭 Tube) 라고 불리며 9 개의 노선으로 런던 시내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요금은 런던을 1~9 존(zone)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1 존이 시내 중심부 를 나타내며 그 외곽으로 갈수록 숫자는 커진다. 또한 이용 시간대에 따라서도 가격 차가 있다. 티켓은 역사 내 티켓 판매기나 창구에서 카드 구매도 가능하나 보통 시간 소요가 크므로 잔돈을 필히 지참하고 판매기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한편 2007 년부터 사용된 오이스터(Oyster)라 불리는 전자교통카드 사용의 확대를 위해 카드 사용 요금과 현금 요금의 차이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실제 편도 성인 요금의 경우 현금 지불 시(일회용 패스 사용 시) 1~3 존 내 이동 시 편도 4.00 파운드, 1~6 존은 5 파운드를 부과하는 반면 오이스터 카드사용 시는 존, 이동 시간(Peak Time: 평일 낮 시간, Off-Peak Time) 간 차등을 두고 4.00~7.00 파운드까지 큰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참고로 출장 시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시내로 지하철 이동시는 1~6 존용 티켓을 구매하여야 하며 이는 현금구매 기준편도 요금 5.00 파운드이다. 장기 출장자의 경우는 도착 시 공항에서 선불(Pre-pay) 오이스터 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며 구매시 보증금 3.00 파운드를 지불하고 반환시 잔액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오이스터 카드나 일일 교통권(One day travel card)을 8.00~19.00 파운드(off-peak 6.6~14.60 파운드 정도)를 충전하거나 구입하면 일일간 런던 1~6 존 구간에 따라 회수에 제한없이 버스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의 흡연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 시내 버스

- 런던 시내의 버스는 더블데크(Double Deck)라고 불리는 2 층 버스가 주류로 역시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 2 층 버스의 맨 앞좌석은 처음 런던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는 또 다른 관광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구형 더블데크들이 사라지고 차량 2 개를 연결한 굴절 버스들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요금은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1~6 구역까지 구분되며 현재 런던 시내 요금은 편도 2.20 파운드(오이스터 카드 이용 시 1.30 파운드)이며 티켓은 승차 전 정류장의 자판기에서 미리 구매하여야 한다. 단 티켓 자판기는 모든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잔돈을 받을 수 없어 정확한 금액의 동전이 없으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두어야 한다. 일일 버스 패스의 경우 어른은 4.00 파운드, 16~17 세는 2.00 파운드이며 16 세 이하는 무료 다. 오이스터 카드의 경우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전철과 버스 모두 통용되므로 사용이 편리하다.

□ 택시(Black Cab)

- 옛날 마차를 연상케 하는 중후한 디자인으로 런던의 명물이다. 최근에는 노란색, 은색 등 색상이 다양해졌지만 검정색이 압도적으로 많아 일명 'BLACK CAB'으로 불린다.
- 시간거리 병산제로 요금은 상당히 비싼 편이나, 합승 제도가 없고 런던 택시 운전사들은 엄격한 런던 지리 및 교통법규 시험을 통과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운전수들이어서 최단 시간에 편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운전사 옆자리는 짐을 싣는 곳이며 뒷좌석에 5 명까지 승차가 가능하다. 빈 택시는 'TA-XI'라고 쓴 부착물에 노란 불을 밝히고 다니므로 쉽게 식별 가능하며 아무 곳에서나 손을 들어 세울 수 있다.

- 택시를 잡은 후 먼저 목적지를 말하고 운전사의 행선지 확인을 받은 후 승차한다. 택시 요금은 기본이 2.20 파운드이며, 1 마일당 20p 가 추가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데, 예전에는 탑승자 수나 짐 추가에 따른 할증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는 더이상 실시되지 않고 있다. 대신 Off-Peak Time, Peak Time, 심야로 구분되는 3 단계 시간 할증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추가 할증료가 부과된다. 팁은 보통 요금의 10%를 지불한다.
- 평균 요금을 살펴보면, 평일 낮시간(06:00~20:00) 1 마일(약 6~13 분) 이동 시 5.20~8.20 파운드이고 평일 20:00~22:00 나 주말의 경우 5.20~8.20 파운드, 심야(22:00~06:00)나 법정 공휴일의 경우 6.40~8.40 파운드가 부과된다.
- 히드로 공항에서 런던 시내까지 택시 이용시는 대략 30 분~1 시간이 소요되며 요금은 42~80 파운드가 부과된다.

□ 미니캡(MINI CAB)

- 일종의 자가용 CALL TAXI 형태로 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운행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과 초심 여행자들에게는 안전치 못할 경우가 있으므로 야간에는 이용치 않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승차 전 요금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용하기 전 미니캡회사에 전화하여 예약하거나 역 주변이나 변화가에 위치한 사무실을 통해 직접 이용 가능하며, 일반 택시보다는 저렴하므로 런던 시내-공항, 런던-외곽 등 장거리 이용 시 유용하다. 미니 캡 회사는 각 지역의 전화번호부(yellow page)에서 해당 지역의 우편번호(postal code)를 보고 인근 회사를 찾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 기차

- 런던 시내에 Waterloo, Victoria, Paddington, Kings Cross, Euston 등의 주요 역에서 영국 전역으로 가는 기차를 탈 수 있으며, 기차 시간 및 요금은 National Rail Enquiries 사이트(<http://www.nationalrail.co.uk>)를 통해 검색 가능하다.
- EuroStar-워털루(Waterloo)역에서 운행되는 런던-유럽 본토(파리, 브뤼셀)간 고속 철도로 런던-파리 간 소요 시간은 3 시간 30 분이다.

□ 교외/ 고속/ 대륙 횡단 버스

- 런던 시내의 Victoria 역 근처에 위치한 Victoria Coach Station 에서 버스를 이용하여 영국 내 주요 도시 및 대륙 횡단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버스 정보 사이트인 내셔널 익스프레스(<http://www.nationalexpress.com/>)를 이용할 수 있다.

2) 통신

□ 국제 전화

호텔에서의 국제 통화료는 상당히 비싸며 야간, 공휴일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한국으로의 다이얼링 방법은 00-82-지역 번호-개인 번호 순으로 한다. 국제 전화 카드(International phone card)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이 카드로 시내 통화도 가능하므로 여러모로 편리하다. 5, 10, 20 파운드짜리가 있으며, 시내 중심가의 신문 파는 곳(news agency), 전화카드 전문 판매 코너, 동네 슈퍼 등에서 구입 가능하며 카드의 종류가 무척 다양하나 보통 한국 통화의 경우, 4~5p/분 정도의 시내 통화료 수준으로 국제 통화가 가능하며 차이나 타운 등지에서는 20 파운드 카드를 15 파운드 수준으로 할인 구매가 가능하며 구입 시 25 파운드치를 사용할 수 있다.

□ 국내 전화

시내 공중전화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나라와 달리 동전을 투입구에 걸어놓고 상대 방이 연결되면 동전을 넣어서 통화가 시작되며 통화 도중 뚜-뚜- 하는 신호가 나면 계속 동전을 넣고서 통화를 계속할 수가 있다. 최소 20 펜스짜리 동전부터만 가능하다. 또 한가지는 먼저 동전을 집어넣고 통화를 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동전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 오른쪽 게시판에 액수가 기록되며 모든 동전을 쓸 수 있다. 장기 체류일 경우는 동전이 필요 없는 전화카드(BT Phone Card)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체국과 news agency 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2, £4, £10 짜리가 있다. 그 외 국제 전화 카드를 이용 해서도 통화가 가능하다.

□ PC 방 이용

영국에는 한국 개념의 PC 방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대신 주로 메일, 정보 검색 등을 위한 인터넷 카페들은 산재되어 있다. 큰 규모라기보다는 컴퓨터 20 대 안팎의 소규모 서비스 공간들이 많으며 그 외에 좀 큰 규모의 것으로는 'Easy Everything'이라는 인터넷 카페가 있다. 런던에도 몇 개의 체인점이 있는데 점포 규모는 상이하지만 보통 100~200 대의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으며 주로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메일 확인 정보 검색 등을 위해 활용하는 공간이다.

이용 대금은 보통 30 분에 1 파운드 정도의 수준이며, Easy everything 같은 곳은 별도로 시간대별로 가격을 달리 책정하여 예를 들어 peak-time 에는 30 분에 2 파운드, Off-peak 인 경우, 4 시간에 1 파운드인 경우도 있다. 원활한 한글 사용을 원한다면 한인 인터넷 방 이용도 가능하다.

□ 노트북 이용

최근 브로드밴드 통신망의 증가로 대부분의 호텔 객실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무선인터넷 Hot spot 이 설치 된 점포나 쇼핑 공간들도 확대되어 Vodafone, T-mobile 이동통신사들의 계정 구입을 통해서 스타벅스(Starbucks)나 기타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노트북 사용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다.

□ 핸드폰 구입 안내

Carphone Warehouse 나 Vodafone, O2, Orange, T-mobile 등의 점포 방문을 통해 핸드폰 구매가 가능하다. 보통 Pay-as-you-go, Pay-as-you-Talk 등으로 불리는 선불카드 충전 방식으로 단말기와 함께 심(SIM) 카드라 불리는 칩을 통해 고유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일정 금액만큼의 크레딧을 구입하여 그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언제든지 충전 (pop-up) 가능하다. 보통의 경우 크레딧 소멸 이후에도 수신은 가능하며 가격대는 단말 기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저렴한 기종은 보통 10 파운드(충전금액을 제외)부터 구입 가능하다.

□ 표준 전압 및 주파수, 콘센트 모양 안내

전기 규격은 220/240 볼트, 50 헤르츠로 한국과 달라 모터 장착 가전 제품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전기 플러그도 earth 선이 하나 더 있어 3 개 핀으로 되어 있는데 어댑터는 공항 및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대략 5 파운드 정도이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영국을 여행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숙박 형태로는 일반적인 호텔과 B&B 를 들 수 있다. B&B 는 BED&BREAKFAST 의 약자로 숙박과 다음날 아침을 제공하는 소규모의 간이 호텔 또는 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의 시설은 다소 불편해도 가격이 호텔에 비해 저렴하다.

런던을 비롯하여 전국 전역에 각 등급의 다양한 호텔이 있는데, 방문 전 인터넷을 통해 미리 정보를 검색하여 예약하는 것이 편리하고 저렴하다. 유용한 사이트로 영국관광진흥청 www.visitbritain.com, 런던시 관광 정보 공식 사이트인 www.visitlondon.com 또는 www.londontown.com 등을 들 수 있다.

런던 시내에서 고급 비즈니스 출장자를 위한 호텔들은 Piccadilly Circus ~ Green Park, Hyde park 부근에, 중급 호텔은 Hammersmith, Notting hill Gate 부근에, 그리고 관광객이나 출장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호텔들은 Bayswater, Rusell Square, Paddington 부근에 많이 있다.

다음 호텔의 가격 정보는 호텔 요금표 기준 대략적인 금액이며 이는 주중과 주말 요금 등을 포함한 성수기/비수기 요금에 큰 차이가 나며 또한 예약 시기(투숙 몇 일 전)나 투숙 일수에 따라서도 요금이 크게 달라진다. 보통의 경우 비즈니스 전문여행사나 인터넷 특별 요금 등을 통하면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호텔명	등급	주소	연락처	가격
힐튼 파크레인	☆☆☆☆☆	22 Park Lane, London, W1K 1BE	(+44)20 74938000	Single £ 200~350 Double £ 200~400
르네상스 찬스리코트 런던	☆☆☆☆☆	252HighHolborn, London, WC1V 7EN	(+44)20 78299888	Single £ 150~300 Double £ 180~400
노보텔 런던 유스톤	☆☆☆☆	100-110 Euston Road, London NW1 2AJ	(+44)20 76669000	Single £ 110~200 Double £ 150~250
밀레니엄글로스터	☆☆☆☆	4-18 Harrington Gardens, London SW7 4LH	(+44)207 3316257	Single £ 130 Double £ 140
로얄내셔널 호텔	☆☆☆	Bedford Way, London, WC1H	(+44)20 76372488	Single £ 60~90 Double £ 70~100
아이비스 런던 얼스코트	☆☆☆	47 Lillie Road, Earl's Court, London, SW6 1UD	(+44)20 76100880	Single £ 50~90 Double £ 70~100
시타딘 아파트 호텔	☆☆☆	18-21, Northumberland Avenue, London, WC2N 5EA	(+44)20 77663700	Single £ 60~90 Double £ 70~100

2) 식당

다양한 종류의 각종 레스토랑과 패스트 푸드점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으며, 큰 어려움 없이 각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다.

중국 식당의 경우 런던 시내 SOHO 지역 부근에 차이나 타운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본 식당도 Piccadilly Circus, Oxford Street 등 시내에 여러 개가 있다. 한국 식당은 런던 시내에 20 여개, 교민 밀집 주거지역인 런던 교외의 NEW MALDEN, KINGSTON 지역에 20 여 개가 성업 중이다.

식당명	메뉴	주소	연락처	가격(파운드)
카페 네로	커피 샌드위치	영국 전역에 287 개의 점포를 가진 커피 체인점	N/A	커피/티: 2£ 내외 빵/샌드위치: 2~3
사카나테이	일식	11 Maddox Street, London, W1S 2QF	(+44) 08710757855	8~15£
피노	스페인	33 Charlotte Street , W1T 1RR	(+44) 20 78138010	식사 £38.00 와인 £16.00 샴페인 £42.00
가야	한식	42 Albemarle Street, London W1S 4JH	(+44) 20 74990633	메뉴당 약 10~15£ 내외 (저녁식사 시 1 인당 40£)
로얄 차이나	중식	24-26 Baker Street, W1U 3BZ	(+44) 20 74874688	메뉴 당 5-10£, 세트 메뉴는 1 인 평균 30~40£ 수준 (세트메뉴).
벨고	벨기에	50 Earlham Street/29b Shelton Street, CoventGarden London WC2H 9LJ	(+44) 20 78132233	메뉴당 10~15 파운드 수준, 맥주 3~5 파운드
쌈	한식	58-59 Great Marlborough Street, London, W1F 7JY	(+44) 20 74341650	메뉴 당 10 파운드 수준 (인당 30~40 파운드)
아사달	한식	227 High Holborn, WC1V 7DA	(+44) 20 7430 9006	메뉴 당 10 파운드 수준 (인당 30~40 파운드)
브라운즈	영국식	47 Maddox Street, London, W1R 9LA	(+44) 20 74914565	-점심:£15.00 -저녁:£25.00(음료제외)
심슨스	영국식	100 Strand, London, WC2R 0EW	(+44) 20 78364343	-점심:£35.00 -저녁:£35.00(음료제외)

□ 기타 런던 시내 위치 주요 한국 식당

- 한강식당
 - 02076371985
 - 16 Hanway St, London, W1T 1UF
- 한강포차
 - 02076371410
 - 16 Hanway St, London, W1T 1UF

- 우정
 - 02078363103
 - 59 St. Giles high St, London, WC2 8LH
- 아랑
 - 02074342073
 - 9 Golden Square, London, W1F 9HZ
- KOBA
 - 02075808825
 - 11 Rathbone St. London W1T 1NA
- 긴타로 스시
 - 02074374549
 - 26-27 Lisle Street, London WC2H 7BA
- 포장마차
 - 02073797381
 - 56 St. Giles high St, London, WC2 8LH
- 뉴서울
 - 02072788674
 - 164 Clerkenwell Road, London EC1R 5DU
- 아리랑
 - 02074376633
 - 31-32 Poland Street, London W1 3DB
- 나라
 - 02072871110
 - 9 D'arblay Street, London W1F 8DR
- 비원
 - 02075802660
 - 24 Coptic Street, London WC1A 1NT
- 명가
 - 02077348220
 - 1 Kingly Street, London W1
- 앳싸
 - 02072408256
 - 53 St. Giles high St, London, WC2 8LH
- 가마
 - 02074309006
 - 135 Wardour St, London

아. 관공서 관행

- 일반인에게도 친절하며 뇌물 수수 관행 없이 원리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다. 반면 간단한 사안이라도 모든 의뢰는 서류로 작성, 편지를 보내야 하므로 번거롭고, 문서 업무 처리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 따라서 관공서 업무는 반드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하며, 면담 필요 시에는 예약 후 방문토록 한다. 또한 서류(서한) 발송 시 수신인을 미리 확인해서 정확하게 지정 하는 것이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다.

자. 공휴일

1) 2011년 영국(웨일즈 포함) 공휴일

New Year's Day Holiday	1월 3일
Good Friday	4월 22일
Easter Monday	4월 25일
Royal Wedding Bank Holiday	4월 29일
Early May Bank Holiday	5월 2일
Spring Bank Holiday	5월 30일
Summer Bank Holiday	8월 29일
Boxing Day	12월 26일
Christmas Day Holiday	12월 27일

2) 현지 축제 등 장기 휴일로 주재국 방문을 피해야할 시기

- 부활절 휴가(2011 년의 경우 4 월 말), 여름 휴가 기간(7~8 월)과 크리스마스 및 새해 12 월 중순~1 월 첫째 주)에는 약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

차. 여행 시 유의 사항

1) 위험 지역 및 금기 사항

- 런던은 생각보다 상당히 안전한 편이다. 그러나 런던 시내 SOHO 유흥가에서는 바가지 요금과 폭력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관광객으로 붐비는 런던 시내 중심가와 전철 등에서는 간혹 소매치기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고액권 지참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 한편 각종 운동 경기(특히 축구)가 열리는 기간에는 축구팬들이 많이 모이는 술집이나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응원하는 팀이 다를 경우는 껄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외 최근 몇 년 새 흑인밀집 거주지역 부근 총기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니 조심하도록 한다.

2) 팁 관행

- 팁 관행이 엄격하지는 않으며 요금에 팁이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된다. 서비스료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음식값의 10% 정도의 팁을 준다.

3) 식수

- 영국인들은 수도물(탭워터; Tap water)을 식수로 그냥 이용한다. 물에 석회질이 포함되어 불편하다면 별도로 생수(미네랄 워터)를 구입해야 한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주요 관공서

- 비즈니스혁신기술부(BIS)
 - 020-7215-5000 / 020-7215-0105
- 관세청(HM Customs & Excise)
 - 020-7620-1313 / 020-7895-5005
-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 020-7238-3000 / 020-7238-6591
- 기업등록소(Companies House)
 - 0870-3333-636 / 02920-380-517
- 공업표준관리청(BSI)
 - 020-8996-9000 / 020-8996-7400
- 통계청(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 020-7533-6363 / 01633-812-863

2) 한국 기관

- 한국대사관
 - 주소: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 전화: 020-7227-5500
- KOTRA 런던 KBC
 - 주소: 1st Fl, Brettenham house North, 12/13 Lancaster Place, London, WC2E 7EN
 - 전화: 020-7520-5300
- 재영한인회
 - 주소: 1st Fl, Thames House, 63 Kingston Road, New Malden, Surrey, KT3 3BP
 - 전화: 020-8605-0050

- 한국관광공사
 - 주소: 3rd Fl., New Zealand House, Haymarket, London, SW1A 4QT
 - 전화: 020-7321-2535
- 대한항공
 - 주소: 66-68 Piccadilly, London W1V 0HJ
 - 전화: 020-7495-2299

타. 기타 유용한 정보

1) 비즈니스 쇼핑

□ 해로즈(Harrods) 백화점

- 위치: 87-135 Brompton Road, Knightsbridge, London, SW1X 7XL
- 가까운 지하철 역: 나이트 브리지(Knightsbridge)
- 주요 취급상품: 식품, 의류, 생활 잡화류 일체(고급품 위주)
- 전화: (+44)20 77301234
- 1889 년 개점 이래 상류층 고객들을 위주로 한 영국 최고급 백화점으로 성장하였고 구 왕납품 백화점이었다. 1985 년 이집트 부호 화이드 형제가 인수하였으며 그 아들이 다이애나비와의 염문을 남기고 함께 숨진 것으로도 유명함. 최근 카타르 투자청 산하 투자 기업인 카타르 홀딩스가 15 억 파운드에 인수하여 해로즈 백화점의 5 번째 주인이 되었음.

□ 포트넘 앤 매이슨(Fortnam& Mason) 백화점

- 위치: 181 Piccadilly, London, W1A 1ER
- 가까운 지하철 역: 피카딜리 서커스(Piccadilly circus)
- 주요 취급상품: 식품, 와인, 고급 생활용품, 액세서리 등
- 전화: (+44)20 77348040
- 1707 년 오픈한 300 년 전통을 자랑하는 백화점. 차, 소스, 와인을 비롯한 고급 기호품이 유명하며 또한 전통 잉글리쉬 티를 즐길 수 있는 장소임.

□ 버버리 팩토리 샵(Burberry's Factory shop)

- 위치: 29-53 Chatham Place, Hackney, London, E9 6LP
- 가까운 지하철 역: 베쓰널 그린(Bethnal Green)
- 가까운 기차역: 해크니 센트럴(Hackney Central)
- 전화: (+44)20 89853344
- 기타 특이 사항: 11a-6p Mon-Fri; 10-5p Sat 11-5

□ 릴리화이트(Lillywhite's)

- 위치: 24 Lower Regent Street, SW1Y 4QF
- 가까운 지하철 역: 피카딜리 서커스(Piccadilly circus)
- 주요 취급 상품: 각종 스포츠 용품

- 전화: (+44)20 78132233
- 기타 특이 사항: 1863 년 개점 이래 1925 년에 현 자리로 이전. 6 층 규모의 대형 스포츠 전문 매장으로 맨체스터나 토트넘을 비롯한 다양한 세계 유명 클럽의 축구 유니폼과 크리켓, 럭비 등 전통 영국 스포츠장비 등을 저렴한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음.

□ 스톡-온-트렌트(Stoke-on-Trent) 도자기 마을

- 위치: 스톡-온-트렌트(Stoke-on-Trent)
- 각 팩토리 샵 위치: <http://www.thepotteries.org/factory.htm>
- 주요취급상품: 각종 영국전통 브랜드 고급도자기(Portmerion, RoyalDoulton, Wedgwood)
- 연락처: Stoke-on-Trent Tourist Information Centre Victoria Hall, Bagnall Street, Stoke-on-Trent, ST1 3AD
- 전화: +44 (0)1782 236000
- 기타 특이 사항: 런던에서 160 마일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이동 시 약 3 시간이 소요되며 도착 시 관광 안내소에서 마을 지도를 수령하고 각 팩토리샵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차량 이동 시 5~10 분 거리 내에 여러 상점이 산재되어 있다.

□ 비스터 빌리지(Bicester Village)

- 위치: 50 Pingle Drive, Oxon, OX26 6WD
- 주요 취급 상품: 각종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할인 아울렛(버버리, 던힐, 발리, 아쿠아스쿠템, 페레가모, 베르사체 등)
- 전화: +44 (0) 1869 323 200
- 방문 방법:
 - 런던 말리본(Marylebone)역에서 Chiltern Railways 기차를 이용(매 30 분 간격, 08:30 ~17:30)하여 Bicester North Station 에 하차 후 셔틀버스 이용(약 1 시간 15 분 소요)
 - 차량 이동 시 런던에서 고속도로(M40)를 이용하며 Exit 9 에서 A41 방향으로 진입하여 비스터(Bicester) 방향으로 2 마일 직진하면 'Village Retail Park', 'Bicester Village Outlet Centre' 사인을 확인할 수 있음(약 1 시간 20 분 소요).
- 기타 특이 사항: 처칠 생가로 유명한 블렌하임 팰리스(Blenheim Palace), 셰익스피어 생가가 있는 스트라포드-어폰-아본(Stratford-upon-Avon)과 인접하여 관광코스로 유명함.

2) 특산물

- 버버리, 아쿠아스쿠템, 닥스, 던힐, 바버 등으로 대표되는 각종 면모 의류제품들이 유명
- Portmerion, Royal Doulton, Wedgwood 등으로 대표되는 도자기 제품이나 크리스탈 제품과 British Sterling silverware 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음.
- 대표적인 농축 산업 국가이기도 한 영국은 감자 등 각종 농산물과 축산(가공)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수산 자원이 풍부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 제품들 부문 또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산업을 통해 다양한 관광 기념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보통 영국적 특색을 담은 인형들이나 수집품 등이 대부분임.

파. 관광 명소

1) 런던 시내 관광

런던 시내 관광은 최소 2 박 3 일, 교외 관광 2 박 3 일 등 평균 1 주일 정도가 소요되나 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조정,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다. 1 일 시내 관광은 1 인당 15~20 파운드 선인 순환 관광 버스(Hop-on, Hop-off)를 이용하는 것도 좋는데 시내 주요 명소 별로 순환하며, 원하는 곳에서 내려서 관광한 후 다음번 버스를 타고 계속 구경할 수가 있으므로 경제적이다. 빅버스(Big Bus), 오리지널 버스(Original bus)가 대표적이다.

한국인 관광 가이드 서비스 이용 시 승용차 1 대당 런던 시내 120 파운드, 시외 150 파운드이며 공항 마중은 40 파운드 정도이다. 옥스포드 대학, 처칠 생가, 윈저성 등 런던 교외 관광 시 런던에서 기차나 관광 버스를 이용하여 당일 여행도 가능하며 관광 버스의 경우 약 30 파운드이다.

템스 강변의 유람선 관광선도 빼놓을 수 없는 일정이다. 시티 크루즈(City Cruise)가 웨스트민스터 다리 옆의 웨스트민스터 피어(Westminster Pier)에서 출발하여 그리니치 피어 (Greenwich pier)를 왕복하며 시간은 편도 1 시간 15 분이 소요되며 성인 왕복 요금은 13 파운드(편도 10 파운드)이다.

영국 및 런던에 관한 관광 안내 지도 책자는 영국의 관광공사(British Tourist Authority: 64, St. James's Street, SW1, 전화 629-9691)에서 무·유료로 구할 수 있으며 "Time Out", "What's on" 등의 주간지도 유용하다.

□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

1753 년 한스 슬로안 경이 평생 수집한 골동품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설립되었으며, 1847 년 개축되었다. 박물관 운영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면서도 입장료가 없다. 상형문자를 해독하게 된 로제타 스톤(Rosetta Stone), 헨델의 메시아 원본, 이집트의 마이라 및 라머니즈 2 세 석상,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대헌장(Magna Carta), 셰익스피어의 친필 원본,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본 등이 있다. 소규모지만 한국관도 설치되어 있으며 사랑방 건축물과 고려청자, 청화 백자, 칠보 자개함 등 국보급 자료와 조선 시대 초기 작품으로 사천왕상등이 전시되고 있다.

□ 버킹검 궁(Buckingham Palace)

버킹검 궁은 1837 년 빅토리아 여왕 이후 영국 왕 및 여왕의 런던 관저이다. 원래는 1703 년에 건조된 버킹검 공작(Duke of Buckingham)의 사저였으나, 조지 3 세가 1762 년 왕비 샤프릿을 위하여 버킹검 하우스(Buckingham House)를 매입, 관저가 아닌 사저로 이용하였으며 현대의 왕궁 건축은 조지 4 세가 채용한 존 나쉬(John Nash)의 설계에 따라 1825 년 시작되었으며 기본적인 골격은 House 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버킹검 궁 앞 정면 도로 중앙의 금빛 동상은 빅토리아 여왕의 기념비로 빅토리아 왕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버킹검 궁 앞 오른쪽의 공원은 460 년 전에 조성된 왕실 공원으로 장미 꽃이 특히 잘 가꾸어졌으며 세인트 제임스 공원(St. James Park)으로 불린다.

□ 수상 관저(No.10 Downing Street)

다우닝 가를 건설한 17 세기 크롬웰 시대의 정치가이며 외교관이었던 조지 다우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조지 2 세가 당시 수상 월폴(Sir Robert Walpole)에게 관저로 기증, 1735 년 월폴 수상이 입주한 이래 많은 수상(웰링턴, 디즈레일리, 레드스턴 등)이 이곳을 관저로 사용하였으며 1902 년 발포어 수상 이래는 모든수상이 정식 수상 관저로 사용하고 있다.

□ 국회의사당(House of Parliament)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 영국 정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은 원래 약 1,000 년 전 참회왕 에드워드를 위하여 궁전을 지은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500 년대 초 헨리 8 세 때까지 왕궁으로 사용되었다. 지금의 건물은 1834 년 화재로 전소된 뒤 찰스 배리 경(Sir Charles Barry)의 설계로 1840 년에 착공하여 요크셔 산 석회석을 재료로 1888 년 완공되었다. 웨스트민스터 다리 쪽에 빅벤(Big Ben)으로 불리는 큰 시계탑이 15 분마다 타종을 하며, 국회가 개원 중일 경우 낮에는 빅벤 반대편의 빅토리아 타워에 영국기가 게양되고 밤에는 빅벤에 전등불이 켜진다.

□ 웨스트민스터 대사원(Westminster Abbey)

1065 년 참회왕 에드워드가 교황의 후원으로 왕위에 오른 다음 그 답례로 성지 순례를 약속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건립하였다.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르망디공 윌리엄이 1066 년 이곳에서 대관식을 가진 이래 역대 영국 국왕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가진다. 중세에는 베네딕트 승려들의 수도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매일 미사가 거행 된다. 역대 국왕 및 그 가족 32 명과 영국이 배출한 위인들의 무덤 또는 기념 판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제프리 초서 등의 무덤과 윈스터 처칠, 셰익스피어 등의 기념 판)이 있다.

□ 성 바울 성당(St. Paul's Cathedral)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으로 원래는 이 자리에 목조 교회가 있었으나 1666 년 대화재 때 다 타 버리고 그 자리에 유명한 옥스퍼드대학 출신의 천문학자이자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Christopher Wren)경이 르네상스 양식으로 1675 년 착공, 35 년간에 걸쳐서 1710 년에 완성한 17 세기 건축의 걸작이다. 로마의 산 피에트로 사원, 피렌체의 두오모 사원과 함께 세계 3 대 사원으로 불리며 특징적인 거대한 돔의 높이가 120m, 직경 34m 에 달한다.

이 성당에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결혼식을 올렸으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웰링턴, 벨슨 제독 등 영국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빛낸 위인들이 지하실 납골당에 잠들어 있다

□ 타워 브리지(Tower Bridge)

런던 타워 앞쪽에 있는 빅토리아 식의 우아함이 뛰어난 아름다운 다리인 타워 브리지는 1894 년에 완성되었으며, 250m 길이에 올려지는 다리 하나가 1,000 톤의 무게로서 완전히 올려지는데 90 초가 소요된다. 100 여 년 전에 이런 다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템즈강이 조수 간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밀물 때와 썰물 때의 수심 차이가 최고 6m(다리와 강 수면과의 차이는 10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된 것이며 현재도 종종 다리가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

□ 런던 타워(Tower of London)

총면적 22,000 여 평에 지어진 런던 타워는 1078 년 정복 왕 윌리엄이 노르망디로부터 건너와 왕위를 차지한 다음 런던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티 지역에 세운 성으로서 260 여 년간 증·개축되어 에드워드 1 세 때 현재의 외벽이 완공되었다. 런던 타워는 모두 20 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왕궁, 동물원, 화폐 주조창, 문서 보관 창고, 감옥 등 그 용도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

이탈리아 르네상스식의 건물로 1851 년 영국 대 박람회를 기념하여 1866 년에 지어졌으며 런던에서 미술품 박물관으로서 유명하다. 빅토리아 여왕과 그 남편인 알버트 공의 이름을 따서 빅토리아알버트 박물관으로 명칭하였다. 박물관은 크게 2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Primary Galleries'는 여러 가지 다른 작품을 시대 스타일별로 전시한 이른바 일반취향의 컬렉션이며, 'Study Galleries'는 특히 흥미 있는 분야를 좀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한 컬렉션으로 되어 있다.

□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1823 년 조지 뷰몬트 경은 영국 정부가 'National Gallery'를 짓는다는 조건으로 그의 소장품을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1824 년 오지리가 예기치 않게 전시 부채를 상환하자 영국 정부가 그 돈으로 존 줄리어스 앵거스틴이 소유하고 있던 유명 작품 38 점을 매입한 것이 National Gallery 의 기초가 되었다. 현재는 2,000 여 점이 넘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으며, 장소에 비해 작품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일시에 전시하지 못하고 타 미술관에 대여를 해주기도 한다. 일부는 창고에 보관하면서 순환 전시 하고 있으며, 초기 르네상스 시기의 이탈리아, 네덜란드, 17 세기 스페인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교외 관광

□ 윈저성(Windsor Castle)

1090 년대 초에 윌리엄 1 세가 런던 외곽 지역을 방위하기 위하여 지었으며, 처음에는 목조로 건축되었으나 헨리 2 세 때 석조로 개축되었고 19 세기 초 조지 4 세 때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현 엘리자베스 2 세 여왕은 주로 주말 휴식처로서 윈저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윈저성은 외국 국가 원수를 맞이하는 영빈관의 역할도 하고 있다. 성 중앙의 라운드 타워에 여왕의 집무실이 있으며 그 곳에 왕실 깃발이 게양되어 있으면 여왕이 성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표시이다.

□ 이튼 칼리지(Eton College)

윈저성에서 템즈강을 건너 약 10 분 거리에 있다. 1440 년 헨리 6 세에 의해 주변마을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어 70 명의 장학생들이 4 개의 기숙사에서 공부한 것이 이튼 칼리지의 시초이다. 그 후 영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사립 중고등학교로 변모하였고 영국의 귀족과 상류계층의 자제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다. 1,200 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으나 70 명의 왕실장학생은 유지되고 있다. 학생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나비 넥타이에 연미복을 입고 까만구두를 신은 예비신사로 변모한다. 이튼 출신의 웰링턴 장군이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전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튼의 교정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윌리엄 왕자도 이 학교를 졸업하였다.

□ 옥스퍼드와 캠브리지(Oxford & Cambridge)

유서 깊은 대학도시로 유명한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는 전형적인 대학가로서 런던에서 1 시간 정도 소요되는 서부, 동북에 각각 위치하고 있다. 옥스퍼드는 도시 전체에 42 개 칼리지(College)가 흩어져 있으며 옥스퍼드의 11 만 5,000 명의 인구 중 1 만 3,000 명이 학생이고 2,000 명이 학교의 직원이다. 두 도시 다 고색창연한 각 대학 건물이 볼거리를 제공하며 특히 캠브리지는 캠(CAM)강의 펀트(PUNT) 뱃놀이가 유명하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런던 북페어

- 개최기간: 2011/04/11 - 2011/04/13
- 개최도시: 런던
- 전시장: Earls Court
- 웹사이트: www.londonbookfair.co.uk
- 전화번호: +44 (0)20 8271 2124
- 전시내용:
 - 매년 4 월 열리는 출판업계 관련 박람회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북페어만큼 규모가 크진 않지만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작년에는 100 개국에서 2 만 3 천개의 관련사가 참석했다.

□ 버밍햄 IFSEC 보안 장비 전시회

- 개최기간: 2011/05/16 - 2011/05/19
- 개최도시: 버밍햄
- 전시장: NEC(National Exhibition Centre)
- 웹사이트: www.ifsec.co.uk
- 전화번호: +44 (0) 20 7921 8057
- 전시내용:
 - 매년 5월에 열리는 영국 최대 보안 장비 전시회로 2010년 130개국 약 2만 2천명의 보안 전문업체가 참석했다.

□ 런던 모터 엑스포

- 개최기간: 2011/06/06 - 2011/06/12
- 개최도시: 런던
- 전시장: Canary Wharf Canada Square
- 웹사이트: www.motorexpo.com
- 전화번호: +44 (0) 1225 425811
- 전시내용:
 - 카나리 와프 야외에서 개최되는 이 전시회는 세계 주요 자동차 브랜드에서 최신 디자인 자동차를 전시한다.

□ 버밍엄 추계 소비재박람회

- 개최기간: 2011/09/04 – 2011/09/07
- 개최도시: 버밍엄
- 전시장: NEC Birmingham
- 웹사이트: www.autumnfair.com
- 전화번호: +44 (0)20 7728 4265
- 전시내용:
 - 영국에서 가장 큰 소비재박람회로 매년 약 2000 여명의 관객들이 방문
 - 문방용품, 인형, 가전제품, 인테리어용품, 주방도구, 악세사리 및 패션용품 등 10 여개 품목 40,000 여종의 제품이 전시됨

□ 100% 디자인 영국

- 개최기간: 2011/09/22 – 2011/09/25
- 개최도시: 런던
- 전시장: Earls Court Exhibition Centre
- 웹사이트: www.100percentdesign.co.uk/
- 전화번호: +44(0)1923 690 640
- 전시내용:
 - 영국최고의 산업박람회로서 최신의 인테리어 가구재, 가구, 조명, 벽지/바닥, 섬유, 팬시용품 등 산업디자인 전반을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현대 디자인 전시회
 - 1995 년 런던에서 시작되어 영국의 전문적이고 혁신적인 현대 인테리어 제품들과 구매자들, 상품전문가와 함께 전문적 식견을 지닌 관람객을 동반하여 진보하는 디자인 산업환경에서 차별화 된 만남의 기회를 제공
 - 하반기에 열리는 전시회 중에는 가장 큰 전시회로 상반기 밀라노 가구 전시회와 견줄 수 있음

□ 버밍엄 라이브 패션쇼

- 개최기간: 2011/12/02 – 2011/12/07
- 개최도시: 버밍엄
- 전시장: NEC Birmingham
- 웹사이트: www.clotheshowlive.com
- 전화번호: +44 20 8267 8300
- 전시내용:
 - 영국에서 유명한 패션 전시회로 패션계의 유망주들이 모여 패션쇼를 열고있음
 - 모토롤라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스폰서를 받으며 미디어의 주목을 받음
 - 대표적 참가 디자이너로는 비비안 웨스트 우드, 존 갈리아노 등이 있음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https://www.uktradeinvest.gov.uk/>

KOTRA와 유사한 영국 무역진흥청(BTI)의 홈페이지로 해외 각국의 시장동향, 상관행, 영국정부가 주관하는 각 국가별 사절단 행사, 영국의 주요산업동향 등을 검색할 수 있다.

☐ www.cbi.org.uk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경제단체의 홈페이지로 영국의 주요산업, 경기동향에 관한 정보 및 영국정부 및 각정당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견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www.britishchambers.org.uk

영국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로 경기동향, 경제정책에 대한 상공회의소 입장, 상의가 주관하는 주요 컨퍼런스 행사 등에 관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 www.dwp.gov.uk

영국 정부부처의 하나인 교육노동부의 웹사이트로서 노동법, 임금,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회사 연금법, 노동시장통계, 고용주의 근로자 정책을 위한 각종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www.bankofengland.co.uk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웹사이트로서 경기동향, 경제전반의 통계, 주요 경제이슈, 영란은행이 발간하는 주간 및 월간 각종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www.ft.com

영국 Financial Times지의 홈페이지로 세계 각국의 경제, 산업, 주식, 외환, 금융 시장 등 경제전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 www.ecgd.gov.uk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기관인 ECGD(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의 웹사이트로 영국의 자본재, 엔지니어링 기술 수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